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2년 단기 4351년(음력 11월 1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79호 2018년 1월 1일 월요일



다시 소중한 새해

2018년 새해가 밝았다. 궁궐과 절이 있었던 전북 익산 왕궁리 옛터에도 새해의 붉은 해가 쏟아진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석탑과 태양이 그 시절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 시절을 읽어준다. 백제의 것인지. 신라 고려의 것인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분명 그 시절의 석탑과 그 시절에 비추었던 태양을 보고 산다. 하나의 태양이 늘 우리를 비추고 그 날의 석탑이 늘 우리 곁에 있음이다. 어제 없는 우리는 없는 것이다. 또 다시 새해가 소중해진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월정사 산문폐쇄하나… 문화올림픽서 외면당한 불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나서서 대중 홍보와 관심을 독려하지만 정작 개최지 평창의 랜드마크인 오대산과 월정사는 홀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월정사는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강원도 문화행사 사업서 철저히 배제되면서 급기야 산문폐쇄라는 초강수 대책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불교계에 협조를 구한 최문순 강원지사의 행보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강원도청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주관하는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은 △K-pop페스티벌 △DMZ평화예술제 △한일중 문화교류 △평창겨울음악제 △미디어아트전시 △오륜별빛문화예술거리 △옻 · 한지 축제 △동양화 교류전 △윈터 댄싱카니발 △단종국장 재현 △대도호부사행차 △망월제 등 25가지다. 이 행사들은 평창을 비롯해 강릉, 원주, 철원, 양구, 화천, 영월 등 강원도 각지서 펼쳐지지만 정작 올림픽 개최도시 평창의 중심인 오대산과 월정사 관련 사업은 전무하다.

월정사에 따르면 문화올림픽을 위해 사업제안을 해달라는 평창군 요청에 따라 오대산과 불교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만남' 사업계획서를 2016년부터 꾸준히 제출했지만 한 번도 채택되지 않았다. 종교라는 이유로 기재부와 강원도가 사업서 배제시켰다는 게 월정사 측 주장이다. 또한 최문순 강원지사가 2016년 12월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와 MOU를 체결하면서 '백만등 밝히기'에 불교계가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종교와 연계돼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기재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 불교를 외면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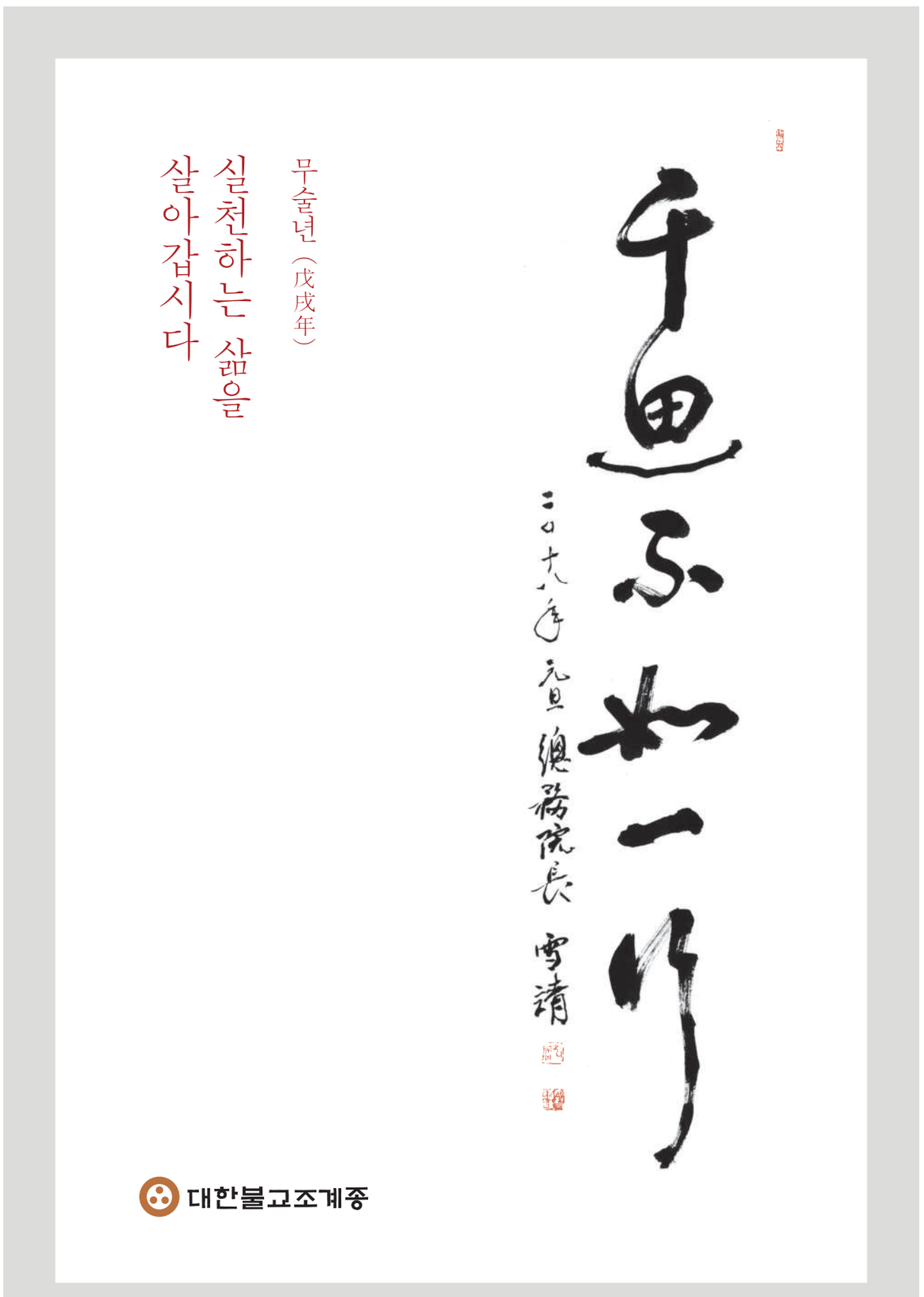
실제 본지가 강원도청 측에 확인한 결과 '백만등 밝히기'는 기재부 예산을 받아 불교와 무관하게 도청이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종교와 연계되면 기재부 예산을 받을 수 없어 등(燈) 설치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진행한다. 국비와 지방비 총 35억 원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정사 제안 사업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배제된 게 맞는지 묻자 "그런 것 같다. 구체적인 이유를 답하기는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해 4월 조계종을 예방해 '백만등 밝히기'에 대한 불교계 협조를 요청하고, 이후 9월에는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한국대회 전야제인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국민화합대회'에 참석해 "스님들 도움으로 백만등 달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중일 불교계는 2018평창올림픽과 2020도쿄올림픽, 2022베이징올림픽 등 동아시아에서 잇달아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성원키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얼마 전 동지행사서도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까지 실시하며 대중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종단협은 등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를 위해 연등회 보존위원회와 연계,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최 지사의 협조요청에 불교계는 적극 동참했지만 제대로 된 대우는 받지 못한 셈이다. 〈A2면에 계속〉

2018평창동계올림픽 맞아
강원도 행사 20여개 펼쳐도
오대산과 월정사는 全無

평창 랜드마크 월정사지만
종교 이유로 사업서 배제
"종교 · 문화 혼동, 국가망신"

福 자비광명이 충만한 복된 새해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2018년 신년특집호
A · B섹션 60면 발행

선지식에게 듣는다 A5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산문 밖의 禪 B1~2
윤후명 소설가



신년법어 · 신년사 A8~10

신년특집
군승파송 50년 A12~15



Post-Healing A18~20
2018 평창올림픽 특집 B5~7
새해 불교계엔 무슨 일이 B18
불교와 개 B19
불교 단체장 신년 포부 B23

사 령
명) 경영관리국 부장 김 경 숙
영업기획국 차장 표 경 희
2018년 1월 1일 부
이상 2명

조계종 신도 배가운동 본격 START

조계종 포교원 · 중앙신도회 신도등록 MOU… "협업 기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신도를 배가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가 힘을 모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과 중앙신도회(신도회장 이기흥)는 구랍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조계종 신도등록 업무협약'을 맺었다.

조계종 신도등록은 1996년 신도들의 재적사찰 갖기 운동 및 관람료 사찰 무료입장 등의 취지로 조계종에서 처음 실시했다. 현재 20여만 명 수준으로 2010년 멤버십 제도 도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종도 정체성 부족 등으로 답보상태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각 사찰에서 실질적인 활동 역량을 지닌 신도회를 통한 신도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협약에서 중앙신도회는 사찰에서 요청한 종단 신도증 발급 및 신도등록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이전에는 찾아오는 신도를 받아들이는 등록체제였다면 이제는 찾아가고, 도와주는 관리체제로 신도체제를 바꿔야 한다. 사찰과 지역 신도들의 상황을 중앙신도회에서 파악하고 있어 포교원과 함께 협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포교원, 중앙신도회, 교구 및 사찰신도회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관리 운영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우려를 최대한 방지하고, 개별신도회도 관심 갖고 종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도등록 10년만에 전면 개편

신도회와 공동 관리, 업무협조

새 신도등록 사이트 발표도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신도 등록 및 관리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됐다. 무거운 책임이지만 원력을 갖고 신심배가운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포교원은 이번 중앙신도회와의 협업을 위해 10년 만에 신도등록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이날 함께 공개했다. 기존 신도등록 사이트는 2008년 개발돼 인터페이스가 노후화되고, 신도 검색 기능이 없는 등 신도등록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포교원은 2년간 논의 및 개발을 거쳐 7월 17일부터 5개월간 개발에 들어가 이날 새 사이트를 선보였다. 포교원은 1개월간 베타버전 운영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바로잡고 2월 1일부터 정식 개통해 종단과 각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포교원과 중앙신도회가 10년 만에 전면 개편한 신도등록 사이트.

새 프로그램은 먼저 재적사찰 신도 검색뿐만 아니라 사찰 신도들의 교무금 납부 내역이 확인 가능하며, 전체 신도 수 및 미활동자 분류 등 자세한 신도 관리 기능을 담았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됐다.

포교원 측은 "신도등록 프로그램 전면 개편으로 80% 가량의 새 기능이 탑재됐다"고 설명하며 "새해 새로운 맴버십 제도 추진 등 신도 배가를 위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교원 측은 "중앙신도회가 교구신도회, 사찰신도회의 중심으로 포교원과 함께 신도 체계 정비, 신행문화 개선 등에 함께 나서고, 종도로서 신도 공동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고 바람을 밝혔다.

스님들 전법활동, 연수 인증된다

조계종 교육원, 결사체 전법활동 연수 인증 규정 제정

구랍 20일 교육원 회의서 통과

승려 4인 이상 비영리 임의단체

전법활동 연수 점수 50점 부여

결사체에 최대 1000만원 지원도

"강의서 실천으로 교육영역 확대"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전법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연수교육 인증과 지원 제도가 새롭게 시작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구랍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일 제9차 교육원 회의에서 '승가결사체 전법 교화활동 연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승가결사체 연수 인증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원이 새로 제정한 '승가결사체 연수 인증 규정'은 기존 승려연수교육 인증과는 별도로 전법교화 승가결사체 정의와 활동, 연수 교육 인증과 지원에 관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승가결사체는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이 전법교화활동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의미하며, 조직 형태는 비영리 임의단체로 단체로 한정했다. 전법활동 범위는 어린이 · 청소년 · 대학생 · 군부대 등 계층 · 직장직능부터 호스피스 · 간병 · 노인수발 등 자비보살행, 인권 · 노동 · 여성 · 환경 등 사회활동 등까지 광범하게 포함됐다.

전법활동에 나서는 승가결사체에 대한 연수 인증은 교육원 공고 후 서류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교무회의서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될 경우 1년 동안 연수 인증이 이뤄진다. 이후 이들에게는 당해 연도 연수점수 50점이 부여된다.

또한 교육원은 승가결사체가 원활한 전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도 진행한다. 보조금 신청을 한 단체들을 심의해 교육원 교무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 임의단체 신청을 해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 사본과 결사체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승가결사체는 매년 11월 말까지 전법활동 결과 보고서와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가결사체 연수 인증은 매년 11월까지, 보조금 신청은 2월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연수 인증 신청은 4월, 보조금 신청은 5월까지 받는다.

이번 신설제도에 대해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스님은 "7대 교육원의 지표는 '전법포교역량을 향상시키는 승가교육'이다. 이번 제도는 승가의 의무인 자비보살행으로써 전법교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면서 "기존의 승려 연수가 강의실 교육에 국한됐다면, 이번 제도로 실천과 활동으로 교육 영역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퇴색하고 있는 승가 공동체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님들의 전법교화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교육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겨울철 군장병 피부 촉촉하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스킨케어 전문브랜드 '애덜린'으로부터 마스크팩 5만3000개를 전달받아 1월 15일부터 일선 각 부대에 마스크팩 보급을 시작한다. 구랍 27일 진행된 전달식에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사진 왼쪽 네 번째)과 이성연 애덜린 대표이사(사진 왼쪽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군장병들에게 전달될 마스크팩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노덕현 기자

〈A1면 '문화올림픽'에 이어〉

이처럼 최 지사와 강원도청의 상반된 행보에 불교계는 적잖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강원도는 "기재부 방침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월정사 측과 대화조차 없던 것으로 확인돼 월정사의 섭섭함이 쉽게 가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화가 없었던 건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대변인을 통해 월정사와의 대화를 지사님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단순히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수준 낮은 문화인식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월정사 행정실장 두엄 스님은 "유럽의 민족 ·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유서 깊은 성당 등 가톨릭 시설을 꼭 방문해야 한다. 여기에 종교라는 선입관을 갖는다면 제대로 문화를 알 수 없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화는 뒷전이고, 모든 것을 종교로 해석하려 한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문화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한 "지난해 3월 월정사에서 IOC 집행위원회 만찬을 진행했고,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의 경우 자녀까지 템플스테이에 참가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오는 3월에는 IPC 패럴림픽 집행위원회 만찬도 예정돼 있다. 호텔 · 레스토랑이 아닌 한국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도 "문화와 종교 개념을 혼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와 종교를 혼동하지 않는데 이 같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시각은 국가적 망신이나 다름없다"며 "문화를 특정 종교의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 때문에 그 지역만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제한하는 건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의심되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자현 스님은 "어느 올림픽이든 단순 행사만으론 적자를 면할 수 없고, 지속사업을 만들어내려면 문화 연계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다. 월정사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도교 문화가 집약된 종합적 문화유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제4교구본사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구랍 23일 제44회 교구종회서 문화올림픽 추진과정서 겪은 불교계 사업 배제, 오대산사고전시관 예산 증액 무산 등에 따른 입장문을 채택했다.

월정사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범종단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오대산과 월정사의 유무형 자산을 제공해 한국 정신문화를 소개했다"면서 "하지만 중앙정부와 강원도는 월정사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 홀대와 외면, 종교편향 탓에 월정사는 불교의 자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종교편향에 맞서 산문폐쇄 등 불교 자존을 위한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도 월정사의 입장을 전해 듣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28일 월정사 보고를 받고 "산문폐쇄는 큰 여파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나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정부 · 강원도와 대화가 원만히 이뤄져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갓바위 부처님!

높은 산중턱에 좌정하시어 묵묵히 자비와 지혜로 중생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시는 갓바위 부처님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어려움과 수고스러움을 마다 않고 갓바위 부처님 도량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본사 사부대중은 올해도 모든 이들의 소원성취와 인연공덕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戊戌년 새해에도 갓바위 약사여래부처님의 광명이 모든 가정에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서원합니다.

- 주지 법성 외 사부대중 일동 -

- 천년을 이어온 법등, 천년을 이어갈 불사 - 12가지 석등
- 하단 생활관 동기와 불사

- 소중한 인연의 동참을 바랍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갓바위 Tel. 053.851.1868 / 853.9877

“종교개혁 없이 사회개혁 불가능”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종교인 등 2000명 종교개혁 선포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각기 다른 종교인들이 모여 우리사회의 종교개혁을 외쳤다. 원효 탄신 1400주년,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2000여 종교인들은 “길을 제시할 종교가 스스로 길을 잃고 말았다. 종교개혁 없이 사회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 높였다.〈사진〉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종교개혁선언 추진위원회(공동대표 박광서 · 이정배 · 김유철)는 구랍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종교개혁 선언문 선포 및 기자회견’을 열고 3대 종교개혁을 위한 연대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성직자와 수행자들의 타락은 이미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 대다수 절과 예배당은 성스러움과 무한, 빛과 소금을 상실한 채 영화 한 편보다 더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일개 상담소보다 더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면서 “진리와 의미는 사라지고 종교 공동체마저 해체돼 각자 제 살 궁리만 도모하면서 모두가 외로움과 소외에 몸부림치면서도 서로 이를 심화하는데 몰두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각 종교별로 종교개혁 운동을 선포했다. 불교는 △범계승에 대한 공양 금지



△수행 · 포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동참 △사부대중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 △사회적 약자 보호 △소욕지족의 삶 등을 목표로 세웠다.

개신교는 △성직자 부당함 밝히고 교회 공공성 회복 △평신도 함께하는 민주적 교회 공동체 실천 △작은 교회 형성 및 연대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천주교는 △이윤추구 사업 물러나 가난한 교회로 △여성 평신도 권리 확대 △순교성지 성역화 사업에 이웃종교 배려 △4대강 재자연화, 탈핵 등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 등을 내세웠다.

한편 이번 종교개혁 선포에는 불교 단체 20곳 · 개인 559명, 개신교 단체 21곳 · 개인 640명, 천주교 단체 13곳 · 개인 574명, 무종교 및 이웃종교 단체 1곳 · 개인 402명이 서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동지팥죽 민족문화 함께 지켜요” 극심한 한파가 한반도를 스치며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온기를 나누는 마음만큼은 얼리지 못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구랍 22일 서울 인사동 북인사마당서 ‘동지 팥죽 나눔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시민과 관광객 4000여 명에게 무료로 팥죽을 제공했다. 특히 종단협 회원종단 소속사찰 전국 100여 곳에서도 같은 행사가 열려 총 30만 명을 대상으로 팥죽 나눔이 펼쳐졌다. 사진은 종단협 회장 설정 스님이 시민들에게 직접 팥죽을 담아 전하는 모습. **윤호섭 기자**

“文, 일본군 성노예제 합의 즉각 폐기하라”

조계종 사회노동위, 외교부TF 결과에 성명 발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일본군 성노예제 합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외교부 ‘한 ·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구랍 27일 “(2015년 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진전 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한 · 일 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 오히려 한 · 일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밝힌 직후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위안부TF팀은 한일 합의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며 ‘불가역적 해결’이란 표현을 외교부가 삭제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발표했다. 사회노동위는 이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지 1시간 뒤 일본군 성노예제 재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노동위는 성명을 통해 “위안부TF 발표는 일본군 성노예제 협상에서 박근혜 정부의 반민족적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수치심마저 느끼게 만드는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분노와 상처를, 국민들에게 모욕을 준 일본군 성노예제 합의를 즉각 폐기 선언해야 한다”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할머니들뿐 아닌 민족의 문제요, 역사의 문제이기에 먼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아들이고 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회노동위는 “어리석음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사회노동위는 함께 기도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형 기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 불교 ‘최다’

63개 종교단체 중 불교 55개… 대부분 유사불교단체로 확인

올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중 종교계 단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구랍 21일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 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65곳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7개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종교단체가 63개(97%)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51개,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 보관하지 않은 단체 10개(이 중 8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중복),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가 적발됐다. 다만 국세청은 단체명에 특정 종단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해당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사찰은 55곳이나 적발돼 종교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속 종단이 없거나 유사불교단체로서 종교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찰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 소속 사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사찰로 보이는 5곳(태고종3 · 법화종1 · 용화종1)이 있었다.

윤호섭 기자

“이사무애 선지식이여, 열반락 누리소서”

영허당 녹원 대종사 원적
세수 90세, 법랍 77세로

영결식, 조계종단장 엄수
사부대중 5천여 명 참석

직지사=손문철 대구지사장



영허당 녹원대종사의 법구가 직지사 연화대로 이운되고 있다.



영허당 녹원 대종사 행장

1928	경남 합천군서 출생
1941	사미계 수지(탄옹 스님)
1946	구족계 수지(한암 스님)
1958	직지사 주지
1981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1984	조계종 총무원장
1985	동국학원 이사장
1997	원로회의 의원
2007	직지사 조실

1980년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영허당 녹원대종사의 법구가 사바세계를 떠났다. 황악산 터줏대감의 빈자리는 적막만이 가득 메웠다.

구랍 23일 원적에 든 녹원 스님의 영결식이 27일 제8교구본사 김천 직지사에서 조계종단장으로 엄수됐다. 녹원 스님은 세수 90세, 법랍 77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갑작스런 한파에도 불구하고 영결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원로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종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각 교구본사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 등 50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해 녹원 스님의 원적을 추도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녹원대종사 각령전에’라는 법어를 통해 “녹원대종사께서 남기신 90년의 성상은 이사에 구분이 없고, 세간과 출세간에 걸림이 없던 이 시대의 선지식이었다”며 “일찍이 동진출가하시어 선과 교와 종무를 두루 섭렵하고, 오직 종단 발전과 후학불사, 가람불사를 평생 원력으로 삼으시고 일로매진했다”고 녹원 스님을 기렸다.

이어 “부처님 정법으로 종단을 이끄시고, 지혜와 덕망으로 원융화합을 이뤄 조계종을 반석 위에 우뚝 세움에 모든 종도들의 귀감이 되니 실로 수행자의 참모습을 보이셨다”고 말했다.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큰스님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기다리겠다. 속환사바 하셔서 이 땅의 불일(佛日)을 다시 한 번 빛나게 하소서”라고 추도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영결사에서 “녹원 스님께서는 평생을 교육불사와 가람불사에 매진하셨다. 중생을 위한 일에는 차별이 없고, 불사를 통해 지혜의 종자를 심었다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불사라고 하셨다”며 “90평생, 70여 성상을 지혜의 종자심는 일에 매진하셨으니 이제 보리의 열매가 곳곳마다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은 조사를 통해 “지혜를 얻는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고 복을 짓는 선행을 즐거이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스님의 자애로운 가르침은 출가자에게나 재가자에게나 모두 펼쳐져 있었다”면서 “이제 부처님의 회상에서 최상의 적멸락을 누리시옵소서”라고 말했다.

영결식은 명종 5타를 시작으로 △삼귀의례 △영결법요(어산어장 인묵 스님) △행장소개(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추도입정 △영결사 △법어 △추도사 △조사 △조가 △헌향 △인사말(문도대표 혜창 스님) △발인 순으로 진행됐다.

영결식 이후 녹원 스님의 법구는 직지사 연화대로 이운됐다. 연화대서 불법승 구호에 이어 거화의식이 거행됐다. 참석 대중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녹원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예를 올렸다. 녹원 스님 49재는 구랍 29일 초재를 시작으로 내년 2월 9일까지 직지사서 봉행된다.

2018년에도 크게 발전하는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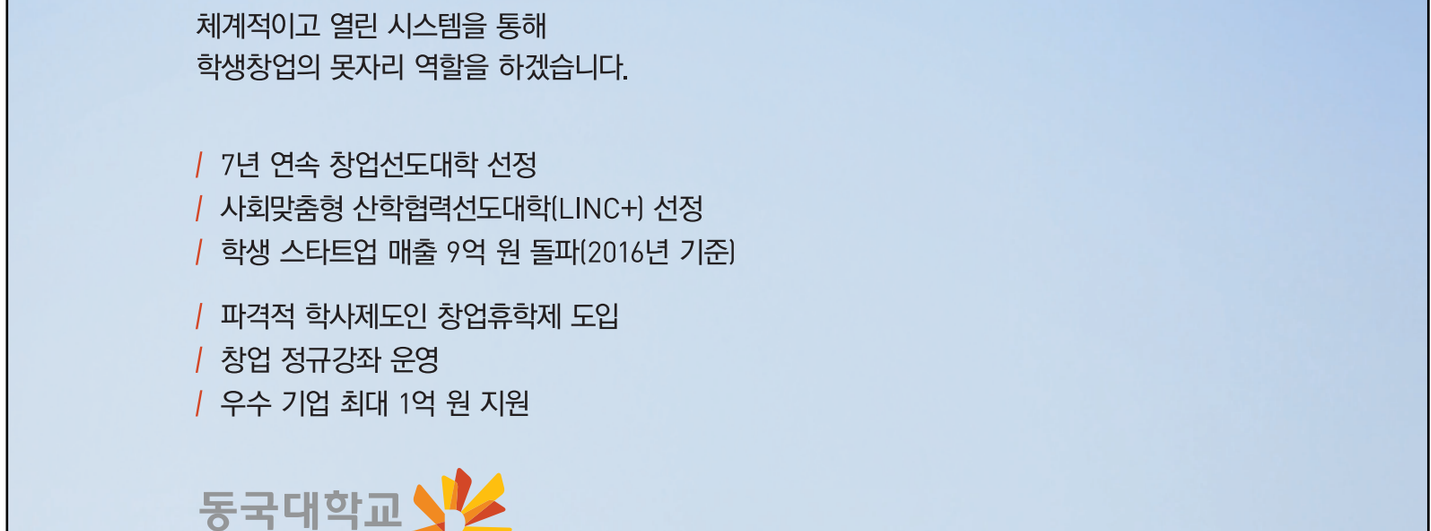
동국대학교는
학생 스타트업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열린 시스템을 통해
학생창업의 못자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 7년 연속 창업선도대학 선정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선정
/ 학생 스타트업 매출 9억 원 돌파(2016년 기준)
/ 파격적 학사제도인 창업휴학제 도입
/ 창업 정규강좌 운영
/ 우수 기업 최대 1억 원 지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8. 1. 7[일] ~ 1.9[화]



언리얼파크 진사욱(멀티미디어10) 김경현(멀티미디어11) 이상곤(멀티미디어12)
– 증강현실기반 액션 모바일 게임 ‘코드몽’ 개발 – 2017년 대학생 스타트업 CEO50인 선정

신년 필진을 소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이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필진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논설위원 제도를 신설해 전문적인 오피니언 칼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행 · 성보 · 생활법문 등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는 연재들도 확대했다. 신년 필진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신임 논설위원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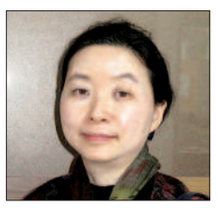

선업 스님


방영준


최종남


이윤호


이화행


황수경

명상 · 사회 · 학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적인 오피니언 칼럼 '기대'

현대불교신문사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논설위원 제도를 다시 시작한다. 이를 통해 오피니언 칼럼을 강화해 불교계에 건전한 여론을 선도하려 한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선업 스님은 명상 · 수행 · 상담 일선에서 대중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이다. 현재 한국차명상협회에서 차담 명상 전공 교수와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는 1984년부터 성신여대 교수로 교편을 잡았다. 방 교수는 '바르고 행복한 사회'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최종남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는 일본 사천왕사국제불교대학,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으며 특히 유식학의 세계적 권위자 슈미트하우젠 교수의 제자로 공부했다. 1998년 귀국, 위덕대를 거쳐 중앙승가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범죄학 박사로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제도, 이론적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범죄학과 경찰학 그리고 피해자학과 관련한 100여 편의 연구보고서와 논문을 발표한 해박한 그의 해설이 기대된다.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독일 보쿰대에서 언론학 박사를 받은 방송 미디어 전문가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불교 언론이 나아갈 길을 칼럼을 통해 제시할 것이다.

황수경 불교상담개발원 이사는 명상 및 심리 상담 전문가로, 불교여성개발원에서도 꾸준히 소임을 맡아왔다. 명상 상담뿐만 아니라 여성불자 신행에 대한 전문 칼럼이 기대된다.

법문 · 성보 · 수행 등 읽을거리 대폭 강화

생활법문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출가 60년을 넘긴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삼천사 주지 · 한국불교학회장 · 동국대 석좌교수)은 금강반야와 법화수행 그리고 아함의 가르침을 사회복지 실천으로 회통했다. 복지 실천은 보시바라밀과 인연 연기의 인과 수행임을 강조하는 성운 스님은 그 회통의 법을 사회 곳곳에서 설하고 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수행 이력의 결실인 성운 스님의 60년 회향 법문 '보리수 아래서'를 3월 첫 주부터 A2면에 연재한다. '관계(연기)'로 시작해 아름다운 관계 맺기의 불교적 해답으로 이어지는 이 연재는 마음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박삼중 스님은 재소자 교화에 나선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스님은 반세기동안 전국의 재소자들을 찾아 교화 설법을 하고, 그들의 마지막을 지켰다. 그 세월 속에서는 억울하게 사형수가 된 이를 살려준 믿을 수 없는 원력을 이룬 사연도 있다. 박삼중 스님의 50년 세월동안 가슴 속에 켠켠히 묻어둔 잊을 수 없는 인연들과의 남기고 싶은 일화를 인물 중심으로 격주에 걸쳐 소개한다.

성낙윤의 〈불교매듭〉



스님들의 가사장삼을 이어준 매듭은 검박함을 미덕으로 삼는 승가에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장식이었다.

불교의례와 의식에도 사용된 매듭은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한국전통문화의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매듭연구가 성낙윤 선생과 매듭염주 등 직접 매듭 엮는 법을 따라하며 불교문화 속 매듭을 함께 만들어 보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여여원 원장 이란 법사가 만화로 들려주는 선지식과의 작은 대화들이다. 짧은 대화지만 깊은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란 법사는 해인사 전계사 종진 스님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았으며, 강진 백련사 재가자(1기) 무문관 안거 수행과 벽송사 선강법회 등 많은 선지식들을 찾아 공부했다. 공부 중에 가슴에 와 닿은 깨달음의 순간들을 들려주는 설법의 시간이다.

교리

원욱 스님의 〈경전 산책〉



서울 목동에 자리한 반야사는 주택가에 위치해 목탁소리 조차 내지 못한다.

하지만 매주 경전강좌를 통해 도심포교의 중심도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지 원욱 스님의 경전 강좌는 유쾌하다. 암투병 속에서 경전읽기를 통해 극복한 경험이 녹아 있다. 다양한 경전을 재미있게 해설하는 스님의 경전 강좌. 산책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자.

명상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조계종 단일계단위원이자 팔공총림 율주인 지운 스님은 자비선 명상을 펼치고 있다.

이는 남방불교의 전승, 북방불교의 전승, 선가의 전승이라는 세가지 수행법의 단계를 보리심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회통한 수행이다. 수행의 끝은 결국 자비희사.

자비선 명상을 통해 생활 속 명상과 실천을 알아가자.

고승

박동춘의 〈초의 스님 前 上書〉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초의선사의 방계손인 응송 스님에게 '전다계'를 받은 초의차 연구의 선구자다. 평생을 차와 초의선사를 연구한 박 소장이 이번 연재를 통해서는 초의선사와 서간문으로 교류했던 인물들을 조명한다. 새로 발굴된 95통의 편지에는 초의선사를 중심으로 당시 선지식 · 지식인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수행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기행〉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인 현견 스님은 북경서 15년간 유학하며, 중국 선문화를 심도깊게 연구했다. 이번 연재에서는 초기 선종에 대한 주제를 갖고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축약해 다루려고 한다.

예를 들면 중국서 달마 이전의 선법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그러한 선법들이 인도불교와 어떠한 역사적 및 사상적인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소개한다.

윤창화의 〈중국선원의 생활과 철학〉



재야 불교 학자이자 불서출판인인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2008년부터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 집필을 시작해 2017년 이를 출간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런 결과 2017년 불교평론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선과 중국선을 아우르는 선종사찰 곳곳에 담겨있는 철학을 탐구한 열정과 소회, 그리고 그 결과물을 지면을 통해 맛보자.

성보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성보(聖寶)는 귀중한 불교의 보물이자 전통문화유산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근현대의 질곡을 거치면서 적지 않는 수가 도난 · 유출됐다.

최선일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위원이 사찰별 도난 문화재들을 연재를 통해 조명한다. 이를 통해 도난 성보를 기록하고 알려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노재학의 〈한국산사의 장엄세계〉



〈절집천정, 화엄의 빛〉 연재를 통해 사찰 천정 장엄 분야를 개척한 노재학 사진작가가 양산 통도사, 해남 대흥사 등 전통산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독자들에게 한국산사의 장엄을 세밀하게 다시 소개한다.

전문 사진 기법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예정인 사찰 7곳의 세부적인 문양과 성보들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불교 경제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지낸 윤성식 고려대 교수는 불교경제학의 구루다. 지난 2015년 〈부처님의 부자 수업〉을 펴내며 경제계와 불교계서 큰 반향을 일으킨 윤 교수는 이번 연재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실천을 현대인들의 경제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례를 들어 명쾌하게 풀어낸다.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불교리더십과 사찰운영〉, 〈종무행정론〉 등을 펴낸 사찰경영 전문가로 사찰경영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

사찰관리, 리더십, 대사회활동, 전법교화 등 각 분야에서 사찰의 양적성장과 질적 성숙의 균형방안을 모색하고, 사찰단위의 경영방안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재는 사찰 현대화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謹賀新年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현지사

초 대 교조 광명 만덕 큰스님
제2대 교조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 의장 광영
감 찰 원 장 일도
교 육 원 장 대원
교 정 원 장 성광
포 교 원 장 행원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 총본산 주지 정대
부산분원 주지 보문
고성분원 주지 성범
대구분원 주지 도현
제주제2본산 주지 남전
대전분원 주지 범행
서울분원 주지 지원
일본분원 주지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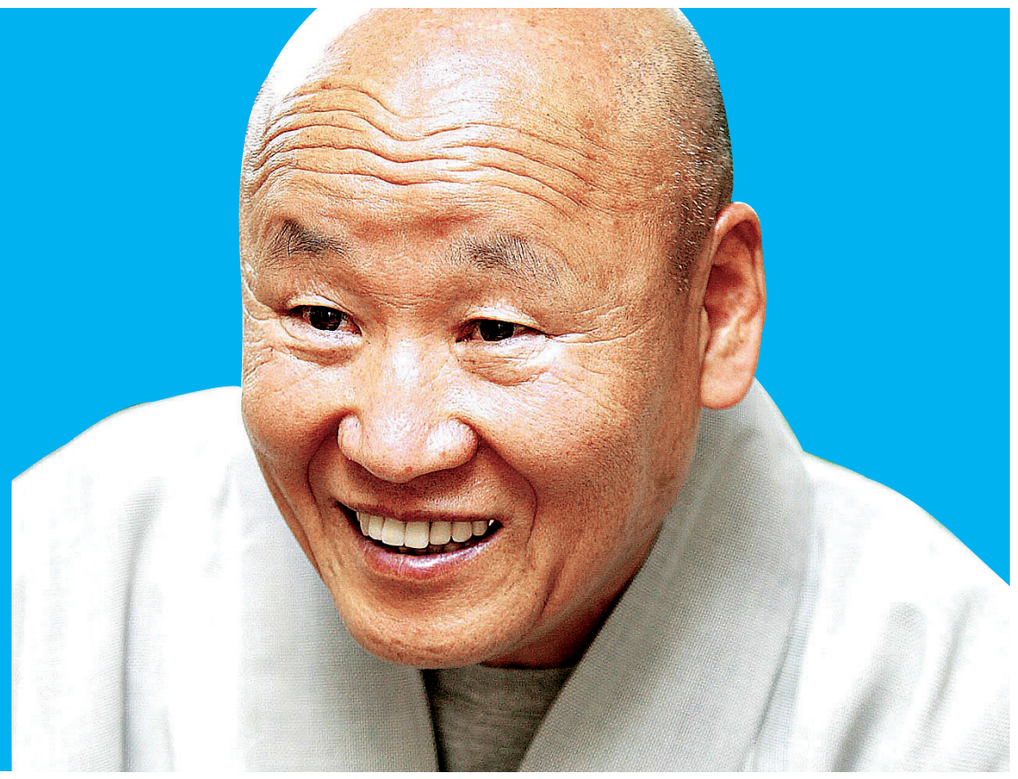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 ☎ 02-453-5953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일본분원 일본국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6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 ☎ 042-525-5325

“수시로 일어난 번뇌 쳐부수고 차단하는 것이 불교적 수행”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지난해는 유난히도 다사다난 했다. 국가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 촛불집회로 이어진 정권 교체, 포항 지진 등 큰 사건들로 들썩였다. 불교계에도 지난해에는 승려들의 성추문으로 한때 스님들의 위상이 추락하는 등 온통 악재들이 연달아 터지며 위기감이 고조됐다. 한마디로 어려움의 연속이다. 이제 다시 밝아온 2018년 무술년 새 아침에는 희망이 우리곁으로 성큼 다가올까? 그리고 산중서 수행하며 혜안을 지니신 선지식들은 지난 위기를 돌파할 해법을 알고 계실까? 2016년 단일 사찰로는 드물게 11채의 1인 무문관인 ‘두타선원’을 운영하며 후학들의 용맹정진을 독려하고 있는 묘허 스님을 구랍 27일 찾아가 친견했다. 그리고 여쭈었다. 실추된 승풍 진작과 한국불교의 침체 탈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단양 방곡사=김주일 기자

▲지난해 한국불교가 많이 침체돼 있다고 회자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밖에서 겉으로 볼때 교세나 외형은 침체 됐어도, 보이지 않는 깊은 산중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불교는 말로만 아름답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언행일치나 지행일치가 돼야 합니다. 말한바 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지요. 설령 침체됐다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 맡은 임무와 책임을 다 하려고 노력하다보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점점 불교가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왜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왜 공부하는지 근본 이유를 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를 왜 공부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불교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기복적으로 시작하는데, 이들중 불교가 가장 수승한 것은 불교 외의 모든 종교는 타력 신앙, 구원의 종교이지만 불교는 자력신앙이자 자각의 종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성을 깨달아서 견성 성불한 후에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교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 대신 내 영혼을 구제할 수 없어 자력적이지요. 스스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영혼이 생사윤회서 해탈하는 것만이 내 영혼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 불교를 공부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평소 법문 하실때 업(業)에 대해 강조하시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업 짓는 행위 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가 업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 자체가 업이지요. 보통 업이라 하면 일반 사람들은 악업, 죄업 등 부정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업도 분명 업이지요. 과보가 다를뿐이지요. 선업은 선복, 악업은 악복을 받습니다. 생사의 근본이고 윤회의 근본인 이 업을 짓지 않으면 윤회가 끝나는데, 중생은 업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업을 지어가면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윤회를 벗어나 영원히 대해탈 하기 위해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야 업의 굴레에서 훌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굴레서 벗어나는 길은 해탈하는 길 뿐입니다.”

▲우리는 일상서 번뇌망상을 내려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비결을 알려주시지요.

“불교의 수행은 태양이 24시간 쉬지 않고 빛과 열을 항상 비춰주는것과 같죠. 불교의 진리는 알고 보면 낮을 낮이라고 해도 반 밖에는 모르는 것이고, 밤을 밤이라고 해도 반 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구름이 끼거나 눈비가 오면 중생들은 햇빛을 못봅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름이 빛을 차단하는 것뿐이지요. 구름만 벗겨지면 밝은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번뇌고 망상인데, 그것을 내 생각인줄 아는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일어난 번뇌를 쳐부수고 차단하는 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신이 싸우는 작업이 수행이지요. 싸워서 이기려면 상대를 쳐부숴야 합니다. 그 무기가 화두, 염불, 주력 등입니다. 일어난 망념을 쳐부수고 생각을 일지 못하게끔 화두, 의심 하나로 모으는 것이 수행이고 참선입니다. 이것만 하면 번뇌망상이 소멸됩니다.”

▲무문관 수행은 사실 한국불교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수행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일 사찰로는 무문관 운영이 힘드실텐데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신지요?

“선원장 스님과 의논해서 무문관인 두타선원을 지을때는 발심한 스님들이 들어가서 목숨걸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행문화도 점차 자꾸 바뀌지만, 옛날에 선방에 다니던 수좌 스님들은 발심해서 목숨 걸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용맹정진에 들었습니다. 하면된다는 것은 공부에 대한 발심,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지요.

우리 두타선원에는 집이 열두채 있는데 처음 만들 당시에는 6년 용맹 결사를 꿈꿨지요.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9개월 수행 정진을 하는 도량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뜻대로 안돼 지금은 시대 상황에 맞춰 3개월로 줄였습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단양 방곡사가 운영중인 무문관인 ‘두타선원’ 전경

> “어느곳에 머무르더라도, 자기의 본래모습을 잃지 않고 항상 자기 본연의 모습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처념상정”

▲새해를 맞아 욕심을 내려 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욕심은 더 새록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지요?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들죠. 스님들도 수행에 욕심이 있어야 하듯이, 사회인들도 자기 생활에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욕을 버려야 하지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 분수를 지킬 줄 알면 자연적으로 과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본분 밖의 것을 탐하다 보면 그것이 곧 과욕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스스로의 능력과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은 과욕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후회없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는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관계 만큼 힘든게 없다고들 합니다. 관계에서 상처 받고, 분노가 치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지만 사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인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노가 일어날때는 스스로 하심하고 나를 낮춰 상대를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만복이 옵니다. 항상 상대를 이기려고 하니까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굽힌다고 하면 존재감이 없어지고, 업신 여김 받아 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정 반대입니다. 나중에는 상대방이 심하게 상처준 것을 다 알아주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하심이 다 빛나게 돼 있습니다. 죽는 가운데 살 도리가 있듯이, 지는 가운데 이기는 도리가 있습니다.

▲스님도 화가 날때도 있으실텐데, 그런 감정을 어떻게 억누르시는지요?

“내가 30세 일때 귀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만 해도 성적이 좀 못됐고, 작은 것에도 시비를 잘 하고, 도반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참지를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날 나 혼자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사니 가까운 도반들이 하나 둘 떠나갑디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아니면 상대인데, 상대 인생을 관여하느라고 내 시간 빼앗기고 내 공부 못하는것보다 더 큰 손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는 절대로 남의 인생에 간섭 안하겠다고 다짐했지요. 일단 남의 인생에 관여 안하면 화날 일이 안생기고 조금 참고 져 주면 나중에는 분명 존경받습니다. 부부간에도 상대 인격을 존중해주세요. ‘우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즉 울타리란 뜻도 포함돼 있지요. 너와 나를 얼거놓고 감싸 안는 것이 우리입니다. 상대방에게 들어갈 공간을 찾지 말고, 당신을 품어줄 공간을 내가 만들어 줍시다.”

▲마지막으로 새해 우리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가르침이 있으시면 들려 주세요.

“처념상정 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곳에 머무르더라도, 자기의 본래모습을 잃지 않고 항상 자기 본연의 모습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처념상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불자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처념상정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수행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 몸에서 도향이 풍기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자신을 지키고 처념상정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묘허 스님은? 1943년 경북 의성서 태어났다. 이후 1957년 상주 남장사서 한산당 화엄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63년에는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했으며, 1965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이후, 성암 강백 화상 밑에서 대교이력 및〈전등록〉을 이수했다. 이후 통도사 보광선원 수선안거 이래 30여 안거를 성만했다. 1975년 은해사 말사 법주사 주지를 거쳐, 1979년 신탄진 신흥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는 신탄진 신흥사, 김해 원명사, 단양 방곡사 회주 등을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무원장 석 도 선

고 문 석 암 도

승 정 원 장 석벽봉 승정부원장 석화담 승 정 석혜암. 석대원
원로부원장 석일우 원로위원 석법령. 석청산. 석우암. 석도명. 석정호. 석법산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보광	어 산 장 석도암
법계고시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청강	의전위원장 석명구	비구니회장 석혜담
총무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도흥	감찰부장 석성보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종우	사서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성담
총무국장 석성덕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혜성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각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부회장 석효성	비구니부장 석지현	비구니국장 석충효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정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종단법인 운영이사 이사장 도선 수석이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운영이사 청강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수선화 성덕 의공 학산 법광 혜림 혜화 법수
종단전국여성신도회회장 수선화(정순옥)

■종단법률자문위원 변호사 : (明眞)김진우 | 법무사 : (雲虛)이익렬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 도 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 회 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원명화 (윤영아)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 원 장	보연화 (유희연)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 혜	충북부장	상 학	구미부장	혜 진
울산원장	법 광	부산부장	혜 성	대구부장	혜 련
경북원장	성 인	경기부장	자 운	청주부장	혜 원
법사원장	목 암	전남부장	혜 명		
경남국장	성 광	포교국장	청 운	삼척국장	혜 원
사업국장	정 명	통영국장	덕 인	영천국장	원 명
포교국장	덕 운	포교국장	혜 림	통역국장	정 연
종무국장	도 연	봉화국장	혜 정	포교국장	혜 경
서울국장	명 덕	화순국장	보 정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佛紀 2562年 戊戌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A6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는 부처가 될 성품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 (열반경)

한국불교태고종

종 정 혜 초

승정원 원장 남 파
부원장 법 장

원로회의 의장 덕 화
수석부의장 원 묵
차석부의장 금 용

중앙종회 의장 도 광
수석부의장 시 각
차석부의장 상 명

호법원 원장 지 현
부원장 상 묵

총무원 원장 편백운
교육부원장 능 화
총무부장 정 선
교무특보 월 조
재경부장 법 정
문화부장 석 천
사회특보 진 원
규정부장 혜 암
홍보부장 혜 철
사서실장 도 해

종 도 일 동

■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112)
전화 02)739-3450~4 팩스 02)739-3470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변춘광
총무부장 정월중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장호
재무부장 지설혜
사회부장 이개문
규정부장 이월장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원로간사 주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도원
종의회부의장 김세운
김우영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엄행주

종정사서실
사서실장 박덕수

중앙신도회장 김종규
참의원장 김학송

대한불교천태종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73 구인사
전화 (043)7100 | 전송 (043)420-7399 | www.cheontae.org

대한불교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육자진언 신행으로 公(공)(큰 세계)의 세계,
만다라 세계를 구현하자.



총 인 회 정

통 리 원 장 회 성
종의회의장 덕 일
현 정 원 장 법 정
교 육 원 장 덕 정
회당학원이사장 증 광

무술년 새해 기쁨은 나누고,
아픔은 같이하는 관음종이 되겠습니다.



2018. 1.20. 오후 1시 일본 우베시 조세이탄광 해저 수몰사고 추모광장에서 위령재를 봉행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www.kwanum.kr T 02) 763-0054 F 02) 763-5851

총기 47년
불기 2562년

불교총지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종령 효 강 대종사
통리원장 인 선

중앙종의회 의장	수 현	중앙교육원장	화 령
사감원장	안 성	동 해 중 학 교 이사장	인 선
총무부장	우 인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 경
재무부장	원 당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 성
교정부장	법 일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정인화
사회부장	지 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지 정

중앙종의회 의원
총지종 유지재단
전당건설 위원회
통리원 임직원

법장원
밀교 연구소
(재)사회복지재단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총지종보 및 종보 통신원
각 교구 신정회 일동
만다라요양원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
초록어린이집 · 잠원햇살어린이집
일원어린이집 ·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자성일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불교총지종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사) 대한불교 무 량 종

종 정 정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양 지 은

총무원장 보공 교 육 원 장 보산 감 찰 원 장 보문 포 교 원 장 보아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 의 장 자운. 보우 사무총장 보성

총무부장 정운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보련 사회부장 보월 호법부장 정목
총무국장 보림 재무국장 보영 교무국장 무진 사회국장 지향 포교국장 보륜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 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7790

佛紀 2562年 戊戌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A7

깊이 인연을 보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떠나 밖에서 스승을 구하지 않는다. (장아함경)

大韓佛教 佛入宗

宗 正 勉哲

元老院長 海 月
總務院長 鏡 岩

호법원장 **지철** 종회의장 **법진** 종회부의장 **보선** 포교원장 **명성**

총무부장 **보성** 호법부장 **송광** 재무부장 **묘훈**
사회부장 **법천** 포교부장 **시원** 종정사서 **무진**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25 송화사 / 전화 043)653-4800 / 팩스 043)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0 안길4 / 전화 043)653-4848 / 팩스 043)642-6660

(사) 대한불교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 融 無 碍 一O相 眞理體得 圓 通 融 和 道義社會建設
圓 滿 融 通 人格完成 圓 融 會 通 理想世界實現

종 정 성관
총무원장 진 호

종도일동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80-6 (구로동)
전화 02)853-0531~2 팩스 02)853-0533
■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팩스 02)857-5094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종 정 **혜봉**
원로위원 **법준. 고산. 경호. 대명. 보현. 광명**

총무원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보성**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앙종회의장 **수운** 부 의 장 **호경**
중앙종회의원 **혜언. 혜광. 수진. 법우. 혜가. 혜공. 이타. 무상. 묘각. 청산**

중앙사정원원장 **정화** 규정부장 **백파**
중앙포교원원장 **혜일** 부 원 장 **보단**
중앙교육원장 **공덕** 중앙선원장 **현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 원 장 **무봉**

서울교구종무원장 **청산**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교구종무원장 **혜언**
경남종무원장 **혜광**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수진** 강원교구종무원장 **연각**
전북교구종무원장 **법우**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혜공**

비구니회회장 **법인** 국제교화원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11-5 /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불.법.승

(宗) 대한불교 삼보종

단기 4351(불기2562) 무술년

1세종정 멸공대종사 법주 정각대종사

부종정 **회천** 원로원장 **금산** 원로부원 **정공. 정민**
총무원장 **법장** 호법원장 **호신** 종회의장 **법융**

부원장 **법경** 문화원장 **법등** 교육원장 **홍인**
감찰원장 **법도** 포교원장 **법륜** 염불원장 **원명**

종회의원 **보각.법성.법공.해곤.계월.해봉.**(外 15인)
교구원장 **수산.법인.보산.불광.해원.용현. 법융.법송.지원.청광.정륵.**(16교구)

총무부장 **평산** 교육부장 **도오** 규정부장 **도철** 호법부장 **청파**
교무부장 도찰 포교부장 **혜수** 문화부장 **진각**
총무국장 **지일** 포교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회국장 **도능** 예술국장 **보인**
사 무 장 **목련해** 전국신도회장 **범해(정순조)**

■ 삼보조계종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499번길 4 / 전화 055)338-0089 팩스 055)333-1880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재단이사회
명예이사장 **경원**
이 사 장 **일명**
부이사장 **경담**
상임이사 **혜광**
이 사 **혜천. 법도화. 자비행**

종정 / 총무원
종정권한대행 **경원**
총 무 원 장 **경원**
* 별종직
삼장대학원장 **법해**

원로회의
원 로 의 장 **혜천**
원 로 의 원 **무찰, 봉암, 원각, 동봉, 덕봉, 대륜, 혜성, 원각, 해월**

중앙종회
종회의장 **법성**
종회부의장 **고봉**
종회의원 **도정 석경 령산 혜일 지흘 성운 경담 보은 무착 법일 일운 원진 덕산 혜광 금진 덕산 자림 여래자 백운심**

종무위원
호계원장 **석성**
교육원장 **승원**
포교원장 **보성**
선거관리위원장 **지언**
인권위원장 **마덕**
감사원장 **법경**
총무부장 **원공**
교무부장 **경담**
홍보부장 **해동**
재무부장 **덕운**
사회부장 **대원**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교구 **보해**
경기남부교구 **대각**
경기북부교구 **도허**
경북교구 **법경**
경남교구 **진공**
대구교구 **고봉**
대전교구 **경담**
부산교구 **지언**
전북교구 **지명**
제주교구 **제법**
울산교구 **현산**

법사회
법사회장 **대원**
010-2352-1047
법사총무 **혜각**
010-6708-1288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WWW.ilbung.org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TEL 02)991-8175, 8904 | FAX 02)991-8176

대한불교 삼 론 종

종 정 혜 승

승정원장 **향운** 승 정 **혜공. 인봉. 은곡. 진봉. 지운. 지심. 명산. 명재. 해불**

총무원장 **지민**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천장**
총무부원장 **혜관**
총무부장 **근혜** 교무부장 **정현**
재무부장 **혜인** 규정부장 **경월** 사회부장 **도일**

사정원장 **명산** 사정부원장 **혜원**
포교원장 **보명**
문화원장 **지향** 문화부원장 **지학**
수선원장 **지화** 수선부원장 **성덕**
기획원장 **성각**
교육원장 **남륜** 교육부원장 **법지**

중앙신도회장 **김상흔**

서울경기종무원장 **천장** 경남울산종무원장 **해산**
충북종무원장 **지허** 대구경북종무원장 **혜송**
충남종무원장 **성현** 전라남북종무원장 **도암**

중앙종회
종회의원 **해산 혜송 해불 도암 지화 일선 지향 성각 일천 정연 어산 보광 지연 자원 성덕 성현 혜인 근혜 묘현 마애 성화**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773-66 / 전화 043)878-0109 / FAX 043)878-0103

한반도 평화 위한 참나 찾는 정진의 해로

갈등은 화해로 분열은 화합으로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青山綠水毘盧身
〈청산녹수비로신〉이요
海上波濤長廣舌
〈해상파도장광설〉이라.
千聖萬祖今何在
〈천성만조금하재〉오?
杖頭上放毫光
〈주장두상방호광〉이로다.

청산녹수는 비로자나 법신불이요,
바다 위 파도는 부처님의 장광설이라.
일천의 성인과 일만의 조사시여! 지금은 어디에 계심인가?
주장자 머리 위에서 백호 광명을 놓음이로다.

戊戌年(무술년)의 새아침에 솟아오른 태양이 사바세계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비추어 갈등은 화해로, 분열은 화합으로, 이기심은 자비심으로 化(화)하여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종교와 사상, 지역과 인종을 떠나 지구촌의 개인개인 모두가 참나를 밝히는 참선수행으로 삼천리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四海五湖(사해오호)의 處處(처처)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 분쟁과 전쟁이 소멸하여 모든 인류가 화해하고 화합하는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도록 정진합시다.

시간은 迅速(신속)하고 富貴(부귀)와 功名(공명)은 덧없고 三界(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고 인생은 흰 구름처럼 허공중에 두둥실 떠 있다가 홀연히 흔적 없이 사라지고 四大六身(사대육신)은 형상을 이루고 있지만 숨을 들이 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곧바로 來生(내생)입니다.

諸行無常(제행무상)의 이 도리를 알고자 한다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日常生活(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하루에도 천번만번 參究(참구)하는 것이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하는 길이고, 한 生(생)을 허비하지 않고 값지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몰록 화두가 해결되어 마음의 고향에 이르면 땅덩어리가 황금이 되고 바닷물이 감로의 醍醐(제호)가 되어 영원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長安萬里千萬戶(장안만리천만호)에
鼓門處處眞釋迦(고두처처진석가)라
마음의 고향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니 나오는 이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이로다.

생명, 평화 실천의 한해 삼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2018년 무술(戊戌)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뜻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었으며, 우리 종단은 청정가풍의 여망으로 제35대 집행부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새 출발은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각오와 의지를 다지게 합니다. 새벽예불에서 마주하는 한분 한분의 미소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부처님의 자비로움 그대로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신심과 원력을 서로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천사불여일행(天思不如一行)'이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여러 번 다짐하더라도 한 번 몸소 실천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함께 시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미소를 지금부터 실행해 봅시다. 이렇게 가족과 이웃을 부처님과 같이 대하면 조화로운 새 세상이 우리 앞에 환히 열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물질 만능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심과 공심과 원력의 불꽃을 피워내 함께하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간절히 한마음으로 실천할 때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살아납니다. 우리 민족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밝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갑시다.

자리이타와 불이사상 펼치세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대망의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며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종단 역시 종도의 기대 속에 출범한 새 집행부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우려 왔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세상일에 눈을 돌리면 오늘날 지구촌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예컨대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상변화, 그릇된 신념에 따라 도처에서 행해지는 테러와 국지전쟁, 서구자본주의가 불러온 빈부격차와 경제갈등, 남의나라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강대국의 패권주의 등 이러한 문제들은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지구촌의 파멸을 촉진시키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좋은 해를 맞이해도 악을 행하면 나쁜 해가 될 것이며, 비록 나쁜 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 좋은 해가 될 것이거늘, 부지런히 정진하여 선행을 쌓아서 무술년의 소망을 모두 함께 성취하소서!

너와 나의 구별없는 행복 누리길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희망과 축복을 가득 안고 戊戌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고해의 바다에 파도가 멈추고 갈등의 대지에 어둠이 물러나니 온 인류의 가슴에 찬란한 광명의 새아침이 열렸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배우고 바로 실천하며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여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게 합시다.

나를 낮추는 곳에 평등이 있고, 상대를 높이는데에 상생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립과 폭력 그리고 테러와 전쟁은 자만과 이기심의 산물이니, 하심과 공경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인류의 평화도 없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새해는 나부터 실천하는 불자가 되고, 작은 것부터 실행하는 국민이 됩시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 한 사람의 선행과 한 사람의 준법이 밝고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근본입니다.

근본에 충실하면 대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니 새해에는 보다 준엄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새해는 '황금 개의 해'라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올 한 해는 특별히 귀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복짓는 새로운 삶 열자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무술년 새 해는 희망의 나날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전쟁과 테러 등 긴장이 감도는 곳에는 함께하는 정신으로 평화가 공존하기를 서원합니다. 가난하거나 소외된 곳에는 나누는 마음으로 평등세상이 열리기를 서원합니다.

시기와 질투, 반목이 있는 곳에는 서로가 배려하고 공경하며 화합하기를 서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은 아픈 이들이 없고 상처 받는 이들이 없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일은 인연으로 일어납니다. 스스로 짓고 받는다는 말입니다.

새해부터는 주변과 이웃, 환경을 탓하지 말고 수원(讐怨)은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회하고 실천하면서 희망의 복전을 일구어야 하겠습니다.

촛불로 세간을 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자성(自性)을 밝혀 지혜와 복덕이 갖춰진 진리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의 무진서원으로 인류가 화합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며 국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될 뿐만 아니라 도덕윤리가 바로서서 질서를 회복해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를 서원합니다.

걸림없는 삶 살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닭의 해가 저물고 개의 해가 밝아 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각각의 해마다 동물들을 상징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 전통이 유지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는 사람들과 가장 친숙한 동물입니다. 주인을 잘 따르고, 집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무술년 한해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계율을 잘 지키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권면합니다.

욕심은 세상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요, 탐욕은 나를 쓰러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지 안부리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마음에 걸림이 있는지 걸림이 없는지 마음을 살펴보면 됩니다.

하려는 일에 왠지 마음이 걸린다면 안하면 됩니다. 마음이 당당하다면 하면 됩니다. 그 당당한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거안사위(居安思危) 마음으로 단결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무술 새해 우렁찬 경계의 소리 천지가 동하니, 패러다임의 변화로 희망 넘치는 행복나라 건설하세!

인간과 오랫동안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함께 해온 개(犬, 狗)는 주인에 대한 충성과 의리의 동물(忠仁獸)로 인식됐으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용 영수(靈獸)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불가(佛家)에서 바라보는 개는 어떠한가?

〈무문관〉 제1칙 화두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없다."

'조주무자(趙州無子, 趙州狗子)'로 불리는 이 '무자' 화두의 주인공이 바로 개입니다. 또한 불가에서 〈사분율〉 42권에 고기를 금기시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구화산에 삽살개 '선청'을 타고 있는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의 지장보살상은 추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수행자들은 한순간도 헛되이 하거나 마구니 장난에 끌려 다니지 말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쉼 없이 정진하고, 국민 모두는 거안사위(居安思危)하는 마음으로 단결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서, 이를 계기로 새로운 희망의 끈을 이어간다면, 지구촌은 안온하고 남북은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대화의 장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국민 모두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리심 내니, 생사고 여의네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佛放光明現神通(불방광명 현신통)하니
歡喜衆生發菩提(환희중생 발보리)하네
佛垂慈悲說妙法(불수자비 설묘법)하니
開悟衆生度生死(개오중생 도생사)하네

부처님이 빛을 내어 신통의 모습을 보이니
기쁨에 찬 중생들이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네.
부처님이 자비를 드리워서 묘법을 설하니
깨달음을 얻은 중생들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네.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충만하여
중생들의 어둠을 몰아내고
부처님의 자비감로가 내리어서
중생들의 갈망을 채워주네.

부처님 지혜로 중생제도를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정유년이 지나고 무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가 가득하시고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로 어려워진 이 시대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슬기롭게 헤쳐 나갈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또한 온 지구촌이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며 빈곤과 가난, 질병과 고통에서 해탈하는 새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무술년 새해는 황금개의 해입니다. 개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 중 하나로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며 마음을 줍니다. 또한 책임감이 강하고 한 번 마음을 주면 쉽게 돌아서지 않는 것 또한 개의 특성입니다.

이렇듯 올해가 황금개의 해인 만큼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어우려져 행복이 넘쳐나며,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북한 핵문제를 슬기롭게 해쳐나갈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에게 간절히 서원해 봅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여 나 자신을 정화하고 인류의 행복을 위하는 대승적인 참된 불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함께 어울려 축하합시다

회정 정사
진각종 총인



세간 모든 일에는 가고 오는 거래(去來)가 있고 더하고 덜한 차별(差別)과 선하고 악한 분별(分別)이 있으나 진리(眞理)의 세계(世界)에서는 모두가 다 한 가지이니 어찌 시비(是非)하고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삼세(三世)를 두루 하사 시방세계(十方世界)를 밝혀온 대일(大日)의 광명(光明)이 무술년(戊戌年) 새 날을 여니 우리 함께 어울려 이 날을 축하(祝賀)하면서 기쁘게 맞이합시다.

"불법(佛法)은 체(體)요, 세간법(世間法)은 그림자"며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남의 눈 티끌은 잘도 보면서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큰 거울에 만물(萬物)이 걸림 없이 비치듯이 대원경지(大圓鏡智)의 넓고 크고 둥근 마음으로 자성(自性)을 밝혀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회하면서 진각(眞覺)을 성취해야 하겠습니다.

정신개혁과 정법 수호운동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한 해를 돌아보면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위한 불사들이 너무 미흡하고 불교의 위상과 포교를 위해 얼마나 땀을 렸는가 되돌아보면 볼수록 부끄럽기만 합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는 단 한 번의 행이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언제나 외면만을 하고서는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불제자입니다"라고 어떻게 부끄러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와 승가의 정신 개혁에서부터 불교 전반에 걸친 정법 수호운동이 시작되는 원년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인의 목적은 청정심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존경하는 전 세계 불자 여러분. 새해는 청정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살면 행복하고 비부처님 말씀으로 살면 불행합니다. 우주가 성, 주, 괴, 공 하는 것도 평화공존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청정한데, 본인이 하는 일은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백년을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천년을 살 것처럼 걱정합니다. 행복은 청정심에 있습니다. 남과 북은 화합하고 청정하니 태평성대라 평화로운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서남북 화합 국난극복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산 닭이 때 없이 울더니만 인왕산 호랑이 놀라 뛰어 지축이 흔들리네. 원한은 원한으로 풀지 못하니 삼간 초옥 태울까 두렵도다. 중생의 윤회는 애욕의 근원이라 모두가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어 결과를 보게 되고 모든 것들은 내 곁으로부터 살아질 곳을 행하여 변해져 가고 있으니 우리 모두 무상의 도리를 철저히 깨달아 삼독심을 버리고 선업을 지어 동서남북 화합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난을 면하리로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지혜덕상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부처님 지혜덕상 미묘히 넓고 크다.
우주 안 온갖 사물 낱낱이 통달하고
아득히 멀고 먼 옛날, 미래세(未來世)도 아신다.
법화경에 부처님 말씀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모든 중생이 안락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불국토 우리가 만들자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불자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부처님 품안에서 더욱 발전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납시다. 세상사의 무명을 걷어내는 방법은 동체대비와 대자대비의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여 바른 행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나누고 베푸는 공덕을 쌓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불국토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나부터 마음 모아 일심으로 정진합시다.

태평가 부르는 나날 되도록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風泉警寢聲喧枕 풍천경침성훤침
夜憑晴榻洗塵懷 야빙청탑세진회
野色蒼茫晴入戶 야색창망청입호
江光虛暎晩連宵 강광허영만연소

바람결 샘물 소리는 잠을 깨우면 밤에 선탑 기대어 티끌 마음 씻네. 창망한 들판은 맑게 문으로 들어오고 허공 같은 물빛은 저녁하늘과 하나임을.
희망찬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불자님들의 각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넘쳐나시길 축원 드립니다.

우린 얼마나 자비로웠나

(사)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과연 불교가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자비의 실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이제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동체대비를 구현해야 한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우리 종교지도자가 자리이타의 근본정신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위대함도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합시다.

영원한 행복이 불교 목적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새해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불가에서 발심한 마음이 곧 깨달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나로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중이 다 함께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요 실천인 것입니다. 모두를 부처님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베푸는 마음을 행한다면 온 세상이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실천·생활하는 불자 되길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심즉제불(心卽諸佛) 마음이 부처입니다. '자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깨우치고 실천으로 보살행을 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불법과 마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구분하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생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행으로 불국토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법 정진해 불교 살리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원



世間事中 第一功德
上求菩提 下化衆生
세상사 중 모든 일 가운데 제일 공덕이 되는 것은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 제도함일세.
오늘날 불교가 후퇴한 것은 우리 모든 불자가 위의 가르침을 소홀히 한 까닭입니다. 새해에는 심기일전하여 더욱더 정법으로 정진하여 불교를 되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합시다.

팔정도 행하는 한 해로

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그저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바른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새해가 온다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보리심을 일으켜 인과의 이치를 깨달아 진정으로 나를 돌아보고 자기성찰과 함께 팔정도를 행하는 진실한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무술년 새해, 물러서지 않는 용맹으로 파사현정의 기치를 마음에 새겨 정진 또 정진합시다.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성철



천지만물이 모두 인과의 이치에 있고, 자리에 앉으면 일어설 것이며 섰으면 누울 것이고 누우면 반드시 일어설 것이며 이것이 곧 인과의 법칙이다. 법이란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버려야 참 법이며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멸하지 않을 것이니 생멸이 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새해 새날을 우리도 모두 부처님의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자비의 촛불을 밝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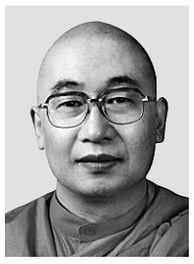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새해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무량광명이 함께 하기를 발원합니다. 불법의 세계는 중생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넓고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새해에는 나만을 위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남을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자비심은 나와 남이 하나라는 부처님의 진리를 행하는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촛불을 영원히 밝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세계승가회 회장 수완나



붓다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 연기를 본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내가 지어 내가 받는 다는 자작자수(自作自受)의 도리를 말함입니다. 새해에는 탐진치의 혼탁을 여의고, 만족심과 자비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올바른 가르침의 실천은 신심의 크기와 정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위없는 평화를 얻게 됨을 기억합시다.

모든 생명 행복한 무술년을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삼라만상이 한 법성체로 남북을 비롯 천지가 한 뿌리요. 배달의 민족은 물론 만 생명이 비로불 전신체로 한 몸인데 어찌 차별과 다툼이 있으랴 모두를 부처님으로 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남북을 비롯해 온 세상이 평화롭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행복한 무술년 새해가 되도록 합시다.

남북 평화통일 성취 기원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남정



戊戌年 새해에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두루하사 국운융창과 민족 숙원인 남북 평화통일이 속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無汗不成 有志竟成 땀을 흘리지 않고는 성공 할 수 없고, 뜻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 露積成海 心外無法
한 방울의 이슬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며, 자신의 마음 밖에 법이 없다.

죽음은 본래 허망한 것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회장 무산



우리가 생사가 없는 확고한 금강 같은 지혜를 터득할 때 진정한 행복추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에는 태어남도 없고 또한 본래 죽음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술년 새해를 맞아 실상은 영원하고 나고 죽음은 본래 허망한 것이라는 대명제를 깨쳐 본무생사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부처님 의지하며 정진하자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새해 아침에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청정한 기운으로 서로의 밝음을 나눕시다. 한 생각 탐욕심이 끝없는 욕망을 만들고, 한 생각 화내는 마음이 악을 만듭니다. 새해에는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서로 다투지 말고, 양보하면서 살면 어떠한 시비도 없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의지하며 올곧게 정진해 나아갑시다.

행복 누리는 안정된 사회 기원

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온 국민과 사부대중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나라안팎이 어수선한 시시비비 모두 다 소멸되어 새 희망과 즐거움을 느끼는 보람찬 일들이 국가와 사회에 가득하여 모든 국민들이 자안애어(慈眼愛語)의 인자한 얼굴과 눈빛, 사랑스러운 말로 행복을 누리는 안정된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세존응화3천년 2018년 1월 1일

마음 밖 따로 구할 것 없어라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새해의 대일(大日)광명(光明)이 산하대지에 법계 중생들을 향하였습니다. 무술년(戊戌年)에도 한량없이 찾아드는 망념 속에 사로잡혀 무시습숙(無始習熟)한 숙업의 선율은 여지없이 본래 진면목으로 수시로 흔들어 놓는데 무엇을 따로 구하겠는가? 이 마음밖에 챙김이 구할 것이 없는데.

자리이타와 정토세상

(사)대한불교원융종 종정 성관



불신충만어법계(佛身充滿於法界)
보현일체중생전(普現一切衆生前)
수연부감미부주(隨緣赴感靡不周)
이항처차보리좌(而恒處此菩提座)
"부처님 몸이 온 법계에 가득하니, 일체 중생 앞에 두루 나투시었도다. 인연 따라 가지 않은 데 없지만 언제나 보리좌에 항상 계신다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화엄경 게송 한 구절을 자비로운 시절인연이 도래한 무술년 새해 첫날 염송해 봅니다.

지난날 묻어두고 새 각오로

(재)한국불교여래종 부종정 법수



무술년 새해를 맞아 힘차게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며 사회의 모든 갈등과 대립, 경쟁심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이 밝으면 극락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지옥입니다. 자기를 찾으면 그것이 참나요, 곧 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심기일전 지난 일은 묻어두고 새로운 각오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불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가림막 제거해야 정법 보인다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보고 듣는 것이 허환의 티끌이요. 삼계 또한 허공의 꽃이라. 친애하는 불자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불자여러분! 무릇 12지지 중에 개라는 동물은 주인에게 충직하고 의리를 배반하지 않으며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일관성 있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행복과 보람이 성취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성불합시다!

화합으로 민족 번영을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불기2562(2018)년을 맞이하여 온 국민과 더불어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모든 인류에 축복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나라에 안정에 힘쓰고 안정을 바탕으로 번영을 꾀하여야 하고 민족의 번영만이 평화통일의 길임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새해에는 불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선업 지으면 천년의 보배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新春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누가 오라 손짓하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왔습니다. 달마조사께서 동토에 온 것은 오로지 한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요,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바로 가르쳐 주려 위함입니다. 살아 있을 때 선업을 짓고 좋은 업을 닦는 것은 천년의 보배요, 또한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먼지와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새해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찾는데 전력투구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하나이다.

아미타불 불성은 용광로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블



토혈하는, 태양의 혓바닥으로, 닭벼슬이 벌것에 녹아내려 털 빠진, 삽살개 꽁지로, 여명을 짖는다. 그대, 속마음 먼지를 보았는가, 보이는가! 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불성은 용광로 입니다. 이곳에 모든 것을 넣어 버리면 모두 녹아버립니다. 다시 나올 때는 새로운 물건으로 나옵니다. 지난일은 묻어버리고 새로운 밝은 각오로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세요.

보이지 않아도 복은 쌓인다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一日行善이면 福雖未至하나 禍自遠矣요. 一日行惡이면 禍雖未至하나 福自遠矣니라. 行善之人은 如春園之草하여 不見基長이라도 日有所增하고 行惡之人은 如刀之石하여 不見基損이라도 日有所虧니라.

하루 동안 착한 일을 한다고 바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나 악한 재앙은 멀어진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바로 불행이 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봄의 풀과 같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복은 날마다 쌓여간다.

원력 실천해야 가피 따른다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산에서 흐르는 물이 강물이 되듯이 하루하루의 노력들이 쌓여 놀라운 성과물을 이루게 됩니다. 불자님들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처님께 가피를 내려 달라고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원을 세워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할일을 최선을 다해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참된 불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찾으면 보이는 것이 길입니다. 새해는 불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식주(衣食住)와 의식(意識)

(사)대한불교선교종 종정 법운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깨침이 중요합니다. 쉬운 말은 아니지요. 기계문명을 만들어 놓고 경쟁과 스트레스만 받는 고도성장의 문명에는 어쩔 수 없다지만 깨달아 보지 못하면 남과 비교하며 갈등하면서 소가지(스트레스) 피우면서 살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된 견해 얽매임을 타파하고 올바른 도리를 나타내는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배려하고 이타행(利他行)으로 불교포교에 매진(邁進)하여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불국토를 이룹시다.

마음은 스스로 깨치는 것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산



자기의 한마음을 지키는 것이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고, 부처님만 생각하면 생사를 면하지 못하는 법이다. 한마음 밝게 가지면 세계 일화가 만발하여 정토의 길이 열리고 지구촌 중생이 너와 내가 차별 없이 하나 되는 해탈의 평화세계가 구현되는 것이다. 제법은 모두 인연소생이며 법에 따라서 나고 법에 따라서 가며 그렇기 때문에 무자성(無自性)이요, 무거래요, 결국 공(空)인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 받들어 실천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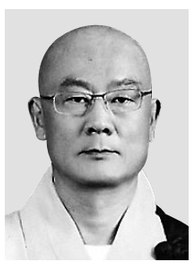


새로운 한 해를 맞아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는 바가 원만 성취되기를 서원합니다.

이 세계는 중중제망 연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가짐 하나가 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를 밝히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벽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해 간다면 반드시 행복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루지 못할 평화 없다

(사)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새해 첫 아침은 희망과 평화, 행복의 빛입니다. 2018년 무술년 한해는 일체를 공경하는 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올해 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패럴림픽 등 국가적인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평화와 평등이 바로 올림픽 정신이기도 합니다. 서로 한 발짝 다가가 손을 잡으면 이루지 못할 행복, 이루지 못할 평화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평화와 평등을 심는 불자 되기를 서원하고 실천하는 무술년 되기를 기원합니다.

베풀고 또 베풀어라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정광



올해에는 베풂의 해로 지냅시다. 샘물은 퍼낼수록 맑고 깨끗해지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베풀고, 또 베푼다면 어느새 우리 마음은 맑고 깨끗해져 있을 것입니다. 나만을 내세우는 아상을 없앤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불의 첫 걸음을 딛는 것입니다. 새해 자비로운 마음 많이 내셔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파



무술년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태양은 우리의 마음이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인생사 누구도 올 때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또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진리를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밝혀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불자님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마음 일어나면 만물 일어난다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심생종종법생(心生種種法生)
심멸종종법멸(心滅種種法滅)
약불전법도중생(若不傳法度衆生)
필경무능보은자(畢竟無能報恩者)

마음이 일어나면 만물이 일어나고, 마음이 살아지면 만물이 살아진다. 만약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은혜가 없는 것이다. 무술년에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옵니다.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세상은 항상 시시비비로 들끓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해득실의 속된 물거품이며 풍진속의 사바세계에서 고쳐지지 않는 병폐입니다. 바로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곳에 진리의 햇빛이 들어서 천지가 광명의 세계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자성(自性)은 본래 청정하고 완전합니다. 항상 수행하는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여 옳고 그름에 끄달리지 않는다면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속 진실한 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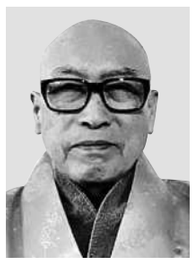
대한불교대각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만청



뜨겁게 타오르던 촛불의 열기 아직도 남아서 추위에 떨고 있는 마음을 감싸고 행복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불자님들의 마음이 항상 같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바세계 중생들은 항상 미혹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속에 진실한 행이 같이 합니다. 새해에는 마음의 등불을 밝혀 행복한 세상을 만듭시다.

태양 같은 열정으로 새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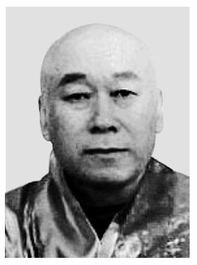
법안조계종 종정 오봉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황금빛 붉은 해가 동녘 하늘을 물들이고 천지를 개벽할 듯 웃음소리 크게 울리니 만상이 깨어나 한없는 기쁨을 맛봅니다. 태양처럼 빛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한 해를 맞이합시다. 영원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온 가정에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下心만을 탐구하는 한 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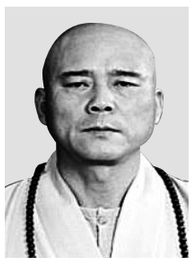
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새해 불자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불자들의 새해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두어야 할까요? 감히 하심(下心)이라 말씀드립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은 하심(下心)입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남을 존중할 줄 알며, 존중할 줄 아는 이는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이 하심(下心)만을 탐구하고 행하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더 큰 발전을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불기2562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부처님의 가피력과 지혜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온 인류의 축제인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불자 모두가 희망차고 행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민의를 세워 새 지도자를 선출한 변혁의 시대에 더욱 큰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에 더욱 관심과 격려를 갖고 새해에는 소원하는 일들이 원만 성취되기를 기원하합니다.

부처님 참 가르침 실천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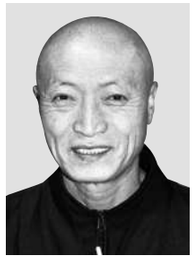
대한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성종



세상이 올바르고 모든 사람이 평온함을 느낄 때는 우리는 정토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속에서는 이를 법(法)이 정당하여 모든 이가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고 모두가 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이제 다시 우리가 실천해야 할 화두입니다.

주위 밝혀 불국토 함께 이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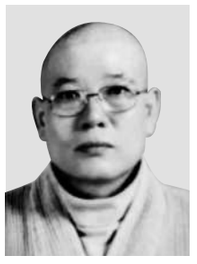
(재)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묵은해는 무명과 함께 물러나고 희망의 새해가 밝아 옵니다. 탐욕과 무명의 허망은 꿈속이니 모두가 법성체요 모든 중생이 부처입니다. 바른 지혜로 화합하고 단결한다면 새해에도 밝은 희망만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 믿고 의지하여 나 자신을 밝히고 주위를 밝혀 밝은 불국토를 이루는 것이 서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착 버려야 법성 만난다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보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나란 끝없는 번뇌와 시비다툼으로 오염된 혼탁한 내가 아니고, 태양처럼 밝고 영원한 법성이 진정한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집착으로 인한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성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불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밝혀지기를 서원 드립니다.

자성 밝혀 상구보리 하화중생

(사)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회장 각성



불교의 진리는 자신에 의한 성불이요, 오직 인간의 내재적 자아의 각성에 의한 해탈과 열반이다. 열반이란 번뇌와 집착을 끊음이다. 다른 사람이 번뇌를 끊어주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나 자신이 번뇌를 끊어주는 것이다. 보살은 바로 이것을 알고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 새해부터는 스스로의 자성을 밝혀 상구보리 하화중생 정진하자.

어둠 밝힐 빛은 마음서 비롯돼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정 연화



사슴을 쫓는 자 큰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쫓는 자 사람을 보지 못하노니 탐욕이 극에 이르면 곧 밝음이 어두워지니라.

큰 상인은 상품을 과장하게 진열치 않으며 어진 사람은 능함이 많아도 그 재주를 함부로 나타내지 않는다. 고로 사람은 고요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곧 평화를 얻는 지름길이니라.

새해새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평안하게 하리라.

성불자주의 보살행을

종교세계신문사 발행인 윤기순



우리 도반들은 "연꽃을 묻기 전에 연꽃이 피고 연잎을 묻기 전에 연잎이 되자" 연꽃이란 건강한 정신이요 건강한 육체가 아닐까? 모든 일체법은 인연소생이며, 법에 따라서 나고 법에 따라서 살아지는 이치에 따라서 우리는 새해 무자성의 도리를 구현합시다. 그러하면 무자성이니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어 내가 없고 인연에 따라 오가는 성불자주의 보살행을 수행처로 삼아 정진합시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佛紀 2562年 戊戌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A11

올바른 가르침의 베풂도 행복이고 참모임의 화합도 행복이고 화합한 님들의 수행도 행복이다. (법구경)

(사)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인 운남**
종회의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연수원장 **가원 성각**　교육원장 **법기 무여**
포교원장 **법천 덕일**　기획실장 **법장 원해**　고시원장 **벽산 혜암**

서울종무원장 **심우**　경기동부종무원장 **혜암**　경기서부종무원장 **경심**
강원종무원장 **영명**　충청종무원장 **혜능**　전라종무원장 **덕운**
군산종무원장 **덕일**　경북종무원장 **탄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일봉**

총무부장 **진공**　사회부장 **진성**　호법부장 **진각**　교육부장 **진산**
재무부장 **제봉**　연화부장 **정혜**　문화부장 **공덕**　교무부장 **진문**

■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 총무원 : 경남 창원시 회원구 양덕1동 산 30-4번지 천연암 / 전화 055)253-1074

(재) 한국불교여래종

부 종 정　법 수　대 종 사

원 로 원 장 **능엄**　종 회 의 장 **월명**　총무원장 **명안**

포교부원장 **도혜**　호법부원장 **성현**
총무부장 **석혜안**　재무부장 **혜광**　교육부장 **법혜**
복지부장 **이순희**　사회부장 **박창석**

인왕문도회관 **성현**　비 구 니 회 장 **묘선**
문도회총무 **묘각**　여래실상연구원장 **김용표**(동국대명예교수)
범 패 단 장 **일공**　여래구도봉사회 **혜안**

■ 총무원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1길 24(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앞산) 금강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사) 대한불교 금강종

종　　정 **무학당 송천**
총무원장 **법산당 영봉**

종정 예경실장 **청명**　총무원장 사서실장 **정휴**
승정원장 **무상**　원로원장 **월서**

교 육 원 장 **정산**　포 교 원 장 **덕산**　감 찰 원 장 **정대**
고 시 원 장 **혜신**　참 선 원 장 **법일**　복 지 원 장 **법영**
문 화 원 장 **덕일**　비구니원장 **지명**　홍 법 원 장 **서암**
국제교류원장 **정무**　사 정 원 장 **혜광**　보 건 원 장 **정일**
국제 참선원장 **혜일**　비구니부원장 **선각. 묘향**
중앙종회의장 **일타**　중앙종회부의장 **현우**　중앙종회사무총장 **정견**
총 무 부 장 **도공**　사 회 부 장 **정우**　포 교 부 장 **해성**
의 전 부 장 **현우**　종 회 의 원 **민진**　종 회 의 원 **진용**

서울특별시교구원장 **반야지(서원암)**　대전광역시교구원장 **정　무(감로사)**
대구,경북교구원장 **정　일(광원사)**　울산 · 강원교구원장 **덕　일(도성암)**
충 청 도 교 구 원 장 **정　견(백련암)**　경상남도교구원장 **덕　산(광천사)**
전 라 북 도 교 구 원 장 **월　서(삼불사)**　전 라 남 도 교 구 원 장 **혜　신(남해사)**

■ 총본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99-74 (일성사)　전 화 : 042)935-2279
■ 총무원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253번길 75, 101동 1002로(내동, 탑스빌A)일성사포교원
전　화 : 042)524-2149 / 팩스 : 042)526-2149
HP 010-9363-1233(사무장). 010-3550-515(총무원장 직통)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

종　정 **범해 대화**　총무원장 **김만혁**　종회의장 **김대운**
부종정 **도관 지신**　사　서 **해　인**　종회부의장 **구원각**
사　서 **경　산**　**이수혜**

원 로 원

원로원장 **박대월**
원로의원 **김대원 이관곤 이대봉 김대광 김지선**

각 원 장

교육원장 **박태허**
연수원장 **유성준**
감찰원장 **김서호**
고시원장 **강만공**
복지원장 **심지연**
포교원장 **황현문**
염불원장 **박해수**
문화원장 **허성각**
의전원장 **이두산**

총 무 원

총무부장 **정법성**
교무부장 **안자관**
재무부장 **김성문**
감찰부장 **이지호**
사회부장 **강정오**
포교부장 **김용담**
복지부장 **이혜원**
조직부장 **채원광**

각교구원장

강원교구원장 **지진묘**
경북교구원장 **이혜형**
대전종무원장 **최지천**
충북종무원장 **박대월**

종회의원

정법성. 이심공. 이도광. 김해인. 이성광. 엄만일.
김광덕. 김성인. 김성문. 유관공. 강정오. 안가관.
김용담. 이혜원. 이지호. 채원광. 박부용. 한지효.
배지명. 박해동. 신대광. 김한명화. 신청련행. 권진광명

■ 총무원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 /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 봉**

전 종도 일동

입종을 환영합니다

【구비 서류】
- 사찰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반명함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1매 (사찰등록 하실분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분은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필히사본첨부
- 도첩은 본종단에서 수계를 받은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입종후 승려증 (법사 포교)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간부 추대장 발급

■ 총본산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연봉사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사) 대한불교승가종

종 정 월인 습득

원로원장 **혜공**　재무원장 **무착**　종회의장 **혜륜**
포교원장 **도안**　총무원장 **법수**　총무부장 **도일**

원로위원 **법일**
범음범패 교육원장 **법수**　승가종총본산 승가사 주지 **선견**
승가종 법사대학장 **원해**　월인문도회 문장 **법종**
비 구 니 범 음 교 육 원 장 **법관**

서울종무원장 **정행**　부산종무원장 **봉선**　대구경북종무원장 **지운**
대전종무원장 **법지**　울산종무원장 **도성**　경남종무원장 **월곡**
강원종무원장 **부르나**　전남종무원장 **선궁**

장병위문 수계법회(2016년 4월16일 육군훈련소 합동수계법회) **동참 스님**

정광 선웅 도광 묘전 묘경 법등 법성 법관 법전 무구 선호 선봉
도성 도안 효득 선경 무찰 불전 선오 자용 지명 보우 법지 법종

■ 종정 주석사찰 서래암 : 부산 금정구 안뜰로7번길 43-1
전화 051)552-8554. 556-0278. 팩스 051)556-8551
■ 총본산 승가사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 전화 055)754-1942



2017년 군승의 날 법회에서 군승법사들의 서원 모습

청년포교 산실 '군포교', 새로운 飛翔 알리다

[프롤로그]

한국불교 속 군포교 군승파송 50년의 의미

불기 2562년, 2018년은 군승(軍僧) 파송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68년 11월30일 군승이 파송되고 반세기가 흘렀다. 돌이켜보면 군불교의 역사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구려(高句麗)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불교는 신라(新羅)로 전해져 화랑(花郞)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정신은 고려(高麗)시대의 국난극복, 조선(朝鮮)시대의 승군(僧軍)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함께 해 왔다. 이렇게 한국불교 역사 속에서 군불교 역사는 50년만으로 한정지을 수는 없다. 훨씬 더 오래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공과(功過)가 있었지만 불자들이 처음에 발원했던 것처럼 수많은 군불자들과 스님, 신도의 성원으로 군불교는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2005년에는 종단으로부터 군종특별교구가 설치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군포교의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이제 우리 군불교는 150여 명의 군승법사, 400여 개의 군법당, 15만여 명의 신도를 보유한 한국불교의 명실상부한 미래가 되었다. 연간 8만 여명 수계, 2백만 명의 법회 참여인원 등 양적으로는 어느 사찰이나 교구본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일요법회의 정착이나 한글법요집 사용 등 오늘날 한국불교의 법회의식의 전범(典範)을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전 스님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

청년의 시기에 군복무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군은 젊은 세대, 미래세대, 신세대 포교의 황금어장이라 불린다. 군포교가 중요한 이유는 불교의 미래가 인재양성에 달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청년 불자의 양성은 불교의 백년대계를 이을 중차대한 일이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거대해 보이는 군불교의 현황이자 불자들이지만 제대 이후의 신행, 불자로서의 정체성 유지문제는 큰 숙제이다. 충분한 군승요원의 확보, 군 포교 재원의 확대, 다양한 포교프로그램 마련 등 다른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과 군종교구, 군승법사, 그리고 군불자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군종교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군승 파송 50년이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다가 올 미래의 모습이라는 점이다. 공은 공대로, 허물은 허물대로 편견 없이 평가해야 한다. 지난 50년을 객관적이면서 냉정하게 성찰할 때 비로소 앞으로 가야 할 50년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군불교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커다란 성장을 위한 새로운 준비 군승 파송 50년의 의미를 거기서 찾고자 한다.



2005년 조계종 군중특별교구 현판식



2001년 논산훈련소 수계장병 연비 장면



1988년 군종법사단 창립 20주년 행사



1968년 초대 군승법사 파송

황무지 군포교에 불심 씨앗 심다

[프롤로그]

50여 년 전 한국불교의 숙원은 두가지였다. 물론 종단 내적으로는 두가지가 아닌 보다 많은 어려운 과제가 있었겠지만 그 무렵 조계종단의 3대사업으로는 도제양성, 포교, 역경사업이었다. 당시 조계종단의 이 3대사업은 대단히 긴박하고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최선의 사업이었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불교계에는 현대적 교육을 받은 인재가 전무한 상태였고, 그러니 포교도 쉽지 않고 역경도 어려웠다.

1968년에 와서 불교의 군법사를 파송하게 되었으니 단순히 몇 명의 군법사가 탄생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선 불교의 주가적 위상을 확보하는 뜻깊은 일이었다.

그러나 파송 초기의 군법사의 군종활동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은 크게 다섯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다. 조선시대의 억불에 의한 불교 침체와 승려의 신분의 하대에 의한 사회적 위상과 일제를 거쳐 해방 이후 소위 비구 · 대처의 분쟁은 국민적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불교가 마치 미신 집단인 것 같은 잘못된 이해도 군법사의 군종활동에 대해서도, 불교가 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둘째는 불교도의 무지와 은둔성이었다. 당시 장병 중에는 불교를 신앙한다고 선뜻 표현하는 군인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젊은이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 초기 군법사에게는 군에서 불교활동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의식에 관한 것으로, 군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사항에 대한 불교의식이 마련되지 않았다.

마지막은 열악한 지원의 문제다. 군종업무는 크게 두가지 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군 정신권력 강화라는 군 본연의 업무이고, 둘째가 종교업무로서, 종교활동은 군업무 이외의 시간, 즉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각자 종교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종교활동에 필요한 지원은 해당 교단으로부터 받는다. 그러나 초기 법사에게는 법당도 없고 장병들에게 위로를 줄만한 재정적 여건이 절대 부족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에서도 각군에 군감이 배출되고 또 국방부에 군종실장이 임명되는가 하면, 부대마다 법당이 세워지고 100여 명이 넘는 법사가 활동하게 되었으니, 50명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것이다. 또한 종단 내에 군종교구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군종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 그간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전이 있었음을 실감한다.



권기종 초대 파송 군승법사

무술년 한 해,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조계사 어린이집 건립 불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 /



군불자 감소, 신심전력 약화 고리 끊자

[군승파송 50년, 군포교 과제는?]

1968년 11월30일 5명의 불교 군종장교가 최초로 임관했다. 군승(軍僧) 제도의 역사적인 출발이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군종제도는 1951년 2월 육군본부 인사국 내 군승과가 설치된 것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군승(軍僧)과임에도 이 해 군종 1기에는 군승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초대 군승과장도 목사가 맡는 등 군대 내 전법과 포교는 기독교에만 허락된 분야였다. 불교계의 노력 끝에 이로부터 17년의 시간이 지난 군종 23기가 되어서야 드디어 군승 1기 5명이 탄생했다. 1968년 8월 불교 군승요원 19명의 증편이 결정된 것이다. 이후 군승들을 비롯한 군종특별교구를 정점으로 군포교는 발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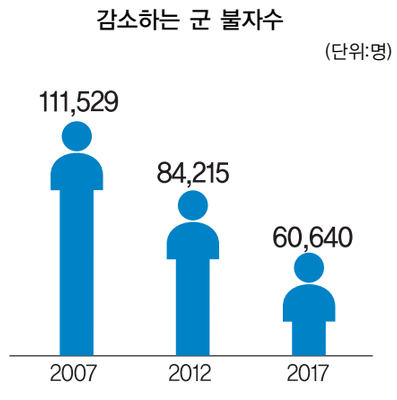
1969년 육군중앙법당이 건립된 이후 현재 400여 군법당이 건립됐으며, 육해공군에 140여 군승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군승파송 50년은 불교 군포교의 역사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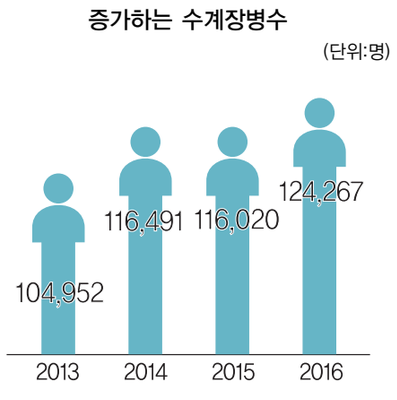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군 내 종교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군 내 종교인구는 2007년 39만 6000여명 수준에서 2017년 23만 4200명 수준으로 16만여명이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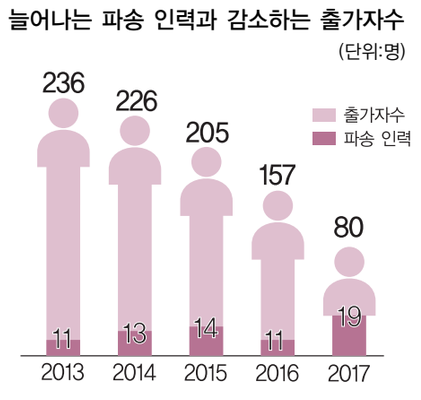
다만 불교계는 군포교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다. 2007년 군내 종교인구의 28.1%인 11만 1500여 명이었던 군 내 불교신자는 2012년 25.8%인 8만 40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7년 현재 6만 여명인 군불자는 군 내 종교인구의 25.9%로 5년 사이 소폭 회복됐지만 전체 종교인구 감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학생군사중앙학교서 활동하는 군승법사의 모습 〈자료사진〉







출가자 감소 영향, 군승 장려로 돌파

군장병을 비롯해 군장성 등 군불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군승법사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승파송 50년을 맞은 2018년 군승법사는 총 137명이 활동하고 있다. 육군 93명, 해군 20명, 공군 24명 등 전국 각지의 법당에서 활발한 전법을 펼치고 있다.

군승법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길고 까다롭다. 먼저 군종장교로 임관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법에 따라 시험을 통과한 후 일정한 입대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군승법사로 임관하기 위해서는 2년간의 출가생활을 해야 하고, 후보생 기간동안 매년 하계, 동계에 소집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지적돼 온 자질 향상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선된 상태다. 먼저 예비군승 관리가 강화돼 매년 6월 예비군승 선발과 12월 임관대상자 선발 등으로 체계화됐다. 군승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어 종립대학 재학생 학기 중 연 4회 교육이 실시되며 현역 군승법사 연수 및 포살 교육도 매년 실시되고 있다. 동안거 수행, 수련회, 군승포살 등이 실시되는 등 '수행' 덕목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학생군사학교 입대 전 교육이 3주간 진행되는데 의식과 설법, 상담과 군이해 교육 등 집중교육이 실시된다.

문제는 이러한 우수 군승들이 군포교 현장에서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려책이 부족하는데 있다.

군승 역대 수상자 현황을 보면 2011년 13명, 2012년 15명 등 10여명이 넘게 포상자가 나왔지만, 2013년 7명, 2014 · 2015 · 2016년 6명, 2017년 5명 등 매년 포상자가 줄고 있다.

포교분야의 최고 권위상으로 꼽히는 포교대상 수상자 현황에서도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2007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수상자가 배출됐지만 최근에는 2016년 2명 외 배출되지 않았다.

'스님' 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된 만큼 전역 후 출가본사로 돌아갔을 때 포교경력이 활용되는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2008년 예비역 군승법사들의 의견을 받아 조계종 총무원과 경력 인정에 대해 논의했다. 총무원 총무부에 따르면 현재 법계고시 등의 불이익은 없는 상태지만 특별한 고과 또한 없는 상태다.

한 현역 군승법사는 "군승법사들은 사실상 군포교의 중심"이라며 "군승법사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승파송은 스님으로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만큼 불교계의 출가자 감소 영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군승 현황을 보면 국방부에서 필요로 하는 군승법사는 11명, 14명, 14명, 11명, 19명으로 매년 10여명이 임관하고 있다.

2010년 군승 독신 예외조항이 삭제된 이후 종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받았던 군종장교사관후보생(군승후보생)은 2~4명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대졸 스님을 대상으로 받는 예비군승요원이 2013년 4명에서 2014년 8명, 2015년 5명, 2016년 9명, 2017년 15명으로 대폭 증가해 수급난은 해소된 상태다. 하지만 예비요원은 2018년 20명, 2019년 15명 이후 2020년 5명 등으로 지속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사미와 사미니 수계를 준비 중인 행자는 약 80명 정도로 실제 수계 인원은 60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비구 스님은 30여 명 수준으로 35세 이하인 군승요원 대상자는 더욱 줄어든다.

군장병, 군종병 신심 중심 세우다

군장병 포교는 군내 군불자 감소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장병 수계는 군종특별교구를 비롯해 군포교에서 집중 전개하고 있는 분야다. 최근 5년간 각급부대 수계 인원을 보면 2013년 10만 5000여 명에서 2014년과 2015년 11만 6000여 명, 2016년 12만 4200여명, 2017년 11월 30일까지 10만 3000여 명 등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법당이 2012년 완공된 이후 매년 6만여 명의 장병이 이곳에서 불자로서 원력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력을 일선부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여정 강건욱 법사는 "그동안의 먹거리 포교 외에도 군장병들이 군법당에 와 신심을 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포교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올해부터 일선 부대에 '평화의초' 보급을 통해 군장병 신심 증장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같은 장병으로서 군장병 신행활동의 중심역할을 맡는 불교군종병 충원도 중요한 과제다. 2018년부터는 그동안 일선부대에서도 선발됐던 군종병이 병무청 특기병 선발로 단일화된다. 자대에서의 군종병 선발 과정이 없어짐에 따라 그동안 결원 시 군승법사들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 충원해 왔던 군종병 확보가 시급해졌다.

이에 군종특별교구는 지난해 11월 3일 2018년도 불교군종병 모집계획 안내 등 첫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홍보를 시작했다. 특히 불교 군종병의 경우 지원 미달로 2017년에도 5명 선발에 10명이 지원했지만 2차 10명 선발에 8명, 3차 10명 선발에 7명으로 미달됐다.

군종특별교구 관계자는 "현재 불교군종병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감소로 우수 불교군종병 자원 확보가 제한되고 있다. 군포교 현장에서의 장기적인 역량 저하가 우려된다"며 "기독교 군종병의 경우 평균 2.5:1의 경쟁률이나 불교군종병은 관심이 저조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군종특별교구는 2018년 종립대학을 비롯해 일선 대학 및 대불련 등에 홍보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그 무엇보다 군장병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군종병 수급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 교구본사나 지역사찰, 대불련, 각 사찰청년회와 군종특별교구 간의 매개체가 필요하다. 김성권 대불청 회장은 "지역사찰 뿐만 아니라 불교청년단체 활동가들의 입대 예정자 정보를 특별교구에 제공하고, 전역 불자장병도 소개받는 등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군장병들이 법당에서 접하는 맞춤형 교자재도 필요하다. 현재 국방부 국군법요집 개발TF(팀장 지용 구윤호 군승법사)가 지난해 12월 사진 및 컬러로 된 신규 법요집을 펴낸데 이어 다양한 의식집도 펴낼 예정이다.

군종교구 교육국장 지운 스님은 "전투 중 시행되는 각종 불교의식을 정립한 '전시법요집' 및 청년 장병이 함께 공부할 만한 '국군 경전 선집', 출신 재적본사에 따른 다양한 의식을 담은 '기도의식집' 등이 현재 연구 중인 상황"이라며 "군법회 현대화는 미래포교의 출발선이다. 불교포교 발전을 위해서도 불자들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화계사

戊戌年 밝아오는 새해에도 각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화계사 사부대중은 서원합니다.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주 지 수암
국제선원 정진대중
신도회장 대법성

사부대중 일동

일요가족법회(거사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청년회		토요일	오후 4시
나한대학생법회		일요일	오후 1시
학생회		일요일	오전 10시30분
어린이회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참선법회(수선회)		일요일	오후 1시30분~4시
철야정진(선우회)		토요일	오후 9시~새벽3시
일요영어참선법회		일요일	오후 1시30분~4시
열린시민선방		월~금요일	오전 9시~9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 (02)902-2663 Fax (02)990-1885 www.hwagyesa.org

군지원 활성화, 전방위 관심 고조 '절실'


2015년 육군사관학교 임관법회 모습. 〈자료사진〉

[군승파송 50년, 군포교 과제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육 · 해 · 공군 4700여 간부
군불심 중심으로 활동
임관장교 중 불자 비중 증가
꾸준한 지원과 관리 필요

군장성 · 준부사관 포교 앞장

한국전쟁 이후 불자 지휘관의 도움 아래 사찰 재건이 진행되며 군장교 포교의 중요성이 커졌다. 초기 군내 포교활동이 3군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됐을 만큼 군장교 포교와 군포교는 뗄 수 없는 관계였다. 1952년 육사생도인 유상종 씨가 교회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여 1954년 화랑대에서 불교부를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1959년 해사 불교부, 1960년 공사 불교부가 만들어 졌다. 육군중앙 불교장교회가 1971년 2월 구성되는 것을 시작으로 장교회가 구성되며 네트워크도 본격화됐다.

군의 특성상 부대 지휘관의 종교 성향은 군포교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마땅한 포교방법이 없었다. 2000년 2월 육해공군 전군불자들의 연합 신행단체인 국군불교총신도회가 결성되고 개별적으로 있었던 군내 장교와 신도회 등을 하나로 통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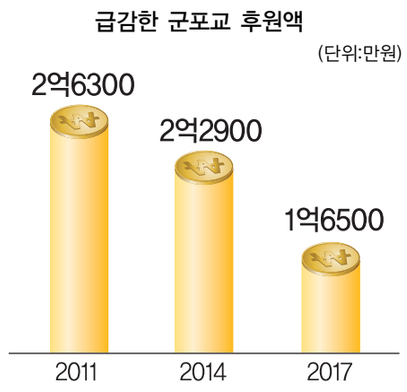
현재 간부포교 통합관리 시스템이 2017년 중점사업으로 진행됐다. 육해공군 4700여 간부 불자 집중관리 중 특히 초급장교의 포교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 눈길을 끈다.

2017년 각군 사관학교 졸업생도 총 인원 1093명 가운데 졸업법회 참석 불자생도는 336여 명으로 31%이며 작년 대비 6% 증가했다. 불자인구 300만 감소 국면에서 불교계는 청신호로 여기고 있다. 생도 포교는 사관학교 측에서 각 종교의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기에 매년 불자생도가 늘고 있다.

군장교들의 경우 수시로 부대를 이동하기 때문에 준 · 부사관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군종특별교구는 계층별 불자관리를 통해 장군 · 영위관급 불자의 경우 진급자 지휘봉 등 기념품 지원 및 부부동반 격려만찬, 현황관리 등에 나서고 있으며, 준부사관 불자를 위해서는 불자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김봉규 국군불교총신도회 사무국장은 "준 · 부사관은 준위와 부사관을 합한 용어로 병사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며 "템플스테이, 가족법회 등 다양한 준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긍심 고취를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지원 조직 활성화

군지원 조직은 군승 임관이 시작되며 함께 했다. 청담 스님을 총재로 최영희 장군을 회장으로 한 군승후원회가 1970년 9월 발족한 이후 다양한 군지원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포교사단 내 군포교팀이 구성돼 900여 포교사들이 군포교에 나서고 있으며, 대불련총동문회의 군불교지원단을 비롯해 다양한 민간인 성직자도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012년 군포교지원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모임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들 단체를 비롯해 군포교 전반의 후원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 각계에서 다양한 후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군포교 후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군종특별교구가 진행하는 만인동참 후원은 2011년 14만 여명에서 2016년 9600여 명으로 감소한 상태다. 후원금 또한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불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졌던 2011년에는 2억 6300여 만원에서 2012년 2억 3900여 만원, 2013년 2억 5600여 만원, 2014년 2억 3900여 만원, 2015년 2억 2500여 만원, 2016년 1억 9800여 만원, 2017년 1억 6500여 만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ARS등 일반 불자들의 군포교 후원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전 교구장 정우 스님 등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을 후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군종특별교구 창설시 종단 지원금도 4억 여원에 달했지만 2억 3700여 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5%가 삭감되기 까지 했다. 군종특별교구 측은 "군승파송 50년의 포교 성과를 알리고 범불교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종무행정으로 경비 절감과 함께 각종 포교시스템 개선을 통해 새로운 군포교 비전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군승파송 50년을 맞이하며

선묵 혜자 스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무술(戊戌)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중생의 무명(無明)을 한순간에 몰아가는 범종소리가 조용한 신 새벽에 시방세계에 울려퍼져 삼악도(三惡道)가 소멸되고 행복의 문이 열리니 사바세계 그대로가 부처님 세계입니다.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아 국군 용사들과 군승 법사님 그리고 군불자 여러분에게 청정한 빛이 비치고, 지혜로움 속에 평안과 소원이 이뤄지길 축원합니다. 아울러 불 · 보살님의 가피로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극복하고 밝은 새 날을 열어가기를 두 손 모읍니다.

무술년은 군불교와 포교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한국불교의 희망 군불교가 군승파송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 동안 군포교에 진력하신 군승법사님들과 군불자 여러분 원력을 바탕으로 군법당을 수행도량으로 포교도량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중생들의 괴로움을 달래주는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더 정진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108군법당을 찾아 평화의 불봉안하며 가정과 이웃과 국가와 남북의 평화를 기원하는 108평화순례단의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군승법사님, 그리고 군불자 및 군용사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는 아집(我執)과 독선(獨善)을 버리고 이기주의적인 소아(小我)의 자세를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타행(利他行)과 대아(大我)적 이상구현으로 화합과 화해와 믿음이 넘쳐나는 불국토가 되도록 모두 서원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기도하고 참회하고 정진하며 창조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음의 수행을 해 나가는 당당한 군불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바라는바 소원이 원만성취 되기를 기원합니다.



군포교 제언

포교 전반의 소통 강화 필요



이정우 최선임군승법사

"군승 수급, 장기 플랜 모색"



박정이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장

"장교 전·출입시 법회 동참 유도해야"



김성호 포교사단 군포교지원팀장

"장병 개인화 성향 맞춤형 접근"



유선재 대불련총동문회 군불교지원단장

"진로 멘토링 등 감성포교 진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승파송 50년을 맞아 군포교 현장에서는 갈수록 포교 여력이 줄고 있다는 하소연이 들려온다. 줄어드는 불자장병과 지원, 노후화되는 군법당 등 산적한 문제 속에서 신심과 원력으로 이를 헤쳐나가기 벅차다는 목소리다. 이들은 먼저 군포교 일선에서의 소통 강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모았다.

군승파송50주년기념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우 선임군승법사는 먼저 출가자 감소에 따른 종단 차원의 논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정우 군승법사는 "인구절벽에 의한 불교계 출가자 감소는 앞으로 2~3년 만 더 지나면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지금 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군승의 인력풀은 2019년이면 동이 난다. 2020년부터는 군승으로 보낼 스님이 없다. 같은 예로 학군장교후보생(ROTC)도 수급에 당장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우 군승법사는 "내년 당장 예비군승을 새로이 10명 이상 확보해야 2020년 충원할 수 있는데 교계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4교구별로 매년 군승 파송 인원을 책임지는 교구별 안배를 비롯해 타종단에게 자격이 되는 군승 파송을 개방하고 내부적 제도장치를 만드는 등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들의 군포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를 위해서는 군포교 각종 포상 등 제도와 종단의 승려관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정우 군승법사는 이어 "스님들의 군포교 동참을 유도하려면 이웃종교처럼 군승으로 파송되면 원적은 두되 모두 군종특별교구 소속으로 소속이동을 확실히 하고 그 기여도에 따른 경력 인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군승법사님들의 포교 역량 배양도 중요한 과제로 꼽은 이정우 군승법사는 "군에서 들린 기쁜 소식하나는 5년마다 조사하는 '장병 종교신자조사'에서 다른 종교와 달리 군불자는 줄지 않고 조금 늘었다는 점이다. 잃어버린 300만 불자를 되찾는데 군불교는 대단한 성과를 내며 선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군승법사는 "저격수가 총과 총알까지 직접 만들어 쓰지 않듯 청년포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군종교구와 군승법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응원과 군승파송 50주년에 대한 교계의 아낌없는 후원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군복무 당시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을 지낸 박정이 회장은 군불교 활성화가 포교뿐 아니라 호국불교를 선양해 국가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군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박 예불회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와 인성교육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군의 무형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주신 예비역 및 현역 법사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뗐다.

박 예불회장은 이어 "군내 종교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 상 장병들에 대한 포교활동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간부 불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간부 불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활동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종특별교구의 사관생도 관리 등으로 임관불자장교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선 부대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예불회장은 "종단 및 교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며 "특히 새로 임관하여 부대로 배치되어 왔을 때, 따뜻한 환영과 더불어 법회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예불회장은 전 · 출입시 상호 유대감을 강화하고 격의없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 또 진급 및 영전 시 격려활동이 불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큰 힘이 됨을 힘줘 말했다.

끝으로 박 예불회장은 "종단과 군종특별교구, 그리고 일선부대가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는 군종활동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제일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곳이 일선부대 법당이므로 원할한 법회와 군종활동 지속을 위해 군종교구를 중심으로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통상 불자들은 소극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군법회 등 각종 신행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군승 수급 교구 안배
군포교 기여도 경력 인정

교구와 군간부 유대감 강화
동기부여 및 자긍심 고취 필요

종교활동 마일리지 포상 제공
포교사와의 소통 창구 개설

군포교 콘텐츠 연구 제안
미법회 지역 포교인력 충원

20년 넘게 군포교를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는 김성호 포교사단 군포교지원팀장은 "군 포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정작 군포교에 선뜻 나서는 흐름은 약하기만 하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특히 김 팀장은 젊은이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군포교 현장에서의 새로운 포교 방법이 모색돼야 함을 지적했다. 김 팀장은 "요즘 젊은이들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과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강압적이고 부당한 대우에 대한 거부반응이 강하고 개인주의의 성향이 강해서 본인의 신앙에도 부모의 간섭에서 자유롭다"며 "법당에 나온 병사들에게 확인하니 가족 관련해서 불교를 접한 병사도 많았으나 개인적인 관심으로 찾아온 병사들도 상당부분 있었다. 이는 개별적으로 병사들에게 접근하는 전법 포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부대에서도 병사들이 종교활동에 마일리지 점수를 제공하여 포상휴가를 주는 등 동기유인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팀장은 지난해 11월 28일 진행된 1군단 민간인 성직자 보수교육 사례를 들었다. 김 팀장은 "이날 대부분의 민간인 성직자가 목사들이었다"며 "이웃종교계는 65세 정년을 만들고 민간인 성직자 위촉받기에 열을 내는 것이 유관단체의 유무상의 후원이 이지만 포교사들은 모두 자비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햄버거, 피자 등등 병사들의 입맛을 맞추려 노력을 하는데 결국 그 발생되는 비용을 해당 몇몇 포교사들의 주머니로 충당을 하려 하니 커다란 부담감이다. 거리도 왕복 100km를 넘어가니 유류비도 적지않은 부담"이라며 "법당 옆에 간식을 조리할수 있는 주방을 만들고 병사들에게 직접 만들어 주는 정성이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군포교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군승법사님들이 2~3년의 임기만 끝나면 떠나서 연결성이 없다"며 "포교사들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상생해 나가야 한다. 군승법사들과 포교사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유선재 대불련총동문회 군불교지원단장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절실한 과제는 현재 법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법당에 대한 포교인의 충원방안, 장병들의 법회행사 참석을 늘리기 위한 양적 포교방안, 종단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이젠 젊은 세대에게 맞는 질적 포교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현재 교리적 전법을 기본으로 하되, 고민 많은 장병들의 인성 함양과 미래 진로 멘토링, 젊은 세대에게 맞는 문화감성적 포교, 현 시대에 맞춘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단장은 "이를 위해서는 군포교 방법을 연구하는 조직이 함께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 총화종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종 정 전남정

부 종 정 이남은. 최만재 총무원장 김혜각

종회의장 백만우 종회부의장 정경옹 교 육 원 장 김법만 호계원장 이만오
감찰원장 김혜암 포 교 원 장 김기태 문 화 원 장 이지수 선 원 장 신본원 복지원장 김지산

사회부장 성조향 호법부장 박지광 재무부장 빈성혜
조사부장 김지현 문화부장 양혜원

서울북종무원장 이혜인 경기동,남종무원장 김법만 경기서종무원장 김혜암
대 전 종 무 원 장 김해송 울 산 종 무 원 장 백만우 경 북 종 무 원 장 신본원
강원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경남동종무원장 이광덕 경남서종무원장 김월광
강원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전남,광주종무원장 김현산 제 주 종 무 원 장 김청해
부 산 종 무 원 장 박지광

유 발 승 회 장 이지수 유 발 승 총 무 전지명

외 임원 및 종도 일동

신 년 사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총화종 새해 새희망!

삼보에 귀의하옵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총화종에 부처님 불은(佛恩)이 항상 가득하여 원하는 불사가 모두 원만 성취토록 발원드립니다.
늘 그렇듯이 새해가 오면 반성하고 다짐하고 하는 생활의 반복함이 시작됩니다. 다사다난 했던 정유년을 보내면서 무술년 새해에는 또다시 어떤 다짐을 해야 할지요! 우리 총화종 종도 모두는 무술년 새해에는 특별한 해(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각자 자신만의 다짐에서 종단화합과 단합으로 다짐하는 해(年)가 되어서 실천해 나가는 해(年)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술년에도 부처님 가피력으로 모두 강녕하시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93번지 2층
전화 02)743-0066, 8338 / 팩스 02)743-8448
www.chonghwajong.or

佛紀 2562年 戊戌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A16

일을 하면 끝을 맺고 결코 중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별역잡아함경)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호 서호
부종정 법두 수암

승정원장 법상 심곡
원로원장 법두 수암
총무원장 법웅 정관

연수원장 일월 교육원장 법봉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총무부장 원도 총무국장 무경
사회부장 정광 교육부장 심공

부산교구종무원장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사단법인 대한불교금강조계종에 입종하실 종도님을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 전 화 : 055)532-4414 / HP 010-3507-2837

(사)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해광 대종사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법진 원로원장 효덕 교육원장 해인
포교원장 도선 예술문화원장 원욱 비구니원장 정철

각지역 종무원장 및 종회의원

**법인. 성문. 법진. 고암. 성광. 혜원. 시광. 현광. 광운.해초. 해원.
자은. 덕행. 자은. 덕행. 상락. 해일. 청정. 혜선. 명진.무명. 정봉.
묵현. 해광. 원각. 법연. 고암. 진국. 삼관. 농해. 수월.자명. 수경.
연담. 도헌. 성수. 진광. 도관. 진각. 우하. 대산. 진오.대현. 종진.
진허. 혜연. 정관. 화림. 승주. 도연. 연화. 도영. 지한.단운. 혜명.
여의주. 대덕화. 보리심. 천모성월. 길상화. 미서경**

적극적으로 입종을 환영하고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종도일동 ·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 총무부장 법연 010-7122-1369

(사)대한불교대각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만청

승정원장 해송 감찰원장 해종 종회의장 인왕
교육원장 원상 포교원장 운봉 비구니회장 지산
예술원장 광분

총무부장 범상 사회부장 원광

경남교구원장	해법	경북교구원장	해안	전주분원장	광근	포항분원장	지관
대구분원장	해덕	안양분원장	해왕	인천부원장	현성	성주분원장	혜삼
무주분원장	원종	울산분원장	거산	홍성분원장	도빙	진안분원장	법화
시흥분원장	사관	천안분원장	원광	고성분원장	진원	수원분원장	천명
태백분원장	무현	대전분원장	월현	노원구분원장	혜성	통영분원장	해오
세종분원장	해견	대구서구분원장	무오	금산분원장	현공		

종도 및 대각불교교양대학 동문, 임직원 일동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미암길 128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성도

jogyejong.kr

종도 일동

입종을 환영합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함께하실 종도님을 환영합니다. 불조의 혜명을 바르게 전하는 청정수행에 함께하여 참 승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총무원 : 부산 중구 중앙대로231번길 16 부산역앞 관음정사
전화 051)468-5657 / 팩스 051)442-5659 / 모바일홈페이지 http://m/jogyejong.kr
부설단체 051)442-5658 / 수산대학병원시신 및 장기기증모임 /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사) 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회의장 대공 동곡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무국장 우석 길동
문화원장 덕일 금산 총무부장 무통
고시원장 도진 동영
포교원장 동우 영산
사회원장 덕진 도광 종회의원 일동
복지원장 동법 혜조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3통, 사진(3×4), 이력서3통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시례마을
전화 055)336-0108, 335-0178 팩스 336-7070
핸드폰 011-595-6522 / 010-8939-6522

(사)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회 원 일 동

佛紀 2562年 戊戌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A17

과거 생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을 모시게 된 것이다. 이는 전생의 복이 크기 때문이다. (아난분별경)

(사) 대한불교염불종

종 정 월담성인

종회의장 혜안 성묵
원로의장 무초 정락
총무원장 만공 호조

미국종무원장 용월 도황 경기종무원장 호암 대인 경북종무원장 성묵
포교원장 수미 길상 문화원장 정견 사서실장 조능

입종을 환영합니다

불조의 혜명을 받들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대덕스님 들을 환영합니다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사진, 법당사진, 수계증
입종문의 : 총무원 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봉화재길 5 화엄사
전화 043)652-0331 팩스 043)653-0332

대한불교現조계종

총무원장 성종스님 포교원장 성수스님
호법원장 법운스님 문화원장 도우스님
종회의장 대경스님 교육원장 성법스님
재무원장 해원스님 사회원장 도현스님
사업원장 범장스님

제2교구 서울 법정스님 제3교구 경기도 보덕스님
제4교구 해원스님 제5교구 부산 법운스님
제6교구 경남 성수스님 제6교구 경남함양 도찬스님
제7교구 전북 법화스님 제8교구 마산 경우스님
제9교구 울산 도현스님 제10교구 경북 법화스님

■ 총본사 용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70-16 / 전화 062)531-3888

(사) 대한불교본조계종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종 도 일 동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社團法人 大韓佛教 禪教宗

宗 正 眞性 法雲

元老議長 龍岩 理 事 長 華嚴
總務院長 三杜 教育院長 覺明 布教院長 知賢
監察院長 宰性 中央宗會副議長 普覺
組織委員長 導鏡 慈悲實踐會長 光明心
總務部長 光恩 教務部長 法光 財務部長 智雲
教育部長 正圓 布教部長 東海 社會部長 一覺

全 宗徒 一同

■ 총무원 : 대전 중구 대흥로 88 다솜타워 7층 전관 / 전화 042)242-1080 / 팩스 042)252-1081

대한국불교조계종
나눔실천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승가회 종도 일동
사부대중 일동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53-1
전화 055-232-7819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 승가회

총 재 무 공

회 원 일 동

■ 주 소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821-46길 신해사
■ 전 화 : 055)855-1772



한계 온 힐링, 이젠 Up-Grade 필요하다

[프롤로그] 왜 'Post-Healing'를 말하는가

2010년 전후 불어온 힐링 열풍
불교, 사회 힐링 트렌드 주도해
7년 지난 지금, 힐링 침잠 상태

열풍에 비해 불교적 성과 '미비'
"사사화 · 탈종교 가속했다" 지적도
자기계발 비판 넘은 대안 필요해
근본 집중한 프로그램 개발해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힐링(Healing)은 한국사회에는 매우 친숙한 단어다. 일반적으로 치유를 말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힐링이 사회 전면에 나타난 것은 2010년 전후이다. 당시 '힐링 열풍'이라는 수식으로 불릴 정도로 센세이션한 반응을 가져왔고, 이를 주도했던 곳이 바로 불교다. 법륜 · 혜민 · 정목 스님 등 국민 멘토들의 저서들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 강연에는 2030세대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데칼코마니' 자기계발과 힐링

하지만,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야기가 다소 달라진다. 소위 힐링 담론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비판의 골자는 '위로는 위로일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위로를 통해 생활을 지속하는 도움을 주지만 사회 문제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종의 '희망고문'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저에는 이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룬 자기계발 담론에 대한 비판이 있다. 자기계발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 등을 말하는 일종의 성공학이다. 한국의 출판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 분야가 자기계발의 분야이다. 피트니스, 다이어트, 요가 등 신체관리 지침서부터 시간관리, 글쓰기, 인간관계 매뉴얼과 청소년 교양 서적, 적지 않은 종교적 에세이도 넓게는 자기계발 담론의 자장 안에 속한다.

이를 두고 서동진 계원예술대 교수는 저서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를 통해 "(성공학, 처세술을 비판하는 사람도)자기계발이란 용어를 경유하지 않은 채 '나의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고 성찰하게 한' 등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계발 담론을 열정적으로 소비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숙진은 〈종교문화비평〉25호에 게재한 '자기계발이란 이름의 종교'에서 "자기계발은 대중문화의 옷을 빌린 하나의 세속 종교"라면서 "자기계발 열풍은 자유와 성공, 힐링과 행복이라는 메시지로 신자유주의 논리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사회의 힐링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 고찰해 한양대서 석사학위를 받은 장민우도 "현대 한국사회의 힐링 담론은 무한경쟁의 압박으로부터 치유를 향한 욕구로 의해 생겨난 듯 하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개인 문제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기계발 담론이 내세우는 핵심 요지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한국사회에 불었던 힐링 열풍은 자기계발 담론의 또 다른 변주곡이었고, 그 영향권 안에 불교도 자유롭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힐링 이후 남은 것들

2000년 이후 힐링과 웰빙이라는 트렌드가 사회에 유행됐고, 불교가 이를 주도하며 여론을 이끌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통해 명상은 대중화되고, 템플스테이라는 관광문화콘텐츠가 개발돼 인기를 끌고 있다. 힐링 문화가 스님과 사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주는 역할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교단적 포교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종교를 가진 국민 가운데 10대 이하(356만3208명)는 개신교가 60.1%로 가장 높았으며 불교 20.7%, 가톨릭 17.9%였다. 20대(209만3394명)는 개신교 50.2%, 불교 27.3%, 가톨릭 20.9%였고, 30대(281만9434명)는 개신교 48.3%, 불교 30.2%, 가톨릭 20.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15년 발간한 〈한국인의 종교-1984~2014〉에서도 10~30대 불교 인구는 크게 반등되지 못했다. 도리어 2004~2014년 동안 30대 불자 인구 분포는 21%에서 11%로 줄었다.

종교 지형도 변화했다. 〈한국인의 종교〉에 따르면 종교 생활에 필수인 법회 · 예배 참여와 같은 외적 종교성은 줄었으나, 단순 경험과 같은 내적 종교성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인의 20%로는 '기 · 마음 수련'과 같은 유사종교 체험을 경험했고, '종교보다 개인적 성찰과 수련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35%로 달한다.

이에 대해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한국인들의 신앙이 제도 종교 중심의 신앙 생활에서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는 종교의 사사화(私事化) 경향이나 종교적 얽매임에서 탈출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사실, 명상의 대중화와 유사종교 범람은 종교의 사사화에 따른 탈종교화 현상의 요인 중 하나다. 웰빙 · 힐링 등 트렌드들이 불교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쳤음에도 교단적 포교에는 그 영향이 미비한 것도 대중들이 개인적 체험으로만 불교적 힐링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기존 힐링 문화를 넘어서

현재까지 불교계에서 힐링 콘텐츠를 불교계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힐링 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힐링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치유 기반이 필요하다. 지금 불교계가 '포스트 힐링(Post-Healing, 힐링 넘어서기)'을 고민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화엄탑사구미불교대학 주지 명법 스님은 "굉장히 많은 유형의 갈등과 문제가 존재하는 데 그것을 매우 단순화해 해결책을 내어 주려고 한다"면서 "내용 역시 지나치게 긍정적이다. 오로지 위로받고 '괜찮아'로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불자와 일반 대중이 상생할 수 있는 힐링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지만 지금은 초기의 힘을 잃고 있다"면서 "힐링 관련 서적 및 콘텐츠는 자기계발서에 머물러 있거나 주관적 경험과 주장에 경도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객관적인 증거와 뒷받침이 되는 과학적 이론이 필요하다. 임상적 활용 가능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가진 콘텐츠가 주축이 돼 이끌어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계, 산업계, 의료계와 같은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되는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고 그러한 연구에서 불교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불교 원효종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불기 2561(2017)년 12월 6일
대한불교 원효종 14대 중앙종회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아래와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종회의장 운오
종회부의장 법원. 정운

총무원장 법광 우석
규정원장 성암
법규원장 경오
고시원장 효산

대한불교 원효종에서 2018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합니다
종도스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62(2018)년 1월 9일 10시 30분
● 장 소 :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 (경주시 충현로 3길 4-1)
● 전 화 : 054) 743-0700 FAX : 054) 741-9002

대한불교 원효종 종단 소속 사단법인
(사)한국불교염불선종
(사)평해재단 평해사
(사)대한선불교 원효종

신년사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삶의 현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즉 생활속의 불교이지요.
도대체 생활속을 떠나있는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시에서의 생활, 산속에서의 생활, 인간으로 나서 사는 것이 생활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불성과 같이 하는 자신을 주시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도 불성이 있기에 우리는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참나를 찾기위해 물러남이 없는 정진을 해 나갑시다.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설제 정광 총무원장 법광 우석 선거관리위원장 석불

불교, 무엇을 힐링할 것인가

깨닫고 실천하고… 스스로를 치유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기존 힐링은 위로 · 위안에 그쳐
문제 알게 하고 치유 이끌어야
'自利利他' 의 실천행도 중요해

힐링(Healing)은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사회 전반을 아우른 트렌드였다. 지금 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그래도 현대인들의 내면에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한다. 한국인의 20%로는 '기 · 마음 수련' 과 같은 유사종교 체험을 경험했고, '종교보다 개인적 성찰과 수련에 관심이 있다' 고 답한 사람도 35%로 달한다는 한국갤럽의 2015년 통계는 이를 증명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힐링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위로와 위안에 머물거나 개인 치유 욕구로만 힐링이 그친다는 점이다.

기실 불교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동기나 사연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명상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고 명상을 시작한다. 주변의 사람들이 명상으로 마음이 편해지거나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효과를 보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해 명상을 접한다. 여기서는 문제가 있다. 바로 그효과를 본인이 정한 기간에 느끼지 못하면 명상 수행이 중단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명상수행으로 인한 우월감을 느끼길 원한다. 타인의 명상 수행 이력에 관심을 보인다. 혹은 명상을 신비체험화하는 경향도 적지 않다.

명상은 스스로의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다. 인생을 크게 바꾸는 것은 나 자신을, 마음을 바꾸는 것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상 강좌를 운영한 화엄탑사구미불교대학 주지 명법 스님은 "명상을 접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기적 효과와 체험에 집중한다. 자기 체험과 힐링적인 요소만 취하는 것"이라며 "불교에서는 이 같은 것을 경계했다. 자신의 문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 가지는 개인적 성찰에만 머물다보니 정작 타인을 위한 실천행에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수행을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홀로(獨)수행은 종교의 사사화 경향과 맞물리면서 탈종교화를 가속시킨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설령 내가 힐링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변의 이웃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 힐링이 어떤 의미가 있고, 설령 힐링이 되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는가"라며 "현대사회에서 고통의 원인은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양자가 복합적이다" 라고 실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서광 스님은 〈한국불교학〉 77집에 게재한 '명상과 치유에 기반한 포교 활성화' 에서 '위기인 동시에 기회' 임을 분명히 했다.

위기의 측면에 대해서 서광 스님은 "불교 수행이 현대인들이 당면한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 힐링과 명상 바람은 불교 수행이 아닌 타 종교적 전통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회의 측면은 불교의 모든 교리의 수행의 초점을 요익중생을 위한 보살행에 맞추고 자비와 봉사를 실천하는 방편으로서 명상을 활용할 수 있다면 힐링 바람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과 전성기를 가져오는 발판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명상을 통한 힐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뇌과학과 정신치료 등의 첨단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명상이 심리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을까. 이는 실제 입증된 사실이기도 하다. 1980년대 이후 명상이 질병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임상적 결과가 보고됐다.

명상의 이완반응으로 뇌파가 알파파와 세타파를 보이며, 뇌활동이 전반적으로 이완되며 안정화되지만 주의집중과 유쾌한 정서활동을 관장하는 뇌 부위는 오히려 각성된다는 것이다.

신경과학자인 데이비슨 박사는 우울이나 불안이 심한 환자에게는 마음챙김 명상을 시키면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로 바뀌는지를 실험했고, 이 증거를 만들었다. 2011년에는 독일 신경과학자들이 명상을 통해 뇌부위 기능이 개선돼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치유됨을 입증했다.

이밖에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토니야 제이콥 박사팀의 연구결과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는 인간 수명을 담당하는 텔로미어의 단축을 저지시킴을 드러냈다. 이 결과 명상이 텔로미어의 단축을 저지시키는 텔로메라제 효소의 활성을 30% 가량을 높인다고 결론지었다.

심리치료에는 보다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장현갑 교수는 〈한국심리학회지〉에 기고한 '한국형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 개발' 에서 10여 년간 수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결과 불안과 우울 공황 등 심리적 증세가 개선됐고, 일반 성인들도 강박감과 적개심 등 부정적 정서가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서광 스님은 "한국불교가 명상과 힐링을 통해 포교 활성화와 대중화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면 다양한 학문 분야, 특히 뇌과학과 정신치료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그래야만 명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알 수 있고, 앎을 통해 불교 교리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현실적 적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흠 교수 역시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여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인지과학에서 이룩한 성과를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힐링은 근본적인 고통을 제거하기보다 미봉책의 마음포장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불교 명상 어디서 배울 수 있나

대표적인 불교계 명상단체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를 들 수 있다. 회원 단체로는 △금강선원(혜거스님) △동사섭 행복마을(용타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인경 스님) △하트스마일명상연구회(미산 스님) △자비선명상원(지운 스님) △행불선원(월호 스님) △상담이 있는 명상 가피명상(적경 스님) △자비명상(마가 스님) △참불선원(각산 스님) △통담아카데미아(선업 스님) △명상수행학교 행복수업(혜봉 오상목) △명상의집 '자애' (김재성) △성철선사상연구원(박희승) △한국MBSR연구소(안희영) △위빠사나붓다선원(김열권) △보리수선원(붓다락키따 스님) △나루명상센터(혜량 스님) 등이 활동하고 있다.

명상 강좌는 협회 홈페이지(www.kamto.net)에서 각 단체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불기2562년 단기4351년 2018년 戊戌年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그득하시길 두손 모읍니다.

禪의 향기가 그득한 …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본찰
미륵산 용화사
종정 석연화 대종사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지차골길 30(용암리) • 전화 : 033)761-7008, 766-2556 • FAX : 033)766-2557
중국 숭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서울사무소 02)766-6800

창원 용화사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4 (봉곡동, 성우프라자 9층)
• 전 화 : 055) 277-2270



세계불교 승왕청
세계승왕 석연화 대승정



▣ 임원명단
승 왕 : 대봉 대승정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이 사 장
총 재 : 향덕 대승정 (사)대중불교 조계종 종정
회 장 : 향산 대승정 (사)대한불교영축산조계종 총무원장

▣ 최고위원
고산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 법진 호국불교법왕조계종 종정 / 일웅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종정 / 청파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 현공 대한불교영각사 주지 / 대원 대한불교일월종 총무원장 / 원각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 청담 대한불교관음조계종 총무원장 / 보광 대한해동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운천 대한불교조승선종 총무원장 / 의천 세계불교천지종 총무원장 / 정각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 해도 사)한국불교태극조계종 총무원장 / 무상 대한불교극락종 총무원장 / 거목 사)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장 / 도선 한국육조선 선원장 / 고명 세계불교평화종 종정 / 원덕 한국불교동산조계종 종정 / 대경 대한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무순)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지차골길 30 (용암리) • 전 화 : 02)766-2556 FAX : 033)766-2557

4人 4色 전문가 제언

힐링 열풍은 불교계에 긍정 · 부정적 영향을 남겼다. 전문가들에게 현재 한국불교 힐링 문화의 진단과 무엇을 넘어서고 업그레이드해야 하는지를 들었다.

정리=신성민 기자



마가 스님 (사)자비명상 대표

"사성제 · 팔정도 안에 진정한 '힐링'이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힐링 넘어선 테라피로 자기 치유의 힘 전해야"



명법 스님 화엄탑사구미불교대학 주지

"불교, 유행 쫓기보단 바른 傳法을 고민하길"



이도흠 한양대 교수

"깨달음의 사회화처럼 '힐링의 사회화' 필요"

힐링 · 웰빙은 방편… 근본에 다시 집중하자

(사)자비명상 대표이자 힐링 멘토로서 대중들과 만나는 마가 스님은 "진정한 힐링은 이미 불교의 가르침 안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불교의 근본 교의로서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고 바른 길을 실천하는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가 곧 '진정한 힐링'이라는 것이다.

힐링 열풍이 불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의 평가를 했다. 스님은 "출판계 힐링 붐을 선도한 스님들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전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포교 영역 확대에 디딤돌을 놓았음에도 이를 발전시켜 수행의 단계로 이끌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는 게 스님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마가 스님은 불교 수행이 현대인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와 고통에 대한 구체적 해답을 줄 수 있는 합리적 방법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불교의 수행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란 삼독(三毒)을 소진시키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불교 근본 교의인 사성제 안에 완전한 힐링이 내포돼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트-힐링'을 위한 제언으로는 대중들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궁극적으로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힐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고 했다. 무엇보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마가 스님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에 각색되고 첨가된 것은 없는지, 우리 안에 비불교적인 것이 없는지, 여법한지 항상 참회하고 반성해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발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공생과 상생의 가르침이 실현돼야 진정한 힐링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일반사회와 불교계에 일어났던 힐링 열풍은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젊은이들이 정신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언과 위로를 받고자 한 것이 힐링 열풍의 요인이 됐습니다. 불교의 힐링도 풍경에서 사찰음식 먹고, 해보지 못한 체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힐링이 넘어서 향후 불교가 지향할 트렌드는 '테라피(therapy)'라고 했다. 기존의 힐링이 자기 만족과 충족에 방점을 뒀다면, 김 교수가 말한 '테라피'는 '자기 극복 · 치유'의 개념이다.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아가야 하죠. 답을 찾는 과정을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이끌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문화 치유 명상'입니다. 문화적인 접근 방법으로 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치유 상담을 통해 문제를 찾아주고, 명상을 통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문화 치유 명상'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활동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문화를 향유시키고, 치유 상담을 이끌며, 명상을 지도할 전문가들 양성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계속적으로 이 같은 트렌드를 확대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고민들은 긍정담론을 내포한 힐링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본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수행자이자 미학자로 잘 알려진 화엄탑사구미불교대학 주지 명법 스님은 한국 사회의 힐링 문화에 대해 문제가 많았음을 힘줘 말했다. 신자유주의 도래로 사람들은 자신을 조율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고, 힐링 열풍도 자기 긍정을 통해 시스템 안에서 최대 성과를 만드는 구조 안에서 이어졌다는 것이다. 웰빙 · 힐링 등 트렌드들이 불교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쳤음에도 교단적 포교에는 그 영향이 미비한 것도 대중들이 개인적 체험으로 불교적 힐링을 받아들였다는 게 스님의 지적이다. 도리어 소비 문화 안에서 종교의 사사화와 탈종교화를 심화시킨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명상을 접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기적 효과와 체험에 집중합니다. 자기 체험과 힐링적인 요소만 취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 같은 것을 경계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불교가 기존의 힐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힐링과 웰빙 등에 대한 과도한 몰입을 자제하고, 수행을 통한 자기 성찰과 이타적 삶으로 나아가는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행이 아닌 진정한 시대 언어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명법 스님의 주장이다.

"일방적인 긍정성은 타자와의 차이 · 이해 없이 나에게만 집중된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실천적으로 변화하는 것인 '신심'입니다. 수행은 절대로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전법에 있어서도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대에 맞는 전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더욱 극단화되면서 국민들의 사회적인 고통 요인이 증가됐습니다. 국가나 사회에서 그러한 고통을 줄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결국 대중들은 개인적 힐링으로 위안을 받고자 했고, 매스컴들은 이것이 치유인양 조장했습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한국사회에 불었던 힐링 열풍에 이 같이 진단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그러면서 '아프니까 청춘'으로 대변되는 자기계발 담론은 힐링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불교의 힐링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상품화 논리나 개인적 치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사회에서 고통의 원인은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양자가 복합적입니다. 사회적인 고통의 제거가 없다면 개인적 고통은 지속됩니다. 결론적으로 깨달음의 사회화처럼 '힐링의 사회화'가 필요합니다."

결국 불교의 힐링은 개인적 고(苦)와 사회적 고를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고득락(離苦得樂)과 발고여락(拔苦與樂)이 함께 추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 힐링 담론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심리 · 정신분석학 등 인접영역의 성과 수용과 불교 근본 핵심을 전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여 그에 맞는 응병여약(應病與藥), 곧 원인에 맞게 고통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편을 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수행으로 이어지려면, 삼독의 지멸로 이어져야 하고, 전법이 되려면 이고득락과 발고여락을 함께 해야 합니다."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허공에는 발자취가 없고 깨달은 님에게는 동요가 없다

붓다선 지도자 1급 자격증 수강안내

우리는 정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청정승가를 위해 고따마 태자가 샤카무니를 완성한 명상법 "붓다선"을 전법하고자 합니다.

- 수강일정 : 3개월(매주 화요일 오후7 ~ 9시. 3월 6일 부터 강의 시작함)
- 수강과목 : 무라와다수행(쏫티. 헤뚜와다. 붓다따. 만다라명상)
  : 앗딴누수행(쌍깝빠. 와짜. 깜만따. 아지와. 아누맛자명상)
  : 싸마타수행(아나빠나싸띠. 와야마명상)
  : 위빳싸나수행(까야. 웨다나.찟따. 담마1.담마2.담마3.담마4명상)
  : 아리야쌋짜수행(둑카. 싸무다야. 니로다. 막가명상)
  : 위뭇띠수행(9차제정명상) : 닙바나수행(아누빠디쎄싸명상)
- 모집인원 : ○○명(사부대중 누구나 선척순 전화신청 – 학사처장 고원 : 010-9609-5883)
- 수료혜택 : 붓다선 지도자 1급 자격증 수여
- 강의장소 : 견불선원(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40-1. 2층)
  분당선 태평역 2번 출구 이용. 수정구청 쪽으로 도보 10분 거리
- 전 화 : 070-7717-2276

BUDDHA JHANA CENTER

세계승가회

승 왕 뿐냐싼또

총 재 수밋다 회 장 수완나 대장로 현지

승왕비서실장 싯달라수좌 기획본부장 설원수좌
나란다대학총장 견원수좌 나란다교학처장 도원수좌
아카데미학사처장 고원수좌 아카데미교무과장 진원수좌

연수국장 대원수좌 교육국장 인원수좌 문화국장 청원수좌
심리국장 지원수좌 포교국장 성원수좌 인권국장 다원수좌
홍보국장 경원수좌 복지국장 시원수좌 대외협력처장 선행법사

세계승가회 붓다선 전법관
http://www.worldsangha.org

佛紀 2562年 戊戌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A21

아라한은 항상 노력하는 것을 힘으로 삼는다.부처님은 대자비를 이루어 자비로써 힘을 삼는다. (잡아함경)

非營利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社團法人 정통불교 조계종

종 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장 代 비상 대광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법경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대원
연수원장 청암　　부원장 범수
감찰원장 범왕　　부원장 도암
포교원장 도안　　부원장 혜성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원
교육원장 도연　　부원장 연화
불교예술원원장 도연　　부원장 소현
비구니회장 대광　사무처장 성원　종정사서실장 소원 성원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 학 장 대광

총무부장 성원　규정부장 이현　교육부장 소원
재무부장 도하　사회부장 범수　홍보부장 도언
기획실장 대각

부산교구종무원장 도이　전남교구종무원장 법정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서부경남종무원장 법조　충남교구종무원장
진주하동산청지회장 영암　경 북 종 무 원 장 혜정
대 원 종 법 사 단 장 수안　대원종신도회회장 신우연
대원종전국신도회총무 김임숙　신풍사신도회회장 이정민(청암)

중앙종회의장 법조　부 의 장 도이
중앙종회의원 대광 소원 도하 혜정 도이 법경
혜성 법조 혜인 법수 성원 영암
지현 도연 도언 도각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스님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김해시 진영읍 진남로15-6 (구 주소 진영읍 좌곤리2-18번지) 대한불교 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종정 정허 신풍
총무원 055)346-29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10-8548-8608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 응　　중앙종회의장 대 휴

종무처장 양위찬(원당)

大本山 약 사 사 (지장전추모관운영)
신 도 일 동

재단법인 화 엄 승 가 장 학 재 단
공익법인 대 한 불 교 화 엄 종 장 학 회

이 사 장 한 상 호 (화응)

■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EL 032)429-4441 / FAX 032)429-4445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EL 02)730-0798 / FAX 02)730-0799

(사)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종 정 오봉

승정원장 대 현

총무원장 해 인

종 도 일 동

종도모집 안내

■ 입종서류
- 입종 등록 신청서 1부 (총무원 비치)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 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사진(반명함판) 4장

■ 총무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4-7번지 봉림사 031-217-2633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도모집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大韓佛教傳統曹溪宗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 정 : 혜강당 석능인대종사 (석가여래부촉법 제77대)
명예종정 : 각암. 지산

원 로 의 원 : 범아. 보각. 덕암. 지원. 법화. 법륜. 효천
종 회 의 원 : 지우. 심공. 석담. 혜공. 성원. 길산. 해인. 연담. 향산. 보영. 은산. 보현. 혜광. 혜각. 현각. 여산. 지산. 지각. 법성. 갈마. 원산. 대근. 송암. 혜명. 지관. 현도. 정임. 지명. 석호. 지원. 법천. 원각. 광명. 해인

원로의장 : 법장　종회의장 : 도안　총무원장 : 대웅　중앙연수원장 : 혜광
사정원장 : 귀천　승정원장 : 덕암　법계고시위원장 : 혜암　중앙선원장 : 무성
승가대학장 : 무척　교육원장 : 무아　포교원장 : 효천　율원원장 : 두현
호계원장 : 혜명　염불원장 : 상호　문화원장 : 원산

총무부장 : 도법　재무부장 : 연제　교육부장 : 응수　포교부장 : 진광
사회부장 : 성도　규정부장 : 보영　비구니부장 : 길상　문화부장 : 청아
예경실장 : 지현　사무국장 : 적광

중앙신도회 회장 : 김용규 법사　전국신도회 총무 : 김도원
서울신도회 회장 : 최정익　인천신도회 회장 : 신광식
경북신도회 회장 : 김후진　대구신도회 회장 : 석용태　부산신도회 회장 : 서지환

서울교구종무원장: 법륜　울산교구종무원장: 무정　경기교구종무원장: 불산
인천교구종무원장: 진각　경남교구종무원장: 무척　충북교구종무원장: 길상
충남교구종무원장: 지원　대구교구종무원장: 민해　경북교구종무원장: 석강
부산교구종무원장: 두현

전국포교선원 : 안양선원. 시흥선원. 천안선원. 부평선원. 주안선원. 의정부선원. 화성선원. 공항선원. 산본선원. 심곡선원. 성남선원. 권선선원. 연무선원. 계산선원. 연수선원. 장안선원. 원산선원. 원효선원. 응암선원. 인계수원선원. 부천선원. 방화선원. 병점선원. 소사선원. 신천선원. 오산선원. 광명선원. 정명선원. 문수선원. 관음선원. 관악보현선원. 대구보현선원. 원주보현선원. 제천보현선원

전 국 포 교 사 : 조광래. 송성재. 박승정. 오순환. 박병갑. 오현국. 임종국. 김진우. 정태호. 정철수. 조해숙. 김순애. 신주용. 우흥렬. 윤평중. 현상호. 김흥찬. 방선영. 서현식. 박석재. 홍성영. 나인정. 신명수. 이도경. 김상용. 기지영. 신재식. 원순례. 한병환. 박찬희. 김창용. 박정자. 이호철. 홍성도. 신동혁. 신동훈. 임용호. 김명덕. 정항기. 최광호. 박태규. 박찬희, 신명수. 김진우. 천기진. 천기수

본종단에 가입하시는 사찰은 개인소유로 인정합니다.

총 본 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 각황사　☎ 053)325-0400. 010-8369-5668. 팩스 053)325-4848
전국신도회 |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7번길 17 205호　☎ 031)498-5123. 팩스 031)498-4040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Buddhists of The World King
(사)세계불교법왕청

불기 2562년 2018년 새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불교국 15개국 승왕 및 연방승가회 회장이
참여하는 세계불교 법왕청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 미얀마종교성 장관과 불교수호협회 회장 ▼







▼ 불교도들의 법왕 우꾸마라사야도와 10개국 승가 대표들 ▼





후진국 극빈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







세계불교법왕청의 본부는 미얀마 불교수호협회가 관리하고 중앙정부에서의 승가 조직 및 관리는 한국본부가 주관하는 시스템을 확정하고 10월11일 미얀마 양곤에서 10개국 승왕들이 모이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11월21일 베트남 연방승가회 제8차회의에 초청되어 불교회장 및 회장단들과의 대담을 나누며 우의를 돈독하게 하는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외 미국, 대만 중국 일본을 위시하여 말레지아 인도네시아들과도 건설적이고 유익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앙정부에서는 새롭게 조직을 재정비하여 능력있는 스님들과 재가자를 추천받아 세계불교도들의 법왕이신 우꾸마라 사야도의 재가를 받아 국무위원으로 임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진국 극빈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줄 코리아 기술대학교가 새해에 완공되어 2019년 봄에학교를 개원하게 됩니다. 후진국 극빈 청소년들에게 컴퓨터교육, 한국어,영어 일본어등 어학교육, 자동차 정비, 운전, 미용, 양재, 등 취업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과목을 중점 지도하여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을 가르치는지팡이 역할을 하고자 하여 설립되는 미얀마 양곤시 나인따이야에 건립중인 코리아 기술종합대학에 불제자님들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게 아쉽습니다. 사무량심을 몸소 실천하는 보현보살이 되어주십시오. 두손모아 합장 기원합니다.

학교 이사진, 운영위원, 구성과 학생들을 교육시킬 교육 기능 보시자를 모시여 교육체계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계의 큰스님들과. 각 종단 지도자분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 신영빌딩 303호)
대표전화 : 02-733-5665. 733-5670 / 팩스 : 733-5615 / H · P : 010-3618-6061

일 주 문



푸에르토리코 재난 피해 지원

정우 홍법문화재단 이사장 스님은 구랍 26일 푸에르토리코 허리케인 피해지원기금 3000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겨울방학 직지사 영어캠프

법등 김천 직지사 주지 스님은 1월 5~7일 경내서 초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직지사 템플스테이 영어캠프'를 개최한다.



구산 스님 34주기 추모법회

진화 순천 송광사 주지 스님은 1월 30일 오전 10시 40분 대웅전서 초대방장 구산 스님 34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고운사 겨울산사 수련회

호성 의성 고운사 주지 스님은 1월 5~7일과 19~21일 경내서 각각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겨울산사 수련회를 개최한다.



인도 의료봉사 · 성지순례

심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스님은 1월 18~30일 인도 아삼지역에서 '인도 의료 봉사활동 및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강화불교聯, 지역사회 자비나눔

아동센터 등에 1100만원 물품



강화불교사암연합회(회장 승석, 전등사 주지)는 12월 27일 지역이웃을 돕는 자비나눔행사 일환으로 아동센터 10곳와 독거노인 지원센터 1곳에 총 1100만원 상당의 쌀 · 라면을 전달했다.

강화불교사암연합회장 승석 스님은 "이번 나눔은 조계종 직할교구 지원과 사암연합회 스님들이 마음을 내 준비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경화 비전아동센터장은 "도움을 주신 강화지역 주지스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해주신 정성을 아이들과,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강화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사찰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소외이웃돕기와 학생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에 나서고 있다. **윤호섭 기자**

"중흥위원회 조직해 대전불교 일굴 터"

Interview

신임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 무원 스님



문화불사 중심 지역 소통

차문화축제 · 다문화공연 등

봉축행사 확대로 사회 공헌

"대전불교가 그동안 문화불사에 소홀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듯이 지역사찰들이 힘을 모아 문화불사를 일구고, 대전불교중흥위원회를 조직해 재가불자 결집에 나서겠습니다."

신임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에 천태종 광수사 주지 무원 스님이 선출됐다. 제25대 회장으로 3년간 활동하게 된 무원 스님은 1월 3일 취임식에 앞서 본지 인터뷰를 통해 새해 대전불교 발전 키워드로 '문화불사'와 '대전불교중흥위원회 조직'을 꼽았다.

무원 스님은 문화불사 일환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맞춘 차문화축제와 다문화 공연 등을 구상 중이다. 스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위해 불교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차문화축제를 열고, 레인보우합창단 공연 등을 열어 불자들이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단순히 연등만 다는 부처님오신날이 아닌 다양한 불교문화를 녹여낸 불자들의 광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원 스님은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한 대전불교중흥위원회를 조직해 지역 현안에 관련된 단일화된 불교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스님은 "대전에 드러내지 않고 신행생활을 해오는 불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집해 소통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다 보면 자연스레 지역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대전불교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해 각오를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짧게 대신한 무원 스님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착한 행을 실천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 선행을 이어가면 복덕이 쌓여서 언제 어디서나 행복이 찾아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동굴도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시대와 소통하는 불교문화 대중화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교육에 이르기까지 대전이 부처님 지혜가 충만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사부대중이 동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원 스님은 1979년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 입산해 1982년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금강승가대학과 동국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3급 중대사 법계를 품수했다. 인천 황룡사, 서울 명락사, 부산 삼광사 등 전국 20여 사찰 주지를 역임하고,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등을 맡아 종단행정을 대표하기도 했다. 특히 개성 영통사복원위원회 단장을 맡아 2003년부터 5년간 복원 불사를 실시했으며, 일제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희생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데 일조했다. 이 같은 공로로 대통령 표창, 통일부 · 문체부장관 표창, 2017국가보훈공헌대상 종교지도자 부문 대상, 2017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윤호섭 기자**

대학생 불자 새해 화두 '붓다를 닮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56년차 집행부 구성

새 중앙회장에 양희동 씨

리더십, 실천행 등 제시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는 12월 23일 56년차 중앙회장으로 양희동 씨를 선출했다. 사진 가운데가 양희동 신임 중앙회장.

불자대학생들의 구심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새해 '붓다를 닮다'를 화두로 정진한다.

대불련은 구랍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56년차 대불련 중앙회장 선거'를 열고 제56년차 중앙회장으로 양희동 씨를 선출했다. 양희동 씨는 등록대의원 103명 중 59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58표를 획득했다.

양 신임회장은 "내 안에 불교의 가르침을 담는 과정을 통해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대학생 붓다가 되고자 '불교를 담다. 붓다를 닮다'를 모토로 전국 불자 대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모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회장은 구체적으로 불교를 담기 위해 △通(소통)을 담다. △美(아름다움)를 담다. △불교학생회를 담다를, 붓다를 닮기 위해 △붓다의 실천행을 닮다 △붓다의 리더십을 닮다 △우수지회 활동을 닮다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신임중앙회장 이취임식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백효흠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김성권 회장 및 대불련 지부장, 지회장, 졸업 동문 등 회원 9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고시촌 위로한 산타스님들

자비명상 등 노량진서 취준생 격려



사단법인 자비명상과 '그래도 YES봉사단' 등 봉사자 50여 명도 구랍 25일 노량진 컵밥거리 일대에서 '제3회 산타스님들과 함께하는 자비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스님들과 봉사자들은 노량진 청년에게 '마음 충전 핫팩' 1천개와 컵떡 1천개를 전달하고 자비허그도 함께 진행했다.

마가 스님은 "1.5평 쪽방에서 컵밥을 먹으면서 300대 1의 경쟁을 하는 10만여 취업준비생 청년들이 새해 희망을 갖고 활동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자비나눔 일일 찻집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수익금 기부 차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신도회장 이금석)는 구랍 26일과 27일 전법회관 1층 카페바라밀에서 '자비나눔 일일 찻집'을 개최했다. 이금석 직할교구신도회장은 "추운 날씨에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차를 판매, 이 수익금을 어르신들에게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생명나눔 명예전당 헌액

김제 금불동우회, 26호 이름 올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2월 28일 본부 회의실에서 김제 금불동우회 불자들을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 26호로 헌액했다.

금불동우회는 지역불교발전과 불교인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금산사 말사 흥복사 주지 운봉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창립된 단체다. **박진형 기자**

謹賀新年

佛紀 2562年 戊戌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계율을 잘 지키고 도덕이 있는 이는 모든 하늘을 감동시키며, 천룡(天龍)과 귀신(鬼神)들도 그를 존경하지 않는 이가 없다. (아난분별경)

福

대한불교조계종
삼선포교원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사부대중 일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40
TEL 02)923-0582

(사)대선불교조계종 종정 주석사찰
마 니 사
주지 혜승
사부대중 일동
■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028
TEL 032)937-5579

대한불교천태종
광 수 사
주지 무원
총무 덕련
신도회장 박병호
신도일동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 63번길 26
TEL 042)823-0332 ~ 4

대한불교조계종
법 명 사
(부루나포교원)
cafe.daum.net/ibibu
회주 미광 선일
부설기관
법명선원 해남무량사, 인천포교당 장엄사
법명사108순례단, 인천불교대학,
부루나 선행회, 명상박물관
사부대중 일동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163-22(가좌동)
TEL 032)577-5108 FAX 032)577-8454



“전북교구 도약 함께 이끌자”

태고종 전북교구, 송년법회로 한 해 마무리

무술년 새해에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준비하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정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종도들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전북교구종무원(원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은 구랍 26일 종무원청사 내 영산작법보존회 전승관에서 ‘전북교구 주지총회 및 송년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 영산작법보존회장 혜정 스님, 전법사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도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진성 스님 취임과 함께 전북교구의 발전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종도들의 힘을 모아 전국제일의 교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성 스님은 송년사에서 “전북교구 각 사암스님들과 교임 전법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교구 발전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며 “종도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공심으로 종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전북교구 종무원은 열린 종무행정과 불교전통 교육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상해 놓은 다양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서 진안분원 쌍봉사 보경 스님이 봉사대상을, 임실 · 순창분원 장덕사 청암 스님이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주지총회에서는 오는 2023년 새만금지역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서해 영산용왕대재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2부에는 복지국장 행담 스님의 사회로 탑 밴드 퓨전난타, 색소폰 연주, 초청가수 민정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종도 노래자랑이 열려 흥겨운 잔치 분위기를 연출했다. 참석한 모든 대중에게는 추첨을 통해 크고 작은 경품이 전달됐으며, 도광 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자비의 쌀 500kg을 기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행복공존 문화공간 ‘쿠무다’ 새 출발!

창립 4주년 맞아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 불사 나서

복합문화공간 쿠무다가 창립 4년 만에 새로운 불사 공간을 마련하고 도약을 준비한다. 쿠무다는 창립 4주년 기념식을 맞아 대중에게 미래 문화포교 도량 청사진을 제시하고, 함께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주지 주석)는 구랍 24일 창립 4주년을 맞아 쿠무다 내 카페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지 주석 스님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종교가 공존하는 행복 공존 도량으로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무다는 송정 바다가 보이는 일대에 대지면적 604㎡, 연면적 2376㎡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8층인 불사를 진행한다. 지하에는 명상실과 공연장 등 다목적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며 카페, 문화교육공간, 힐링 프로그램 공간(휴휴정)이 각각 위치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더욱 성장한다는 포부다. 준공 예정 시기는 2018년 10월이다.

주석 스님은 “쿠무다의 존재 이유는 행복 공존이다. 부처님의 전법 활동은 바로 행복을 알려 주시려 한 것이다. 세간의 행복과 출세간의 행복, 두 가지 행복 모두 공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며 “이곳의 이야기와 모습은 복합문화공간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의 작품”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쿠무다 창립 4주년 기념식은 국내 최초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Kon)과 가요 ‘칠갑산’의 주인공 가수 주병선의 무대 그리고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의 북 콘서트로 진행됐다.

바이올리니스트 콘은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주했고 사람들은 다 함께 노래를 불렀다. 캐롤송이 흘러나오고 스님들은 이웃종교를 상징하는 산타와 루돌프 인형을 손에 들고 흔들었다. 종교의 벽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연출됐다.

4년 만에 최고 문화도량 성장
북 콘서트 및 화려한 음악공연
新불사 발표, 힐링 공간 우뚝
“행복 공존 문화도량으로 정진”

목종 스님은 최근 출판한 책 〈구하지 않는 삶의 즐거움〉을 설명하며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역설했다. 목종 스님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하고 갈구하며 행복을 찾아다닌다. 하지만 이미 자신 안에 행복은 있으며 이것을 진여자성(眞如自性)이라 한다. 바로 구하지 않는 즐거움”이라고 조언했다.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의 4주년 기념식. 쿠무다는 창립 4주년을 맞아 지하 2층, 지상 8층의 문화도량불사를 진행 중이다.

행사에 참석한 불자들은 바이올린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환호했으며, 가수 주병선의 무대에선 함께 노래를 불렀다. 참가자들은 이런 공간을 마련해준 주석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했다.

강우숙(61 · 해운대구) 불자는 “연말에 이렇게 행복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준 스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행복한 에너지가 쏟아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하경옥(66 · 해운대구) 불자는 “요즘은 문화와 힐링이 대세다. 오늘 아름다운 음악 무대도 좋았고, 목종 스님의 책 이야기도 듣는 동안 기쁨이 가득했다. 내년에는 새로운 공간을 불사한다는데 꼭 다시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는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종합문화도량을 지향하고, 일반인과 종교를 잇는 다리 역할로 문화 포교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매달 불교 전시뿐 아니라 북 콘서트, 음악 예술 무대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며, 예술전공 학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문화예술 공연과 방송 후원으로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성미 기자

고운사 · 사찰음식협, 포항지진 이재민 위로

구랍 23일, 도시락 식사 대접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호성)와 (사)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회장 도륜)는 구랍 23일 강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사찰음식 도시락을 대접했다.〈사진〉 이날 고운사와 사찰음식문화협회는 포항 흥해실내체육관과 독도체육관을 방문해 약 600명의 이재민들에게 사찰음식도시락을 대접하고 위로했다.



구랍 11일 고운사 1차 급식봉사활동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장 도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협회 회원 20여 명이 동참했으며 밥, 채계장, 사찰식반찬 등으로 구성된 사찰음식 도시락을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외에도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주변청소와 정리정돈 봉사활동을 병행했다.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는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고루한 冬至 옛말, 사찰 ‘톡톡’ 튄다

부산서 민속명절 동지 사찰 이색행사 잇달아

민속명절 동지를 맞아 불공뿐 아니라 다채로운 행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잇달아 열려 눈길을 끈다.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는 구랍 22일 경내 법당에서 장학생 21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은 특히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가 함께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나눔에 동참해 주목을 받았다. 이대호 선수는 원오사가 운영하는 명정장학재단에 매달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학생은 대학생 5명, 고등학생 11명, 동부산대학교 불교동아리 5명이 선정됐으며 총 1200만원이 수여됐다.

인재불사 도량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대학생을 위한 동지 팥죽나눔 행사와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천불정사는 구랍 21일 부산대 정문에서 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팥죽을 나눴다. 이에 앞서 천불정사에서 숙식하며 고시공부에 매진하는 학생과 신도자녀들에게 장학금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전달했다.



부산 각 사찰에서 동지를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프로야구 이대호 선수가 원오사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

고담 스님은 “동지 이후 길어지는 해는 곧 희망을 상징한다”며 “취업난에 허덕이는 요즘 학생들이 팥죽도 먹고 더욱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동지를 맞아 천정산에 오른 학생들도 있다. 지난 6월 환경의 날을 맞아 천성산 내원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명여고 학생들이다. 이 자리에는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도 함께했다.

대명여고(교장 송동영) 학생 20여 명은 구랍 21~22일 천성산 답사를 실시하고 동지불공 및 팥죽의 의미를 배웠다. 아울러 자연보호를 위한 평화의 탑 쌓기도 진행했다. 학생들은 천성산 깊은 골에 위치한 안적암에서 내원계곡을 지나 원효봉 정상을 오르는 1박2일 답사에 동참했다. 내원사에도 방문해 참배하고 동지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익혔다.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은 “2018년에는 천성산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물길을 따라 걷는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자연을 만나는 교육의 창을 천성산에서 열어가고자 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동지 팥죽행사를 진행했다. 삼광사는 구랍 22일 동지 축원 불공을 올렸다. 새벽 3시와 오전 10시로 나눠 진행했으며 1만 명의 시민이 찾았다. 삼광사는 동지를 위해 팥죽 1만2000인분을 준비했고, 부산 서면 영광도서 맞은편에서 전통공연 무대와 소원지 쓰기, 캘리그라피, 캐리커쳐 체험 등을 진행하며 팥죽을 시민들에게 나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근하신년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사정원장 혜관 비구니종무원장 덕산
호계국장 금강 사회국장 성군 감찰국장 자공
교육국장 향광 비구니종무국장 덕심

지장사(광영) 금정사(덕심) 법성사(법룡) 당포사(종철) 칠성암(사우) 운고사(운고)
동방사(법운) 불현사(도명) 용연사(취암) 보문선원(보문) 천광정사(취운) 동방원(법운)
불심정사(혜관) 약불암(혜각) 대왕정사(혜월) 미정사(운선) 미륵정사(미정) 쌍암사(덕산)
칠성암(무설) 무심사(보명) 보우선원(성군) 보광정사(자공) 약불암(무여) 은진정사(고경)
쌍암사포교원(향광) 백련암(문정) 화성암(성화) 극락정사(석도) 금강사(금강) 천운사(선봉)

종단승려, 신도일동

■ 입종 상담 및 접수 안내 ■
① 대상 : 승려 또는 승려나 포교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
② 문의 :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51)514-8766
H·P 010-4983-1494

■ 총본산 / 총무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61 천광정사 (051-514-8766)
■ 사정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9번길 30-8 불심정사 (052-275-5539)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인색한 자는 천상계에 이르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보시를 칭찬하지 않는다. 현명한 자는 보시를 기뻐하며서 그것으로 실로 내세에 안락을 얻는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 묘 방 편 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 법 전 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 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대불 탱화,개금,석불,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제작
이조불교재활용 센타대표
010-9177-7842

불자가정 국제결혼 상담 (초.재혼)
결혼의 조건으로 개종을 서약하는
동남아의 형태, 이교도들 만행을
볼수없어 스님이 직접 중매함.
동남아에 거주하는 스님들 5개국연계
(불교인만가능)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불교인의 결혼을 성사시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사찰과
연계하여 성사시킴
인터넷전화
070-4001-9865

공양주 보살님, 부전스님
모 십 니 다
(경북 울진)
010-2078-9595

기도처, 공부하실 곳이
마땅하지 않으신
비구니스님 누구나.
숙식 무료제공 (5명 선착순)
* 본 사찰에서 기도,
부전스님으로 있을 수도 있음
(상담 후 결정)
010-5212-4533

풍경 좋은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경기 이천)
031-641-6311

비구니 부전스님
모 십 니 다
(부산시내)
010-3525-991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북부지역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사찰입니다.
(건강하시고 용모
단정하신 40–60대)
010-3346-2328

비구니스님, 보살님.
40-50대 방사드림,
1인 1거주 아파트형 25평,
거주비 무료, 임대가능.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분,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
(양산 통도사 부근 산사사찰)
010-4640-4747

命理學. 실전통변비법
命理學 & 神通術 (스님직강)
기초반, 실전반 모집 (1:1 맞춤 개인교습)
칠성사 부설, 칠성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010-8427-6199. 070-4643-6199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좋은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최면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면.
우리들의 내면에 빙의 (신들림)나 우울증, 어깨통증 환자를
비롯해 많은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여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 최면 치료는 재발이 없습니다.
새로운 심리치료로 재발이 없습니다.
최면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강의 : 3개월 (일주일 3시간 / 목요일 오후 2 ~ 5시)
한국임상최면학회 회장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 교수
052)227-7044. 010-4844-7002
홈페이지 www.hypnosis.or.kr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사 찰 행 사 전 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수 인 작 법 사 주 팔 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2)918-5554.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 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사단법인에 등록된 단체 및 사암만이 기부금 행위 등 종교활동을 인증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 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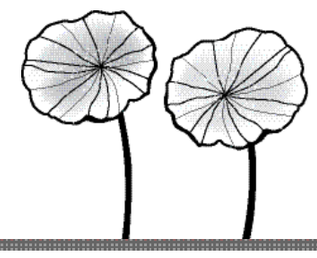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조그마한 착한일이라도 소홀히 말라.
방울물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나니이
세상의 큰 행복도 작은 착함이 쌓여
서 이룬 것이다.

– 법구경 –



양평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한옥식법당. 한옥요사채 등.토지2,700㎡
- 깨끗하고 아담한사찰.
- 양도12억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펜션 및 장기요양 안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는분, 암등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따뜻한 남쪽나라 남해 자연 치유마을 황토 구들장 팬션으로 오세요!
전통재래 구들장으로 지어진 뜨거운 방에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시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상길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 하십시오.
장기요양 하실분 환영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남해여행닷컴" 네이버 · 다음에서
"황토구들장 펜션" www.구들장팬션.kr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영험하신 도안스님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 연락처 010-9036-2131)
자연 치유마을 황토구들장펜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81번길 23-32
문의전화 : 010-6260-3915 / 010-5352-924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수도권
◎ 대지 : 200평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요사 : 30평외 ◎ 요사 : 60평
◎ 매가 : 28억 ◎ 매가 : 26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양평 사찰(급) 안내
- 이층법당.1층요사채
- 토지 370㎡, 위치좋음.
- 마을사찰. 운영잘됨.
- 20년운영한기도도량.
- 양도가액7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103-35호 서울에서 1시간거리 감곡IC 10분거리 2018년 전철개통 예정
- 대지 184평, 답 290평 전체 474평
- 삼존불외 약사 여래불 약사기도원 모두 목불부처님, 아미타불, 관세음불, 지장불 약사여래불 삼성각 약사여래기도 도량
- 지하대공 116m, 황토방 건물 약 60평
- 전체 몸만 오시면 됨, 완벽함, 모든것 일체, 남골부지 포함
- 가액 : 2억 3천

010-6674-1356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거리)
- 사찰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4천 8백 만원

010-7295-12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 입주, 몸 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20년된 포교원
- 위치: 부산 수영구 대단지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전통시장 번화가 횡단보도 정면
- 평수: 30평, 방2, 공양간 삼존불(동불) 소불, 인등 비품 보시고 결정 몸만보시면 됨주지소임관계로 급 안내
- 가액 : 2천만원, 월 35만원

010-6767-7193

암자(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마곡사 근처
- 면적 100평
- 특징 : 큰 스님 공부하셨던 아담하고 예쁜 암자
- 조용한 토굴
- 가액 : 1억원

010-3566-0385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화장실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5천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 기타)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정도 임)

연락처 010-8697-2251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포교원 안내
- 위치 : 불교 고장 김해 부득이 임대하고저 합니다
- 큰 대로 옆, 건물 65평
- 방사 3칸, 공양간 1칸 화장실 남, 녀 각1개, 주차완비
- 아미타 삼존불, 천수관음 포대화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절충가능

010-7702-6296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땅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 의료관광 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2억 1천) 안고

010-9906-3631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주택, 대지 37평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 상가 : 4층, 5층, 평수 70평
- 층수 : 4, 5층 법당 및 요사채
- 가액: 전세 1,500만원, 월 80만원
- 현재법회 중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비품 등은 보시고 협의하여 결정

010-3305-531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주거 또는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평수 230평, 건물 30평
- 계곡물 사시사철 흐릅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8943-141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010-3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 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5019-5385

암자기도도량 안내
- 위치 : 조용하고 아늑한 지리산
- 계곡 기도도량 총 387평
- 법당 1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양도가액: 토지316평 7천만원 전세 : 3천만원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길 99-30 (약사암)

연락처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번지
- 종교부지 총 370평
- 법당건물 총 29평반(단청완료)
- 화장실3평, 기와집, 산신각5평 요사채25평, 종무소 18평 요사채 공양실 20평, 기타창고 10평 (각 보르크 판넬 기와집 1동)
- 가액 : 4억 8천

010-2591-4736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 8백 평
- 가액: 1억 8백만원

010-2016-6281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87-25
- 시장을 끼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 주지스님이 일본가시는 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자 합니다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2천, 월 100만원

010-3709-116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물금역2길 16 (물금리 387-15번지)
- 물금역 도보 3분거리
- 2층건물 2층 38평
- 가액:보증금 2천만원 월세 35만원
- 시설비 1,300만원 (불단특 A급)

010-5659-0898

토굴 분양 안내
- 총 7개동(내부시설 완벽) 1개동 대지면적 47평, 건물면적 10평
- 분양가7500만원(부동산4000,동산3000)
- 남해바다.산.사찰. 풍광이 어우러진최고의 명당
- 황토구들장구조 • 위치에 분양가 조정됨
- 경남 남해군남면홍현리 581-2(무지개로 81번길23-34)

연락처 : 010-5352-9245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석정읍(구미공단)
- 낙동강 전망(최고의 기도처)
- 구미공단인근
- 부지: 538평,건물: 2층 120평 2층 : 법당, 1층: 요사채
- 가액 : 12억 5000만원

010-3532-712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동 (아양교 지하철 100미터거리)
- 3층 건물 중 2층
- 법당 50평, 삼존불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시설비 3천만원 답사후절충

010-9823-5890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도로에서 등산로 20분(950m)
- 법당1, 요사채3, 황토집4동
- 종교용지 전답 800평 (깊은산골 청정도량)
- 가액 : 1억 8천(조정가능)

016-614-0066

포 교 원 안 내
- 관세음 보살 신중탱화
- 상가지역 1층
- 사당역 2분거리 이수역 4분
- 에어컨, TV, 냉장고
- 가액 : 오백에 삼십오만원 시설시 오백

010-4385-1234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010-4953-172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639
- 대지 : 323.97㎡
- 1층 요사채 21.4평 대웅전 21.4평
- 즉시 법회가능 시설완비
- 가액 : 8천 9백

010-3717-5316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나도 불기2562(2018)년에는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국제포교사"가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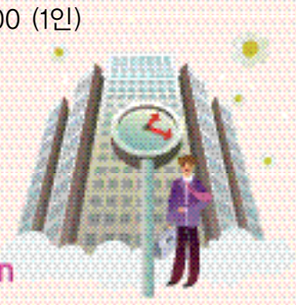
국제포교사란?
우리 불교를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일어, 중어, 불어,…)로 알리는 포교사.

국제포교사가 되는 길은?
국제포교사 자격고시 (필기, 2018. 2월 3일)를 보고, 6개월간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최종 면접고시 (2018. 8월 중)에 통과한다. (원서접수 : 2018. 1. 2 ~ 1. 12일)
(조계종 홈페이지 – 불기2562(2018)년도 제23회 국제포교사 선발 자격고시 시행 공고–참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은?
3월 ~ 9월, 매주 수요일 (19:00 ~ 21:00), 토요일 (13:30 ~ 15:30)에
집중강의(불교 교리, 역사, 문화 등), 사찰 수련회 2회 (사찰안내, 다도, 참선, 예불집전 등 실습), 기타

국제포교사 자격고시(필기, 2018년 2월3일) 대비 특강(8회) 개강
최고의 강사 + 족집게식 강의! 100% 합격 목표!
토요일 오후 13:00 ~ 17:00 (4시간) 종로 조계사 옆 전법회관 강의실

■ 수 강 료 : 100,000 (1인) ■ 48기 기초불교영어 수강생 경우 : 70,000 (1인)
■ 국민은행 023501-04-066239 국제포교사회
기초불교 영어강좌 수업 – 매주 토요일(10:00~12:00), 연중 운용
■ 문 의 : 국제포교사회 02-722-2206, 010-4284-2206,
idia.seoul@gmail.com



International Dharma Instructor's Association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승 일동
국 군 불 교 총 신 도 회 일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83호 국방부 원광사 內
전화 02)797-7266 www.gunindra.com



日오사카 호텔도 '템플스타일'

와쿠 · 시모데라마치 호텔, 관광으로 포교 활성화

일본 전통 '슈쿠보' 모티브
사찰과 유사한 인테리어 및
아침 예불 등으로 인기 UP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템플스테이형 호텔 전경

음식과 쇼핑의 도시 오사카는 일본서 최초 불교사원이 세워진 곳이자 일본 전역에서 두 번째로 사찰이 많은 도시다. 그런데 이 오사카에 오랜 불교 역사를 계승한 '템플스테이형 호텔'이 생겨 화제다.

일본 언론 '라이풀 홈즈 프레스(LIFULL HOME' S PRESS)'는 오사카에 템플스테이형 호텔 '와쿠 · 시모데라마치(和空 · 下寺町, 이하 와쿠호텔)'가 생긴 이례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영업중이라고 12월 14일 집중보도 했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사찰에는 '슈쿠보(宿坊)'라는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이 묵는 숙박시설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슈쿠보는 평균 1일 숙박 당 1만엔(한화 약 95,000원)이라는 비싼 값에, 절의 엄한 규율을 따라야 한다는 '불편한 고급 숙박시설'로 변모됐다.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이에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템플스테이형 호텔은 이런 배경 가운데 나왔다. 불교문화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슈쿠보와 몸 ·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현대 숙박업의 개념을 혼합한 와쿠호텔이 지난 4월 개업 후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와쿠호텔이 있는 시모데라마치 지구는 한 동네 안에 80여 개의 크고 작은 사찰들이 모인 사찰밀집지역이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린 와쿠호텔 외관은 일본 전통 가옥양식서 모티브를 따 건축됐다. 로비에는 다기와 향로가 놓인 작은 다실이 있으며, 곳곳엔 불화와 사찰 건축을 이용한 오브제들로 인테리어가 돼있다. 이 외에도 전통 이불을 활용한 침대, 다다미가 깔린 객실 등 사찰 내실의 느낌을 주도록 인테리어 돼 있다. 또한 식사는 모두 사찰음식으로 제공되며 호텔의 가운도 승복을 모티브로 만들어 졌다.

호텔서 제공되는 석식을 먹은 후엔 인근 사찰서 스님이 와 사경 · 사불체험을 지도한다. 숙박객의 요청에 따라 개인 상담이나 법문을 해주기도 한다. 특히 매주 금요일은 좌선체험이 이루어지는데 숙박객이 아니라도 참가비를 내고 체험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진행되는 아침 예불은 자유참가로 희망하는 사람은 7시에 로비에 모여 함께 근처 사찰로 이동한다. 사찰서 30분간 예불을 모시고 간단한 법문이 진행한다.

와쿠호텔의 총대표 타사시 시노부(田代忍)는 "관광도 포교의 좋은 방법"이라며 "이런 관점서 우리는 특별한 사찰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슈쿠보를 찾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슈쿠보의 활성화와 현대적 신설을 위해 만든 첫 번째 호텔이 이곳이다. 앞으로도 인근 사찰들과 협력해 지역 관광 진흥을 함께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와쿠호텔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호텔 건설 계획이 처음 알려졌을 땐 주변 사찰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호텔이 입지한 텐노지구(區)는 일본 최초의 사찰인 천년고찰 텐노지(天王寺)가 위치한 지역. 끊이지 않는 참배자와 관광객을 이용해, 사찰과 출가자를 관광영업상품으로 쓰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호텔 측의 끈기 있는 설득과 설명이 점차 사찰들의 마음을 열었다.

와쿠호텔에 아침예불 장소를 제공하는 아이젠도(愛染堂)의 주지 야마오카 타케아키(山岡武明)스님은 "이 지구가 관광지이긴 하나, 불교신자들에겐 신앙의 중심지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절에 찾아오는 신자들만 보고, 타지인이나 일반 관광객을 직접 접하는 일은 적었다"며 "혼자서 예불을 할 때는 15분 정도로 끝냈지만 와쿠호텔의 숙박객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자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불기를 정성껏 닦고, 향이나 공양을 올리는 것도 한층 더 신경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전했다.

야마오카 스님은 아침예불 후 감동 받았다는 숙박객들에 영향을 받아 이른 새벽의 예불 시간을 아침으로 조정하고, 새롭게 범패나 법고를 사용하는 등 구성을 새로이 했다고 한다. 또한 아침 예불에서 나오는 질문이나 법문을 생각하다 보니 실제 수행과 포교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와쿠호텔 숙박객의 3할은 외국인이다. 대부분 중국과 대만의 단체관광객이지만 영미권의 개인 여행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총대표 타시로 씨는 "외국인들은 사경용지에 먹이 스며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로비의 다실이나 법복과 비슷한 가운을 입고, 사찰요리를 먹기 위해 젓가락을 드는 것까지, 모두 체험으로 느낀다. 다들 크게 만족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외지인들이 조용한 마을로 몰려들고 점점 경제가 활성화 되자 지역사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7월엔 와쿠호텔 앞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고, 오사카의 다른 관광명소와 연계되는 버스노선이 새롭게 만들어 졌다. 2019년 봄에는 세계문화유산인 호류지(法隆寺)와 연계해 2호점이 신설 예정이다. 또한 이를 프로젝트로 만들어 전국 각지에 동일한 컨셉의 호텔이 생겨날 예정이다. 사찰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사찰과 사람들 간의 인연을 묶는 새로운 실험의 등장에 앞으로의 전개를 일본 불교계가 주목 중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크리스마스 말고, 보디 데이!

〈bodhi day〉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12월이면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12월에 대표적인 불교 명절은 없을까? 미국 언론 '더 스탠다드'가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외에도 여러 종교 명절이 있다"며 불교의 '보디 데이'를 12월 26일 소개했다.

보디 데이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불교의 휴일이다. 한국에서는 기념하지 않지만 일본과 중국 등에서는 대부분 기념식을 한다. 종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기념하며,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노래한다.

'보디 데이'는 대부분의 국가서 12월 8일에 기념한다. '더 스탠다드'는 "이 날은 부처님이 여러 해 동안 극도의 금욕행을 실천하고, 보리수 나무아래 앉아 명상을 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크리스마스에 필적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진형 기자


사진출처=월드데이츠

2차대전 평화 발원 콘크리트 범종 '환지본처'

전쟁 당시 콘크리트 범종 발견
공출된 범종 대신 종각 보호용
시민들 요구에 사찰로 돌아와…
평화 발원 발원문도 새겨져 있어

2차 세계대전 중에 공출된 범종을 대신하여 종각에 걸렸으나 분실됐던 일본 콘크리트 범종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18일 일본 아이치 현 '츄니치 신문(中日新聞)'은 전쟁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콘크리트 범종 이야기를 12월 18일 보도했다. 일본 사찰선 종의 무게로 종각의 무게중심을 잡는다. 그런데 전쟁 당시 종이 공출되면서, 종각의 보호를 위해 조성된 것이 콘크리트로 된 범종 모형이다.

아이치(愛知)현 이누야마(犬山)시 소재 간뉴지(願入寺)는 1683년에 주조된 종을 가지고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금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출됐다. 범종이 공출되고 종루의 균형이 흔들려 붕괴의 위험성이 올라가자 당시 주지였던 故토쿠류(德龍) 스님은 높이 3m, 직경 80cm로 콘크리트 범종을 조성해 매달았다. 현 주지 치다츠(千龍) 스님은 "콘크리트 범종은 여러 절에 있었지만 전쟁 후에 대부분 폐기해 버렸다. 가끔 남아있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콘크리트 범종 이미지 사진.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새로운 종이 걸리고 그간에 걸려있던 콘크리트 범종은 행방이 묘연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절 근처 강가의 사당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 마을 소식지에 이야기가 실리고 종을 다시 간뉴지에 돌려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절에서 종을 수습하여 다시 경내에 안치했다.

현재 종각에 달린 종은, 징병되어 만주에서 전쟁의 참상을 보고 돌아온 전대 토쿠류 스님이 1949년에 조성한 것이다. 새로 조성된 종에는 '제 2차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올바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붙여 종을 병기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본래 무리한 전쟁이었기에 일본은 패배했다. 바라건데 평화의 음성이 시방에 울려 모든 생명들에게 흐르기를' 이라는 평화 발원문이 새겨져 있다.

치다츠 스님은 "시대를 말해주는 종 두 개가 모였다. 인연이 중한 만큼 소중히 여기려 한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불교 영화다"

라이언스로어 12월 20일 주장

글로벌 흥행 수익 16억 달러(한화 1조 7189억 원)로 전망되는(12월 28일 기준) 영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가 불교를 테마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미국 불교 전문지 '라이언스로어'는 12월 20일 영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가 중도, 업 등의 불교적 주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언스로어'는 이 영화가 힘의 균형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어두운 면이 강해져 빛을 가려 군대는 균형을 잃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악한 기운을 파괴코자 한단 것이다.

하지만 "명(明)이나 암(暗)어떤 것도 분리 · 제외하지 않고 통합된 하나의 존재로 보기도 했다"며 "선과 악을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언스로어'는 이는 불교 중도의 관점이라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을 윤회에 빗대기도 했다.

또한 주인공이 과거 행동에서 오는 현재 부정적인 상황의 결과를 견디는 것, 힘든 일이 있을 때 과거를 회상하는 것 등에서 불교의 업과 인과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한다. '라이언스로어'는 "이 영화의 자아는 실체가 없고, 존재의 본성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과보를 받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것. 이는 업의 기본관념과 상통하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마스터 요다는 불교의 선사를 떠올리게 하며 욕망에 집착한 아나킨은 결국 어둠의 군주가 된다고 덧붙인다. '라이언스로어'는 "스타워즈 시리즈는 항상 불교를 다뤘다"면서 "하지만 이번 '라스트 제다이' 편이 가장 불교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불교의 의미를 찾아가며 영화를 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진형 기자

直指寺 祖室 暎虛堂 綠園大宗師 永訣式 奉行에
대한 감사의 말씀

저희 第8教區 本寺 直指寺 祖室이신 暎虛堂 綠園大宗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불기 2561(2017)년 12월 27일 永訣 茶毘式을 大韓佛教 曹溪宗 宗團葬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遠路에 저희 祖室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신 종정 예하, 원로의원, 총무원장 스님 등 宗團의 元老 大德 스님들과 제방의 스님을 비롯한 四部大衆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큰 스님의 遺志를 받들어 더욱 修行 精進하겠습니다.

불기 2561년 12월 27일

49재 추모일정 〈매주 금요일〉

초재	17년 12월 29일
2재	18년 01월 05일
3재	18년 01월 12일
4재	18년 01월 19일
5재	18년 01월 26일
6재	18년 02월 02일
7재	18년 02월 09일

■ 문의 및 연락처
직지사 종무소 ☎ 054-429-1700 Fax 054-436-3174
직지사 재무실 ☎ 054-429-1713~14 Fax 054-433-8600

大韓佛教曹溪宗 第8教區 門徒 一同 合掌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불기 2562(2018)년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팔공총림동화사 방장 진제 법원

주 지 능담 효광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 (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TEL : 053)980-7900 / FAX :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회 주 중화 법타
관 장 송천 돈명

www.eunhae-sa.org

◆ 학교법인 동곡학원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054)333-3431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 팩스 054)335-0293

주 지 운곡 돈관
종무특보 성화주안성본능원국
기획국장 법정용혜진성혜석선
교무국장
재무국장
사회국장
호법국장
포교국장
연수국장
도 감



사부대중일동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 실 현봉근일
회 주 송암혜승
동 당 원조각성
주 지 남전호성
대학원장 등현

부주지 등운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성공 교무국장 명인
호법국장 정우 사회국장 등안
포교국장 동우 재무국장 두현

고운노인요양원원장 석우
의성노인복지관관장 선주
영주장애인복지관관장 도선
사찰음식체험관관장 원해
연화마을관장 구견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유형
안동장애인복지관관장 변만호

사부대중일동

프로그램형, 상시형, 휴식형
언제나 누구든지 템플스테이
화엄문화템플관(템플스테이) 054)833-6933

사찰음식강의 · 청국장 · 두부만들기체험 사찰음식체험관
사찰음식체험(054)834-2324
화엄승가대학원 (054)832-6936
매월첫째주 토요일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구계리 116) (www.gounsa.net)
☎ 054)833-2324 FAX 834-6935 • 사찰음식체험관 ☎ 834-2324

유가종찰 · 미륵성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 실 태공 월주
회 주 금산 도영
주 지 자산 성우

총무원 혜
기획 화평
교무 응묵
재무 혜오
사회 덕림
법 원성
포교 구담



신도회장 이근재 외 사부대중 일동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 엄 사

주지 덕 문

화엄사 신도회 일동

■ 화엄사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 정초철야 신중기도를 24시간 일주일간 진행합니다.
[날짜 : 양력 2월 18일 ~ 24일]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종 무 소 061) 783-7600
기도접수처 061) 782-0011
홈페이지 www.hwaeomsa.com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 당 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 철 야 용맹정진	·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용맹정진	·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 재가불자 참선결제	· 동안거 결제 음.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제 음. 2월 15일 ~ 3월 29일 ·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 산 철 결제 음. 8월 15일 ~ 9월 30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전송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

근하신년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호거산 운문사

운문사 회 주 명성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운문사 주 지 진광

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신원리 1789) 전화 054)372-8800 전송 054)371-0359 www.unmunsa.co.kr

근하신년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우리말 금강경
특별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 (구산동) ☎ 02-356-2001 Fax 02-359-6297



근하신년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봉국사

주지 월서
사부대중일동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14 전화 02)919-0211 팩스 02)919-0216
www.bongguksa.com



근하신년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관음성지 휴휴암

사부대중일동

양양 휴휴암 배
강원 주니어리그
바둑대회

제1회 휴휴암 배 강원주니어 바둑대회가 2017년 7월 9일 휴휴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2회는 강원 강릉고등학교에서 열렸고, 홀수 달마다 총 6회에 걸쳐 휴휴암 주최로 2018년 5월까지 바둑대회가 진행 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TEL 033-671-0093~5
FAX 033-671-0525



謹賀新年

정유년 한해 묵묵히 불법홍포를 위해 애쓰신 전국의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중앙신도회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신도조직화를 통한 불교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바라며, 온 세상이 상생 화합하는 한해가 되고 불자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이 기 흥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역대이사장 제1대 동헌 완규
제2,9,10대 금하 광덕
제3,4,5,7,8대 자운 성우
제6대 고암 상언
제11대 불심 도문
제12대 가산 지관
제13대 서해 홍교
제14대 선효 성학
제15대 장산 도업
명예이사장 봉안 효경

현재 임원 이 사 불심 도문, 봉안 효경, 서해 홍교, 선효 성학, 장산 도업, 서주 태원, 금아 혜국, 장산 성춘, 무심 보광, 벽암 지홍, 월천 혜총
감 사 월암 덕상, 대해 일광
용성문도회 회장 경선
대각회분원 회장 지암
법안정사 종무실장 지선 안향호
대 각 회 사무국장 보관 김형문
간 사 정안성 장유경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목동 법안정사 · 횡성 대각정사 주지 혜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Tel. (02) 765-2701, Fax. (02) 741-1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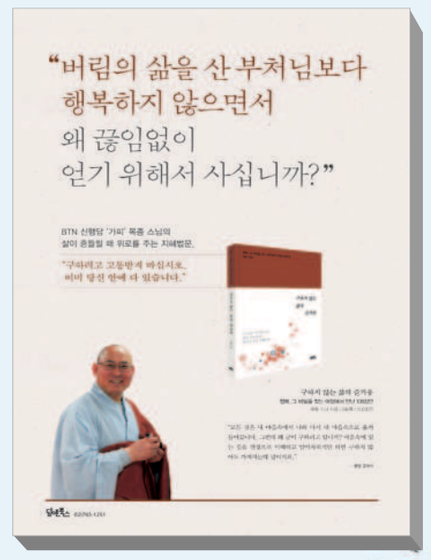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 광 명 불 교 대 학
해운대백병원
주 지 목 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로데오아울렛 3층)
TEL 051)742-7610
FAX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관음기도염불소리 끊이지 않는
관음기도 영험도량 천태종 삼광사
주지 김세운 스님 총무 구성해 스님 교무 이도각 스님 재무 손무성 스님
사부대중 일동 합장
• 정기법회 : 매월 1일, 2일 오전 11시 • 일요정기법회 : 매월 세 번째 일요일 오전 11시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www.samkwangsa.or.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EL 051)808-71111~6 | FAX 051)803-1332



해운대 해운정사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주 지 도 무
신도회장 박대성
사부대중 일동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전화 : 051) 746-2256 / 744-4812 홈페이지 : www.seon.or.kr

謹賀新年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佛母山 聖住寺
회주 흥교 스님
주지 원종 스님
사부대중 일동
성주사 템플스테이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 (천선동 102)
TEL 055) 262-0108

한마음선원은 생활 속 마음공부를 통해
나와 가족, 사회와 세계가 공생하는 진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시켜 가는 생활 참선 수행도량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전화 (051)403-7077 팩스 (051)403-1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전화 (051)403-6701 www.한마음유치원.kr

마음-훈련

노먼 피셔(젠 프리스트)

〈3〉 역경을 길로 전환하라

삶 속 모든 것이 수행… "멈춤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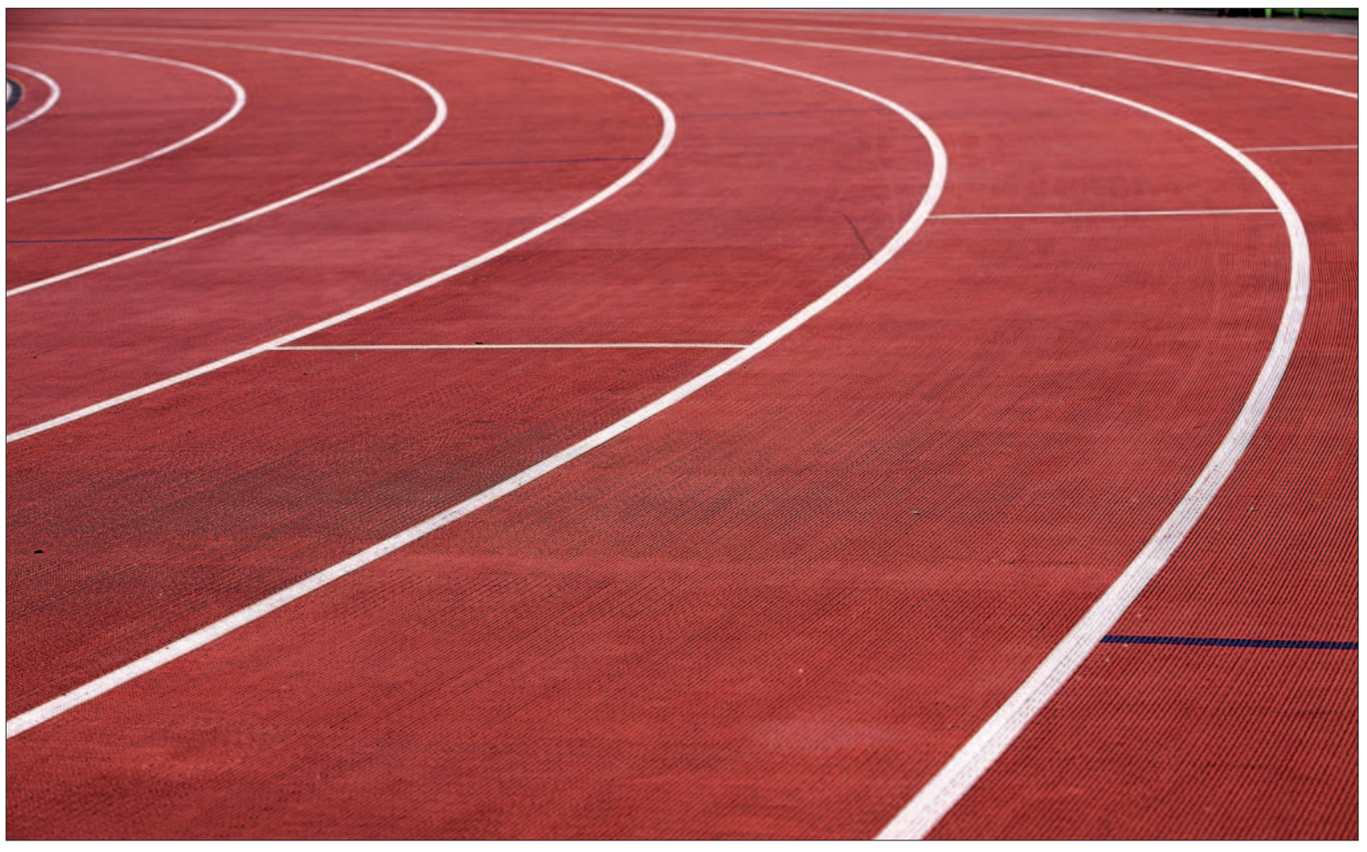
선불교의 오래된 격언에 '온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 있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일상적이거나 관습적인 시각으로 보는 세상은 (적어도 선사들이 보여주는) 세상의 실제 모습과 완전히 반대라는 말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다. 옛날에 나무 꼭대기의 독수리 둥지에 앉아 참선을 해서 '새둥지 스님'이라고 불리는 한 선사가 있었다. 바람이 한번 세게 불거나 깜빡 졸기만 해도 끝이기 때문에 이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이 아슬아슬한 수행으로 그는 매우 유명해졌다. 송대의 시인(이자 고위관료)이었던 소식(蘇軾)이 어느 날 그를 찾아와, 선사가 참선 중인 까마득한 나무 밑에 서서 그를 올려다보며, 대체 무엇에 홀렸기에 이렇게 위험하게 사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다. "그대는 이게 위험하다고 보는가? 그대가 하는 일이 훨씬 더 위험하오!" 죽음, 무상, 상실과 고통을 무시하고, 우리 모두가 습관적으로 그러하듯이, 마치 그것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사는 길인 양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실제로는 나뭇가지 끝에 올라앉아 참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어려움을 피하려는 노력은 비록 자연스럽고 이해할 만한 일이긴 해도 실제로는 무용하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불행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편이 그로부터 도망치려 노력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는 삶의 곤경에 음울하게 집중하라는 뜻이 아니다. 가장 순조롭게 행복에 가까이 가는 방법일 뿐이다. 이 요점이 다루는 주제는 바로 삶을 불행하고 두렵고 협소하게 만드는 근본적 태도인 불안과 두려움과 편협이다. 이 세 번째 요점에는 여섯 개의 경구가 있다.

'모든 난관을 길로 바꾸어라.'
'모든 원망을 한 곳으로 돌려라.'
'모두에게 감사하라.'
'혼돈을 부처로 보고 공(空)을 수행하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며, 네 어리석음에 감사하고, 도움을 간구하라.'
'네가 마주치는 모든 것이 길이다.'

모든 난관을 길로 바꾸라는 경구는 언뜻 완전히 불가능한 일처럼 들린다. 힘들거나 나쁜 일들, 상실, 장해, 좌절, 모욕이 닥쳤을 때 모두가 그러하며 언제나 그래 왔듯이 우리도 자연스럽게 곤경악이나 분노나 실망이나 억울함을 느끼지만-이제는 경구들을 가지고 자신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 경구들 또한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 이 모든 것을 길로 바꾸라고 이 경구는 말한다. 물론 이는 훈련을 요한다. 경구를 떠올리며 매일 앉아서 명상한다면, 이를 받아 적고, 하루에 몇 번씩 되뇌고, 성찰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마음과 가슴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미래에 지닐 마음의 습관은,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정면으로 불행 마주하는 건
곤경에 집착하라는 뜻 아냐
실제 일어났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회로 나를 다지는 일

모든 원망을 한 곳으로 돌려라. 이 또한 직관에 완전히 반하며 완전히 거꾸로 가는 말이다. 이 경구가 말하는 바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원망을 다른 누구도 무엇도 아닌 오직 나 자신에게 돌리라는 것이다. 원망을 먹어 치워라, 그러면 바로 그것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경구는 자신을 원망하라고 권고하는 것 같지만, 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은 벌어진 일에 대해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는 뜻이다. 불평하고 투덜대는 인간의 오랜 습관을 뚫고 나아가, 그 모든 것의 반대편에서 모든 상황을 길로 바꾸는 힘을 발견하는 엄청난 수행이다.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다음 순간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달리 갈 곳이 없다.

모두에게 감사하라. 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하다. 내가 사는 내내 단 하루도, 단 한시도 빠짐없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내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니고 있으며 내 삶에 우정과 사랑과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와 수고 덕분이다. 타인들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를 수련하는 것은 심오한 이해를 배우는 일이다. 이는 일상에서 감사할 줄 아는 감각을, 모든 마음가짐 중에 가장 행복한 마음가짐을 갈고닦기 위한 것이다. 불행과 감사는 절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감사함을 느낀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앞의 세 구절은 상대적 보리심의 경구들이다. 즉 이 경구들은 존재에 대한 통상적 이해-자신과 타인, 너와 나, 그들과 우리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간다. 즉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회로서 인식하고, 온전한 책임감으로 수용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마주치는 모든 것이 길이다

혼돈을 부처로 보고 공(空)을 수행하라는 일상의 인간적 혼돈, 저항, 고통, 두려움, 슬픔 등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다르게 놓는 법을 수행하라는 뜻이다. 이런 감정과 반응이 마침내 사라져 이로부터 놓여나기를 바라기보다, 그것들을 더 깊은 차원으로 끌어들이라는 것이다. 그것들의 근본적 실재를 보라는 것이다. 잠시 비난과 욕망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의 근본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 시간의 흐름을 볼 것이다. 현상이 변화함을 볼 것이다.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탄생하고 소멸함을 볼 것이다. 매 순간마다 시간은 달아나고 현상은 변화한다. 자기 일상의 인간적 문제들을 실제의 탄생과 실제의 죽음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바로 이 경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고통과 절망과 혼돈의 순간이 바로 부처의 순간이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사실의 심오함과 아름다움과 기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며, 네 어리석음에 감사하고, 도움을 간구하라. 첫째, 선을 행하라. 긍정적인 일을 하라.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미소 짓고, 생일 축하한다고, 애도를 표한다고, 도와 드릴 일이 있느냐고 말하라. 이를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이런 말을 할 때 거기에 실제로 의미를 담기 위해, 나와 똑같이 실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공감하는 감각을 계발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며 실제로 무엇을 느끼거나 느끼지 않는지를 예민하게 의식하기 위해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선을 행하는 것에는 경전 낭송, 공부, 명상, 영성 단체 기부 등의 활동들도 포함된다. 종교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 모든 의식적이고 긍정적인 행동들은 덕을 낳는다.

'온갖 악을 끊는 것'은 모과 말과 마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언제 자신이 해롭거나 나쁜 것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지를 의식하라는 뜻이다. 또 경구 뒷부분의 두 가지 수행은 전통적으로 악한 혼령(수행을 계속하려는 결심을 방해하는 존재)과 호법신(수행에 정진하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라는 두 피조물에 대한 공양과 관련되어 있다. 공양은 인도-티베트 불교에서 중요한 수행이며 선불교에서도 그렇다. 일반적으로는 의식 때와 매일 예불을 드릴 때 공양으로서 향을 올리고 경문을 왼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는 이런 수행을 좀 더 넓게 이해하는 편이 낫다.

악령에게 공양하기는 '내 어리석음에 감사하기'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나약함을 향해, 자신의 광기를 향해, 자신의 저항을 향해 절하라. 자신이 그것들을 지녔음에 기뻐하고 그것들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를 길들이고 잘 달래어 선한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감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내면의 악령에게 공양하고, 자신의 우매함에 익살스럽게 감사할 줄 아는 감각을 기른다.

호법신에게 공양하기. 우리는 자신이 믿거나 믿지 않는 여하한 힘을 향해 도움을 간구한다. 어떤 신이나 하느님을 상상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자기 자신과 우리가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들 너머로 손을 뻗어 영적 사업을 위한 도움과 힘을 청할 수 있다. 기도는 강력한 수행이다.

네가 마주치는 모든 것이 길이다. 좋든 나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를 영적 수행의 일부로 삼아라. 영적 수행-이는 곧 삶 자체이기도 하다-에는 중단도 없고 오류도 없다. 여러분은 자신이 수행의 실마리를 잃었다고, 그 전까지는 꽤 잘 따라오다가 삶이 바쁘고 복잡해져서 그만 하던 일을 놓쳤다고 여길 수 있다. 이에 당황하고 후회하면, 그 감정이 스스로를 좀먹어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리고 자신이 애초의 훌륭한 동기로부터 아주 멀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다. 일단 수행을 시작했으면 당신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 모든 것이 수행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신이 명상을 잊고 자신의 영적인 생각과 훈련에 유의하기를 잊은 채 며칠, 몇 주, 몇 달, 몇 십 년, 평생을 보내더라도 말이다. 그때도 당신은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다. 이를 놓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구를 수행하고, 외우고, 반복 또 반복하고, 명상 중에 떠올리고, 냉장고에 붙여 놓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정신을 딴 데 팔았고 애초의 훌륭한 동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구제불능의 게으름뱅이며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타락했다고 아무리 여기든 간에-심지어 그때도 나는 길 위에 있으며 이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을 길로 바꿀 책임과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마음-훈련 미친 세상에서 평온하게 살기 위한 59가지 매뉴얼〉(도서출판 팡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International Seon Center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 주지
양천불교연합회 회장 탄웅

사부대중 일동

도심 속 행복한 기도수행도량, 국제선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67 | TEL 02)2650-2200 | www.seoncenter.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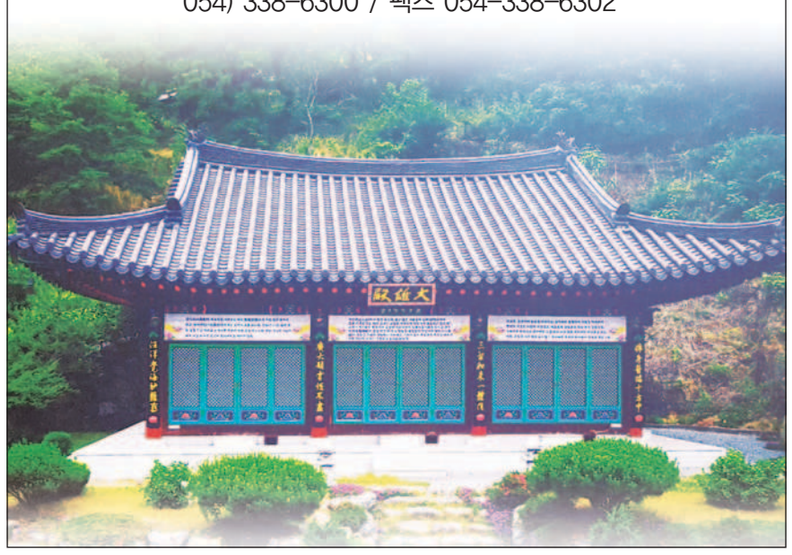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본사

정 림 사

종 정 보 명
총무원장 혜 법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주길 253-46
054) 338-6300 / 팩스 054-338-6302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해 운 정 사

주지 청명

청명노인복지센터

육재일 법회안내
(음) 1월 초하루 (음) 15일 보름
(음) 7일 아라한재일 (음) 18일 지장재일
(음) 8일 약사재일 (음) 24일 관음재일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2동 1928-13번지(송현2길 35)
053-621-6237 / 010-3191-6237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참선과 자비도량 참법 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안 흥 사**

주지 선웅

■ 경북 경산시 상방동 71번지
전화 053)815-4030 FAX 053)814-5142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홍기종합건설(주)

대표 황동열

문화재수리업 토목건축공사업

■ 경남 김해시 칠산로 511-46(풍유동)
TEL 055)329-2597~8 / FAX 055)329-2596
E-mail : munhwajae2597@hanmail.net
웹하드 ID : hk2597 / PW : 3333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

■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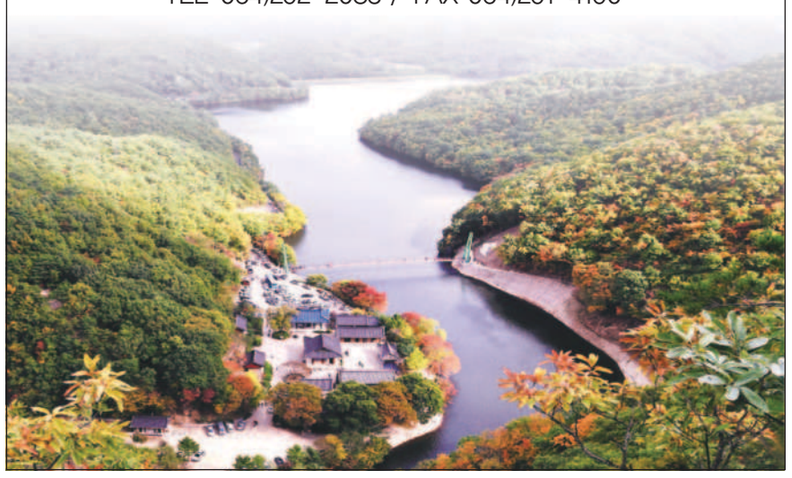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오 어 사

주지 각 원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1
TEL 054)292-2083 / FAX 054)291-4190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희망과 나눔을 함께하는

영천불교연합회

회장 태관

회원일동

■ 경북 영천시 청통면 거조길 400-67
TEL 054)335-1369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함월산 기 림 사

'목탁소리가 끊이지 않는 수행 정진과 기도의 도량'

한문불전 성림금강 불교대학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17
TEL 054) 744-2292 FAX 054) 744-2269
www.kirimsa.net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지 김영재

< 부설 >
· 동해유치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1179호 현대불교
2018년 1월 1일(11월 15일) 월요일 / 불기 2562년

나 하나를 버리면 일천만 가지가 다 잠을 자고 쉬게 된다

요새 날씨도 추워지는데 여러분 가정이 항상 건강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의 도리라는 것을 진정코 깨닫는다면 정말이지 여러분 가정에도 모두 행복이 깃들 것을…. 거짓말이 아닙니다. 허허허. 이 공부라는 것은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첨단을 간파하는 공부입니다.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실험하고 체험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갔다, 나를 버리지 않고 왔다 갔다만 하신다면 그 공부는 간파를 못합니다.

나 하나를 버린다면 일천만 가지가 다 잠을 잡니다. 쉬게 됩니다. 아무 걱정도 없이 됩니다. 내가 살 양으로 하고, 내가 '나'라고 항상 생각하는 그 물질세계에서의 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죽질 못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으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데에 순응하고 놓으라는 얘기죠. 물이 흘러가는데 거꾸로 흘러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물이 흘러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돌아서 흘러내리고 있죠? 또 많은 비가 와서 한데 모여 흐르듯이 어떠한 문제든지 닥쳐오는 그 애고(哀苦)를,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흘리게 되면 바다로 들게 돼 있죠. 그 바다에서는 더럽고 깨끗한 게 없이, 따로따로 흩어지는 게 없이 가라앉으면 그대로 맑습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은 허무하다고 하지 마시고 항상, 허무한 건 없다고 생각하셔야죠. 사실이 그러니깐요. 우리 몸뚱이는 항상 말하듯이 장갑 끼었다가 벗는 거와 같고, 우리 마음의 근본은 장갑 끼는 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갑이 이러니저러니 이러니저러니 하고 논의할 것이 못 되죠. 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애고와 병고와 가난과 질환이 없고, 평탄하게 한마음으로써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신다면 내 마음도 아프지 않고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잘못되고 잘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고, 또 잘되고 못되는 것을 겸해서 알아야 같이 작용을 할 때에 빛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딪침이 없다면 빛도 없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해서 빛이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제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아마 똑같을 겁니다. 공생(共生), 공용(共用)으로써, 공심(共心)으로써 돌아갈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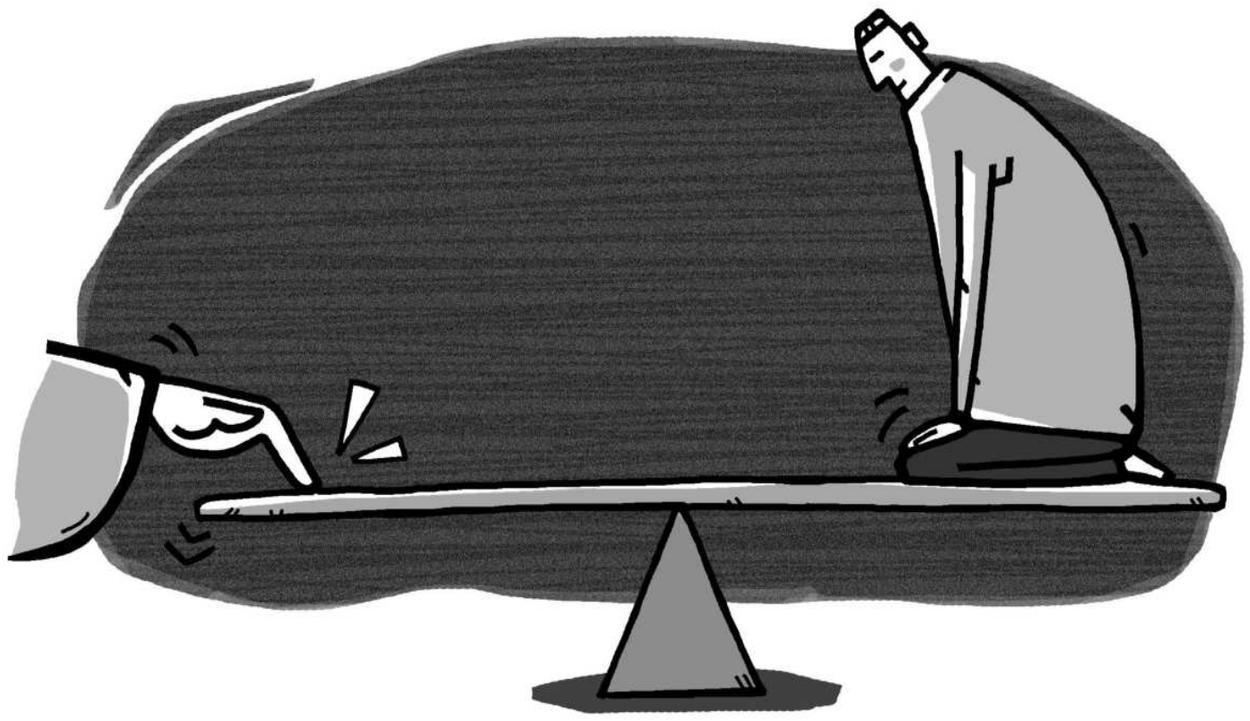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종교를 믿는다고, 이 종교 저 종교 모두 믿는다고는 합니다마는 종교라기 이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종교라는 이름에 매여서 애를 쓸 필요가 없고, 어느 국한된 종교에 끄달리지 마시고, 어느 종교를 가졌든 그건 이름일 뿐이요, 여러분의 상상력이란 말입니다.

나는 종교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고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진정코 아픕니다. 내 마음은 속일 수 없겠죠. 양심은 속일 수 없겠죠. 내 양심을 속인다면, 우주법계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깐요. 모두 여러분을 위한다는 것은, 행동과 말과 그 뿌리가 성실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익이 갈 수가 없고, 이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이깊이 생각하셔서 종교라는 이름을 떨쳐버리세요. 불교라는 이름도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 내용에 들어가서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란 얘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어서 일체가 다 같이 공심(共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에 휘달리고, 요새는 학교 가는 자녀들 때문에 모두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한마음의 손길이 가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개별적인 손이 가서는 절대로 모두가 불리합니다. 포괄적인 한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거죠. 공덕의 한 손길이 미쳐야만이 여러분한테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한테 진실된 내용만 얘기했지 간접적으로 재밌는 얘기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극단에 처했을 때 재밌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한테 속속들이 이를 테니 배우시려면 질문도 하십시오. 질문을 안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함이 없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걸어오는 길 자체에 발자취를 담아 가지고 옵니까? 말씀도 담아 가지고 있지 말고 하십시오. 걸음 걸어오면서 발자취를 담지 않듯이 말씀하시는 것도 질문하시는 것도 담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1(男) 소생에게 큰스님께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육신이 떨어지면 더 이상 공부할 수 없고, 그냥 몸 떨어질 때의 업식에 따라 윤회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천도란 무엇인가요? 육신이 떨어진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마음이 보입디까?

질문자1(男)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습니다.

큰스님 마음이 보이지 않듯이 육신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음 자체의 그 근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의 근본은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내세에 다시금 그 입력된 게 나오는 것이고 과거에 입력된 것이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공(空)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그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몸속에 악업 선업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업 선업의 그 의식들은 잘되고 못되고를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이, 거기까지 다스리는 생각이 미쳐야만이 그게 따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입력된 것을 현실에 입력을 다시 한다면, 과거의 업장이 다 무너져서 안팎을 잘 검토하고 파악할 수 있어서,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는 얘깁니다.

체가 없는 마음의 의식이 이 물질계의 관습에 의해서 죽어도 자기가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도 또 체가 없으면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체가 없어진 뒤에는 차원에 따라서 윤회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바로 비가 한데 모이면 개울물이 되듯이 그런 것이 윤회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이 차원에 따라서 체가 없으니까 자기가 체가 없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생시 때 마음은 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모르고 산 사람은 자기가 이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죽어서 영혼이 이 발자취를 옮기려면 악업 선업의 그 애고에 의해서 전부, 크고 작은 것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한 발짝도 에누리 없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또 자기가 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강을 건너갈래도 자기가 체가 있는 줄 알고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고, 불에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고, 이럭하니까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도라는 게 생긴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친구가 죽었는데 가만

☞ A34면으로 계속

謹賀新年
밝아오는 새해에는 행복이 가득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주식회사 백두건설
Baekdoo Construction Co.,LTD

■ 대표 김진환

임 직 원 일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38, 702호(관양동, 동선빌딩)
TEL 031-447-1774 | FAX 031-447-1776

謹賀新年
밝아오는 새해에는 행복이 가득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창신산업개발(주)
CHANGSHIN INDUSTRIAL DEVELOPMENT CO.,LTD

■ 주요업무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토 공 사 업
골재재취업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7길 56, 2층 (방배동,예일빌딩)
전화 02)848-2002 , 070-5121-0020 | 팩스 02)6349-2004

큰거든작은거든절대놓치지말고실험하고체험해야!

☞ A33면에서 계속

히 보니까 아, 친구가 개구리 소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탁 막고서 "너,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고 악을 벽력같이 써도, 그 영혼만이 듣는 말이죠. 이 생시의 사람들은 못 듣겠죠. 그래서 악을 쓰니까, "이 집이 참 아주 2층, 3층으로 된 기와집이라서 좋기 때문에 들어간다." 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타고 난다면 다시 모습을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개구리 소굴로 들어가서 개구리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모습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서 그냥 머리에 젖었기 때문에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그냥 어줍지 않게 말을 하면은 또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깁니다.

질문자2(男) 스님께 여러 번 법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조(六祖) 혜능(慧能) 스님께 법을 구한 제자들 가운데 지통이라는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스님이 법을 구한 뒤에 지은 게송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행을 일으킴은 모두가 망동이요, 머물러 지킨다 해도 또한 참이 아니니라." 하셨는데 어떠한 경지를 일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이리 오십시오.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하하. (질문자에게 손짓을 하시며) 이리 오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이리 오세요. 아, 가르침을 받으려면 이리로 와야죠. 손 내미세요. (오른손으로 질문자가 내민 손바닥을 '딱' 소리 나게 치시고 질문자가 합장을 하자 답례로 합장하시며) 가르쳐 드렸는데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2(男) 지금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3(女) 스님께서 법문을 해 주시는 책도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四無)·사유(四有)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요, 또 이렇게 제 아이가 축농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 신문을 5분도 못 보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런 신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 집을 가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순간부터 그분은 평상시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2시간도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 제가 전화를 자주 드렸더니,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던데 저의 아이의 일은 해결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무엇인가 의문도 나고요.

또 저에게 신도님들이 극락이 어디 있냐고 가끔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스님께 배운 대로 "네 마음 안에 극락이 있다. 평상시에 편안한 마음으로 항상 산 사람이 죽어서도 극락을 간다." 아, 그러면 "극락을 간다는데 어디냐." 이렇게 물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범천세계(梵天世界) 저쪽 어디에 극락이 있다고 그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동이 되거든요. 이 마음이 편안할 때 극락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 우주법계를 벗어나는 어느 곳에 극락이 있다면, 제가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야 될지, 제가 조금 더 절에를 다녔다는 신도로서 확신이 서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대할지 상당히 망설여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께 이렇게 감히 법을 여쭙니다.

큰스님 보살님, 가만히 보니까 대답 잘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문자3(女) 저 자신도 그걸 잘 모르겠고요.

큰스님 자신을 모르니깐 대답도 못하죠.

질문자3(女) 예.

큰스님 자신을 모르고 어떻게 남에게 대답을 함부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범천(梵天)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질문자3(女) 아, 범천(梵天)세상이 있다고 어느 책에 보니깐요, 쓰여져 있어요.

큰스님 그런 일은 없어요. 범천(梵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옥도 있고, 이 세상에 바로 범천도 있고 또 천당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 보세요. 일을 잘못해서 붙잡혀 가질 않나, 마음에 죄를 가지고서 사는 사람은 마음의 지옥에서 살지를 않나, 또 마음에서 벗어나서 활달하게 사는, 천당에서 사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잘못하지 않아서 몸으로 또 받지 않으니 천당이요, 모두가, 천당 지옥이 딴 데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질문자3(女)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사람이 죽어 가지고 물을 못 건너고, 블랙홀이라는 그걸 통과를 못하고 또 영원히 통과를 못한다면 그것은 또 어떤 것인지요?

큰스님 아,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겠죠. 보세요. 넝마는 넝마대로 출현을 하고, 헌 무쇠는 무쇠대로 출현을 해서 끼리끼리 모입니다. 또는 물건이 새로 나왔으면 나쁘든지 좋든지 새로 나온 물건으로 또 나옵니다. 연방 바뀌어서 돌아갑니다, 가공돼서 말이에요. 그와 같습니다.

또 아까 딴 사람은 다들 잘 낫는데 왜 내 집애는 안 낫느냐고 그랬는데 나부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 아이에게 관(觀)하는 도리를 일러 주었나. 그릇을 들어야 얻어먹더라도 담아 주죠. 마음이, 믿는 마음이 소상히 밝혀져야 그게 즉각적으로 들어가죠. 오래 되고 온 지가 얼마 안 되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겉으로 끄달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겉으로 끄달리지 않는 데는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것을 알려면 어서 하루속히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내 안으로 모두 놓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하십시오. 사무 사유(四無四有)라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의 50%, 보이는 세계의 50%를 사무 사유라고 합니다.

질문자3(女) 그런데 저 아이는, 제가 스님한테서 배운 주인공 도리를 얘기를 해 가지고 스님을 꿈에서도 뵙고 또 굉장히 주인공 도리를 믿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큰스님 하하하. 그래도 잘못돼서 그렇죠. 수박 겉핥듯이 그렇게 핥아서 수박 속 맛을 알겠습니까?

질문자4(男) 오래 다녀도 스님 앞에 직접 와서 질문하는 게 오늘 처음입니다. 스님 법문 중에 부(父)와 자(子)는 원래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부와 자가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는데, 백지 한 장 차이로 만나기가 어렵다고 늘 일러 주셨는데요, 그 백지 한 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뚫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법문 좀….

큰스님 즉 말하자면 영원한 근본의 그 마음이, 현실의 나를 진화시켜서 끌고 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는 그 테두리는 부(父)가 되고, 즉 마음 내기 이전을 말합니다. 마음 내는 것은 자(子)가 되고, 마음 내기 이전은 부가 됩니다. 전력은 부가 되고 이 들어오는 전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전력은 부가 되고 이 전구에 불 들어오는 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구에 불 들어오는 거와 전력과 둘입니까, 어디? 둘이 아니죠. 전구가 없어도 안 되고 전력이 없어도 안 되죠. 그 가운데 가설이 되지 않아도 안 돼요. 찾는 마음이 없어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삼합이 한데 합쳐져야만이 무난히 돌아갑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 자체가 바로 전력을 알아야 이게 상통한다는 얘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끌고 다니는 나가 과거뿐이 아니라 현실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내가 없으면, 부모한테 몸을 받았어도 영원한 내가 없으면 거기에 삼합이 한데 합쳐지지를 않아서 태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은 대로, 업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인연이 돼서 만남이 뭉쳐지는 거는 바로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입니다, 생명들,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부(父)와 자(子)가 둘이 아닌 줄 알아야,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자기가 온 데가 어딘지, 가는 데가 어딘지, 지금 하고 있는 자리가 어딘지 그것을 상세히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하고, 둘이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아야만이 모든 것을 간파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질문자5(男) 저는 여기 처음 왔는데 하도 이 몸뚱이 아랫도리가 아프고 해서 큰스님한테 한번 여쭤 보려고 왔습니다. 친구가 자꾸 여기를 가 보라고 해서 오늘 처음 여기를 왔는데 큰스님이 한번 어떻게 살려 주는 셈 잡고 좀 알려 주세요, 왜 이렇게 아픈지요.

큰스님 살려 주는 셈 잡고요? 하하하. 어디가 아프신데요?

질문자5(男) 요기서 요기 아랫도리, 궁둥이 요기가 아파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아주 죽겠어요, 그냥.

큰스님 나는 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음공부를 수행을 해 나가면은 그 병 붙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병도 자세히 얘기하자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전부 모르니까 내 마음 쓰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럼으로써 악취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댁에서 믿는 마음이 출중하다면 역시 나하고도 마음이 둘이 아니요, 일체제불과도 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공덕의 그 손길이 간다면 금방 괜찮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공부를 못하게 되면 그 병만 낫지, 도로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것은 해결을 못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질문자6(男) 저는 광주에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왔습니다. 큰스님을 아미타불로 생각해 가지고 여기가 극락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 쓰레기를 어떻게 쓸어내야 하는 것인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큰스님 극락세계가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마음먹기에 달렸다. 간단한 표현이지만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이치가 참, 마음 하나가 때에 따라서는 법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선 황천길을 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천당에서 극락으로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한생각을 내시니 아촉불도 될 수 있고 아미타도 될 수 있고, 즉 동방에 아촉이요, 서방에 아미타요, 세상에 관세음이요, 또 지천국(地天國)에는 지장보살이요, 이렇게 마음으로 내는 것이지, 그건 이름이지,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걸 내 마음속에 같이 뭉쳐 놓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저 한마음의 주인공 여기에서만이 나의 몸을 이끌어 줄 수 있고, 나의 죽음도 그냥 익지 않은 콩깍지 까듯 아프게 하지 말고, 익은 콩깍지가 툭 터지듯이 되도록 믿어 보십시오. 진짜로 거기서만이 나를 아프지 않고 죽게 만들 수도 있고,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생에도 진화해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자재천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질문자6(男) 저번 날 지난달에 여기 다녀갔습니다. 다녀간 뒤로는 우리 자식들이 전부 모두 다 극락세계가 되었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자식들이 극락세계 됐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질문자6(男)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맡겨 버리니까, 머리가 가뿐해지고….

큰스님 너무 집착을 하고 맡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맡겨진 겁니다. 우리 살림살이 하는 거 그대로, 일체 만법이 다,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나로 인해서 들이고 내고 상대성 원리로써 돌아가는 거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턱 놓으시고 턱 믿고 그냥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네놈이 있으니깐 나를 이렇게 움죽거리게 하지.' 이렇게 믿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질문자6(男)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모든 잘못되고 잘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고,
또 잘되고 못되는 것을 겸해서 알아야
같이 작용을 할 때에 빛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 법문은 1991년 12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新年隨想

소소한 행복은 수행서 비롯된다

종현 스님
대구 도림사 주지



그림 · 최주현

새해 소비 트렌드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규모 수행 모임, 최근 불자들의 신행형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수행서 행복을 찾자
'得小爲樂 · 知足長樂' 법열 안서 자유 누리길

다시 새해가 밝았다. 인생이 늘 그렇듯 한해를 뒤돌아보며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이 분주하다. 연말이 되면 으레 기다려지는 것이 있다. 사회의 지도층과 각 단체, 연구 기관에서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고 분석하는 메시지이다.

대학 교수들은 2018년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꼽았다. 잘못된 견해와 바르지 않은 길을 과감히 없애 사악하고 그릇된 것이 사라지면 바른 것이 드러난다는 말이다. 오랜만에 불교의 가르침이 사자성어에 선택되어 기쁘기도 했지만 그만큼 바로잡을 것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미 지난 과거가 되어 버렸지만 거리로 쏟아져 나온 많은 국민들은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열정으로 정권을 심판했고, 이후 쌓아온 적폐를 청산하며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다.

2018년의 파사현정은 잘못된 관행과 관습,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해가 되리라는 것을 교수님들은 내다봤다.

〈금강경〉에서는 색(色)과 소리(聲)에 집착한다면 이는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능히 본질을 볼 수 없다고 했다. 경계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속에서 밝게 빛을 발하는 불성(佛性)을 바로 볼 때 파사현정은 이루어진다고 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무술년 개띠해의 소비 트렌드는 비주류가 주류를 잡는 '웩더독(Wagthedogs)'이 될 것이며 주요 키워드는 현재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소확행'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웩더독은 작은 꼬리가 몸통 전체를 흔든다는 의미로 사은품이 본상품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대중매체보다, 유튜브 등 1인 방송이 주류 방송매체보다 인기를 끌 것이라고 내다 본 것이다. 실제로 개모양의 목베개 사은품을 받기 위해 아이스크림 가게에 줄을 서고, 열쇠고리 인형을 받기 위해 햄버거를 사먹는 양태는 이미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우리들의 삶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될 것이라고 한다. 불확명한 미래보다 작을지라도 현재의 확실한 행복에 사람들은 돈을 쓴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것은 한 연구소의 2018년을 내다보는 하나의 예측분석일 뿐이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흐를 것이라 확언하긴 힘들지만 다양한 분석과 자료를 바탕으로 내놓은 결과이니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절집에서도 이러한 성향의 수행형태들이 나타난다. 이전에는 대형 법회나 행사, 유명한 스님들의 법문을 좇아 많은 불자들이 몰렸다면 요즘 나타나는 신행형태는 작은 소규모의 모임으로 개별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어느 사찰에도 소속되지 않는 신행모임이 만들어지고, 사찰순례나 템플스테이, 합창단, 교리연구회, 문화유적답사, 사진촬영모임 등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들이 모임화 되어 신행으로 발전되고 있다.

나아가 수행과 기도를 해본 불자라면 아예 집에 조그마한 수행공간을 만들어 놓고 참선, 108배, 명상, 다라니, 사불, 사경 등 자신의 근기에 맞게 각자가 수행을 한다. 집단적 수행에서 개별적 수행형태로 변화해가는 이런 형태는 누구에게도 간섭받거나 통제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으로 수행 후의 만족감과 성취감이 매우 높다고 한다.

사실 수행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장소와 환경이다. 우리는 사회 속에 너무나 많이 노출돼 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안정을 취할 삶이 줄어든다. 나만을 위한 작은 단위의 신행활동을 하려는 불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부처님도 가족을 버리고 출가했으며 6년 동안 홀로 고행을 했다. 지금도 제방에서는 2평 남짓 조그마한 방에 열쇠로 문 걸어 잠그고 무문관 수행을 한다. 수행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번은 가야할 길이 홀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 공부에 조금이라도 맛을 느낀다면 그 법열, 기쁨은 어디에도 견줄 수가 없다.

중국의 시인으로 술과 인연이 많던 이태백은 가장 맛있게 즐기는 술은 달밤에 그림자와 벗하며 먹는 '월하독작(月下獨酌)'이라고 했다. 술 역시 혼자 먹는 술이 최고란 이야기다. 요즘 사회적으로 혼술, 혼밥이 유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홀로 수행한다는 것에는 즐거움만큼의 함정도 있다. 이태백처럼 월하독작을 따라 혼술, 혼밥을 즐기다 알콜중독과 우울증에 빠지고 홀로이 수행과 기도할 때는 독선과 이기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스승을 통한 점검이 중요하고, 도반을 통한 공부와 수행, 대화가 중요하다. 2017년 동안거에 드는 사부대중에게 종정 스님께서 법어를 통해 "인생 길다 해도 참선수행 한나절 한 가로움에 미치지 못함이라"라고 설하셨다. 수행과 기도, 공부에서 오는 법열은 인생 백년과 바꾼다 해도 아깝지 않다는 이야기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수행을 통해 느끼는 법열(法悅), '득소위락(得小爲樂) 지족장락(知足長樂)'이다. 적은 것에 행복해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오래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개인의 수행을 통한 환희, 법열을 느끼기 시작하면 세상이 넓어진다.

명상, 염불, 기도, 절, 주력 하루 10분만이라도 생활화하며, 명상을 통해 하루 일상을 시작하길 바란다.

아침 명상을 통해 바라본 하루가 현실 속에서 진행될 때, 그 하루는 알차고 계획적이 되며 난처한 일, 힘든 일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수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하루 5분 참선, 108배, 다라니 독송, 사경 등을 통해서 불제자로서의 지혜로운 살을 살아갈 수 있다.

'소확행' 불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소소하면서도 확실한 행복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먹을 때 족한 줄 알고, 두 번째는 일을 하여 게으르지 않으며, 세 번째는 먼저 모으고 쌓아 그로써 구차할 때를 준비하라. 네 번째는 밭 갈고 장사하며 목장 만들어 짐승 먹이고, 다섯 번째는 마땅히 절에서 조상을 섬기며, 여섯 번째는 절의 불사를 일으켜 법륜을 돌려라. 가정에서 있어 이 6가지를 부지런히 힘써 잘 닦는 사람은 곧 그 집에 손감(損減)이 없고 재물은 날로 점점 불어나 바다가 온갖 물을 머금은 것 같으리.'

〈장아함경〉11권 '선생경'

2018년 무술년이 밝았다. 계획을 세우고 한해를 내다보아야할 시점에서 내년의 유행과 소비형태, 가치관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잘 살펴 희망찬 무술년을 맞이하자.

社說

여법한 한 해 되기를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사는 모습이 법 안에 있지 못할 때, 그 세상은 시끄러워진다. 어느 새 한 해가 지나가고 다시 새 해다. 세간엔 지난 한 해 시끄러웠던 일들이 여전히 시끄럽게 많이 남아있다. 돌이켜 보면 지나온 여러 해가 늘 그랬던 것 같다. 더구나 해를 더할수록 그 법과 어긋나 있는 모습들의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 마음의 씁쓸함 역시 해를 더할수록 더하다. 다투고, 속이고, 감추고, 외면하고, 빼앗고. 그 모습이 점점 익숙해지기까지 하는 세태가 안타깝다. 친구가 서로 무섭고, 이웃이 서로 무섭고, 선생과 제자가 서로 무섭고, 국민과 국민이 서로 무섭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무서운 일에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 무섭다. 문제는 그렇게 여법하지 못 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슬프고 아파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울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며 나의 부모와 자식이 울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여법하지 못하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안 될 일이다. 친구라는 말, 이웃이라는 말, 선생님이라는 말, 어르신이라는 말, 위정자라는 말이 따뜻한 말로 있어야 한다.

이제 부처님의 시절과 또 한 해 멀어졌다. 멀어지는 일만 남은 것은 어쩔 수 없어도 부처님 법은 늘 가까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면 괴로운 과보 받고 선을 행하면 선의 과보 받는다"고 하셨다. 우리가 하자. 부처님 가까이 사는 우리가 먼저 걱정하자. 새해 아침. 값진 시간이다. 이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꽃이 피는 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먹먹한 일인가. 오늘, 향 한 자루 들고 부처님 앞에 서자. 그리고 서원하자. 우리 모두 여법한 한 해 되기를….

전통문화 배제한 문화올림픽이라니

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후손에 계승할 만한 가치가 높은 문화적 소산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이외에 다른 가치판단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대자연이 빚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든 인류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역사적 산물이든 특별한 제한 없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인사 장경판전과 석굴암 · 불국사가 불교계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이 같은 문화유산을 보존 · 계승해야 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종교라는 잣대를 들이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일을 벌이곤 한다. 현재 평창 월정사가 종교라는 이유로 문화올림픽서 배제되는 현상은 문화유산에 대한 공공기관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19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국내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개최지 평창은 오래 전부터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뛰었다. 그리고 평창의 중심에는 오대산과 월정사가 있다. 그럼에도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각 지역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에서 오대산과 월정사는 만날 수 없게 됐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의 축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문화유산을 편협하게 선별한다면 진정한 우리 민족의 얼은 빼놓은 채 수박 겉핥기만 제공하는 셈이다. 진정 종교라서 안 된다는 논리라면 조선시대 유교문화나 근대 민족종교 등이 중심이 된 것까지 모두 배제해야 옳을 것이다. 문화유산에 종교 잣대를 들이미는 일은 그만두고 진정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정부부터 되돌아볼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謹賀新年
Season's Greeting and Best Wishes for the New Year

신비령산 소원천지탑
음이온 명상치유 선도량

마이산탑사

회 주 혜명스님
주 지 진성스님
총 무 정해스님
교 무 보문스님
기 획 정원스님
홍 보 송운스님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로 367 ☎ 063)433-0012
http://www.maisantapsa.co.kr/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12월 3일 전주 한옥마을 르윈호텔에서 열린 제 17,18대 전북종무원장 이 · 취임식에 참석해주시고 성원과 격려 보내주신 원로 대덕 큰스님, 전국 원장스님, 중앙종회의원 스님, 나누우리 회원스님, 전북 사암 스님, 교임, 전법사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암 주지스님들과 교임, 전법사 원주 보살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전북종무원을 새롭게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북 교구 종무원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기쁜 날이었습니다. 종도와 사회를 위해 종무원으로 공심을 가지고 열성으로 종무행정을 펼쳐 가겠으며 내년 3월 1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성공기원 영산용궁대재가 성공적으로 봉행될 수 있도록 태고종의 화합과 위세를 널리 홍보하는데 원력을 쌓아 나가겠습니다.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불기 2561년 12월 27일

전북교구 종무원장 청파진성 합장

후원해주신분들 (무순)

나비엘 익산갤러리 신창재 지리산 한방병원 김성례 김정수 속금회 김의순 중앙승가강원 6기 천지사 서용숙 동국대 사찰경영대학원 원우7기 봉원사 남원 미륵암 남원 연화사 남원 분원회 초심원장 구산스님 청주 석문사 군산 성흥사 광양 용문사 김문석 익산 대인사 고창 보안사 이재환 이재현 부산 서부종무원 최경수 안남규 구기수 무등산 선훈사 팔도마당 대명선원 동아주류상사 경남종무원장 혜창스님 부산 천불정사 서울 백련사 전주 백련암 서근필 김광순 백제회관 이강원 이준기 수향떡집 반야회 윤선예 하진희 신정자 김순자 정종규 신기환 최종문 무명인 노윤희 정수정 최소영 정연숙 문영모 제주 수정사 한은호 구지서 전주교도소 사회복귀과 조성문 남원 관음사 최미자 김제 원각사 삼경태크 전북불교대학 김수배 순천 선암사 안동 연봉사 서울 골드론 인천 월천사 양주 청련사 청주 용화정사 진천 약수암 동방불교 새만금일보 김점선 허호석 동국대학원 사찰경영 66기 김오식 이중선 정광옥 김용진 월랑회관 김명숙 신대철 박순정 백제회관 우애순 원불교 봉공회 정인택 신붕흥 박홍규 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양주 청련사 성오스님 김대근 임실 안도암 태인산업 대불청 전북지구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 한문화 국제협의회 홍경임 하철호 마이산 해설사 일동 산해진미 홍성화 대광광고 완주 보리암 김경철 정인건설 영성회 하상희 온천 주유소 박창준 박희영 이정모 전주 쎄시봉 장우재 허소군 전주우리병원 최주연 박미경 금강선원 이금수 화운사 김제 영천암 김영은 원로의장 덕화스님 전법사회장 진화 경기남부 종무원 부산 보현사 마이산 남부상회 소리디딤 김지영계장 동대총동문회4기 장경술 하춘생 아산 용화사 죽림식당 진안갑계원 정읍 두승사 천수승가회 벽산문도회 마하연 승가회 정읍 일광사 김제 성덕사 김제 쌍용사 김제 용봉사 고재갑 정해자 탑밴드 안중화 도광문도회 고우상 이수열 김종래 이성재 정태규 사랑의 울타리 정 만우스님 전주 보문사 비마월드 삼마주유소 서울북부종무원 익산 태봉사 순창 장덕사 경기중부 종무원 경기북부종무원장 영산작법보존회 김의순 송경자 박찬연과장 백윤식 동국대학 총동문회 김우기 박순이 이명순 전주이씨 종친회 금강승가회 김제 월명암 탁현상 경기 자비정사 전남종무원장 전미숙 최민자 한국불교태고종 유영봉 김남순 강상원 최보현 대호골프 광법사 수왕사 추병곤 한국종교인협의회 홍준 서울 삼각사 이동호 삼경태크 인천 계암사 전국비구니회장 전주우리병원 진안 솔잎회 대전 선유암 서울중서부종무원 서울 봉원사 아이댄스 전주 실상사 최원석 정읍 꽃시장 조성문 신진종합건설 한복갤러리 최규철 전주불교연합회 설훈국회의원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태고종 총무원장 원희룡 전북일보 솔건축 코리아 시낭송작가협회 경북동부종무원 정공문 이삼진 해동불교 광주교정연합회 원산스님 송지해 쎄시봉사람들 마이웨딩홀 안성 모박사 전태평 새만금일보 특별교구 용문사 신대철 전주교도소 일반교화위원 대구 혜인정사 제주교구 종무원 전북유도회장 한문화 국제협의회 조범률 김관수 서진숙 하남주 진안중 32회 동문 박흥섭 문기문 마이산 명품관 남기재 조희연 백련사 자비원 동문특수인쇄산업 광명양초 한문화국제렵의회 기수발전협의회 삼국건설 불이성 법륜사 한미동맹친선협의회 코아플라워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 권영민 스파세종 노추산 녹유사 안양 백운사 진안쌍봉사 대원불교유심종 민규식 김대근 심용운 서향환 익산 석불사 나누우리 봉사단 자명스님 응현스님 성결교회 탑사전국신도회장 한선미 광주교정청 허부경 이금령 (주)청하 탑사신도회장 김경춘 삼성 렌트카 대구 혜인정사 신도회 김경은 호남 범음회 부산 구평사 인천 월천사 중도기획 정인건설 시사전북 서울 성주암 강원 청계사

동국의 밝은 미래

지혜와 자비의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닦아온 **동국.**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홍제중학교 /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부속유치원 / 일산불교병원 / 일산불교한방병원 / 경주병원 / 경주한방병원 / 분당한방병원 / 동국대학교전산원



‘나’를 찾아 나선 文學 50년…

산문 밖의 禪 윤후명 소설가(72)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를 자아로 글쓰기 50년

소설 〈둔황의 사랑〉 녹원상

〈촛불 렙소디〉 현대불교문학상

1994년 포교사 자격증 취득

시집 4권, 소설전집 12권 등

50년 동안 불교적 정서 작품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불교’를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차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이고, 누군가에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종교이고, 누군가에겐 이름과 옷을 바꿀 만한 귀의의 차원이기도 하다. 5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체화’됐다면, 그것은 어떤 차원의 불교일까. 소설가의 문학 속에서 일관되게 화자의 자아로 살아왔다면 그 불교는 어떤 차원의 불교일까. 자신의 소설은 모두 불국토를 향한다고 말하는, 시인이자 소설가 윤후명 작가의 불교다. 윤후명을 들여다본다.

혜초의 길, 윤후명의 길, 윤후명의 소설

“달밤이다. 먼 달빛으로 사막을 사자 한 마리가 가고 있다. 무거운 몸뚱어리를 이끌고 사구(砂丘)를 소리 없이 오르내린다. 〈중략〉 로울란(樓蘭)을 지났는가. 둔황(敦煌)을 지났는가.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을 사자는 묵묵히 걷고 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모래 소리가 들린다. 달빛에 쓸리는 모래 소리인가. 시간에 쓸리는 모래 소리인가. 아니면 서역 삼만 리를 아득히 울어온 공후 소리인가. 그때 누군가가 중얼거린다. 아이야, 사내애였다면 혜초처럼 먼 곳으로 법(法)을 구하러 떠났다 치렴. 계집애였다면 사막 속에 곱게 단장하고 있다고 치렴. 그렇다고들 치렴.”

1982년 발표돼 1983년 소설집으로 출간됐고, 그 해에 제3회 녹원문학상을 수상한 윤후명의 소설 〈둔황의 사랑〉 중 끝부분이다. 〈둔황의 사랑〉은 윤 작가가 자신의 작품 중에서 가장 불교적이고 윤후명적인 작품이라고 말하는 소설이다.

중년의 실직자인 소설 속 화자 ‘나’는 자궁 종양으로 낙태수술을 받고 돌아온 아내와 잠이 든다. 잠든 ‘나’는 꿈속 세계로 여행한다. 서역 타클라마칸사막과 그곳을 건너가는 한 마리 사자와 신라승 혜초, 돈황 벽화 속의 비천녀 옷자락 등 환상의 세계가 등장한다. ‘나’의 하루를 그리며 현실과 꿈, 영원과 찰나, 과거와 현재 등 2분법을 뛰어넘어 세상과 삶의 본질을 꿰려한다.

작가가 꿈꾸는 세계는 혜초 스님이 구법을 위해 걸어갔던 돈황이다. 수 천 년 전의 돈황의 사자는 사자놀이로 재현되고, 용을 잃어버리고 체만 남은 공후 소리는 소녀의 음성으로 들려온다. 그리고 무거운 몸뚱어리를 이끌고 먼 달빛의 사막을 가로질러온 사자는 화자 자신이 되고, 사자의 목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쉰 목소리는 화자의 음성이 된다. “그것은 내 목소리였다.” 마지막 문장이다. 작가는 이 마지막 문장을 쓰기 위해 〈둔황의 사랑〉을 썼다고 했다. 그 마지막 문장은 아직도 ‘어려운’ 문장으로 회자된다. 하지만 윤 작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둘 다 맞는 말이 아닐까. 그 마지막 문장을 한 글자로 줄이면 ‘나’가 되고, 그 ‘나’는 우리가 늘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윤후명의 소설은 ‘나’를 찾아나서는 ‘길’이다.

“혜초의 길은 대단한 세계사의 길입니다. 혜초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불교’를 볼 수 있습니다. 혜초의 길은 가장 불교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윤 작가는 자신의 소설 〈둔황의 사랑〉의 주인공 혜초와 닮아 있다. 결국 그의 소설은 ‘나는 누구인가’를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존재의 철학적 의미 그리고 삶의 영적, 육적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깊게 고민한다. 그리고 후작들에서도 그 고민들은 계속된다.

그래서 윤 작가의 소설은 1인칭 주인공시점을 고집한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에 화자는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작가는 〈둔황의 사랑〉을 통해 혜초가 열어놓은 길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다시 윤후명의 길을 열고자 한다. 그렇게 ‘나’를 찾아가는 일, 그런 노력과 과정이 그의 소설이며, 그의 불교다. 때문에 그의 소설들 전반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1인칭’은 문학적 1인칭이면서 불교적 1인칭이다. ‘나’를 들여다보는 불교야말로 1인칭의 서사다. 때문에 윤후명의 ‘1인칭’은 문학 이전의 것으로, 단순히 소설을 끌고 가는 장치가 아닌 윤후명의 대전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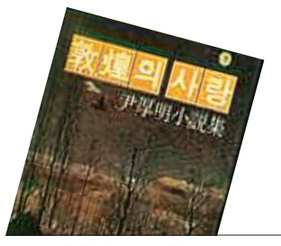
하지만 그는 그의 소설에서 불교를 직접적인 언어로 문장에 내세우지 않는다. 스토리와 구성보다 미학적인 문체를 추구하는 그의 소설 속에서 불교는 최상의 메타포가 된다. 직접적이지 않지만 뒷모습이 불러일으키는 궁금증처럼 그의 메타포 속을 흐르는 불교는 깊은 사유를 불러일으킨다. 불교를 풍겨서 불교로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윤후명의 소설이다.

이후 〈부활하는 새〉, 〈원숭이는 없다〉, 장편 〈협궤열차〉 등 윤후명표 소설은 계속 된다. 그리고 그는 2007년 〈촛불 렙소디〉로 현대불교문학상을 수상한다.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故 백남준을 소재로 한 소설로, 이국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던 한 예술가의 생애와 그가 이룩한 퍼포먼스를 불교적 소재로 승화시켰으며, 새로운 소설적 형이상학을 추구함으로써 불교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후명 소설의 미학은 스토리와 구성보다는 아름다운 문체에 있다. 일명 ‘시적 글쓰기’이다. 윤후명의 소설은 소설의 요체인 스토리와 구성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선 아름다운 문장에서 시작한다. 시공을 초월하고 스토리와 구성의 경과를 초월하기도 하는 그의 문장들은 문장 자체만으로 문학이 된다. 때문에 어디를 펼쳐 읽어도 독자는 ‘글’과 만날 수 있다.

그의 소설 대부분에서 주인공은 여행 중이다. 힘겹고 고단한 현실을 떠나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만나고 본 사람과 사물들에 자신을 비춰본다. 줄거리를 위한 시공이 아니라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시공을 설정하여 작가가 정해준 메시지가 아닌 독자가 사유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이미지와 아우라를 던진다. 각자의 ‘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윤후명의 소설이다.

B2면에 계속



1982, 윤후명 저 〈둔황의 사랑〉



2007, 윤후명 저 〈삼국유사 읽는 호텔〉

“불교는 우리의 이성이자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불교에서 찾아

“불교의 핵심 오래 전 우리 땅에”

“우리불교는 일류세계사,
제대로 아는 것이 급한 불사”

고2 때 성균관대 백일장 장원
196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빙하의 새’ 당선으로 등단

‘윤후명 소설가’ B1면에서 계속

윤후명의 이성(理性) 불교

윤후명의 불교는 언제부터,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을까. 그것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그토록 오랜 세월 변치 않고 한 작가의 작품과 삶을 지배했다면 선명한 시간과 간단치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작가 자신은 그에 대해 즉답하지 못한다.

“굳이 시간과 이유를 대야 한다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이유를 대야 한다면, 지녀야 할 이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다. 윤 작가는 불교를 지성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가장 큰 이성으로 생각했다. 어릴 적 어머니에 의해 쥐여진 신앙도 아니었고, 고단한 삶에서 찾은 신행도 아니었고, 작품을 쓰기 위한 소재나 방편은 더욱 아니었다. 그의 불교는 목적이 있는 방법론이 아닌, 윤후명이라는 인간이 필요하고 충분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다. 그 방법론이 소설의 방법론으로 옮겨지고 구체화 된 것이었다. 그렇게 불교가 윤후명의 방법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윤후명이라는 작가가 ‘우리’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의 글쓰기는 ‘나’가 속해 있는 ‘우리’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국수주의자라고 말하는 그는 우리의 정체성을 해결하는 일이 윤후명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 ‘우리’가 곧 각자의 ‘나’이고 윤후명이라는 것이다.

“저는 ‘우리’ 글을 쓰고 싶었어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쓰기 위해선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서 가장 우선인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교라고 생각했죠. 그 오랜 세월과 간단치 않은 역사를 함께 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것’이며, 그것이 곧 ‘우리’인 것이죠.”

그랬다. 그는 불교를 작가로서 추구해야 할 것, 지녀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 이유는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했다는 시간적 명분과 함께 불교의 위대함에 있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의 근거는 불교가 인류세계사라는 것이다. 석가모니의 인도에서 시작되어 아쇼카왕의 시절과 알렉산더가 지나간 간다라와 터키를 거치고 중국을 거쳐 우리 땅까지, 그리고 큐슈에 이르는, 그 웅장한 역사가 우리 땅에서 지속됐고, 그 핵심이 우리 땅에 오래 전에 와 있다는 것이다. 그 증거가 경주라는 것이다. 그 위대함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한 채 살고 있고, 주목하는 눈이 없음을 그는 안타까워했다. 그는 역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야의 시절까지 엄연한 우리의 불교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의 정체에 관한 그의 포용은 그토록 진지한 것이다. 그의 소설 〈삼국유사 읽는 호텔〉은 그 진지한 믿음의 실천이다.

그렇게 윤후명이 지닌 불교는 자신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고,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결론이다. 그는 좀 더 ‘우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인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1992년 조계사불교대학에 입학에 불교 공부를 다시 했고, 1944년에는 포교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윤후명의 문학 50년

윤 작가는 1946년 강릉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백일장과 〈학원〉지 공모 등을 통해 문학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학년 때 성균관대 백일장에 장원하면서 시인의 꿈을 품었다. 그리고 196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 ‘빙하의 새’가 당선되어 문단에 섰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1969년 강은교, 김형영, 박건한 시인과 시 동인지 〈70년대〉를 창간했으며, 1977년 첫 시집 〈명궁〉을 출간했다. 시집 해설 〈캄캄한 세계 속에서의 완강함〉에서 문학평론가 김종철은 “대부분 한(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시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애상이나 자기만족적인 슬픔의 제스처가 아니라 오히려 끝없이 불안한 긴장된 분위기”라고 평했다. 아마도 그 ‘긴장된 분위기’는 불완전한 ‘나’의 표현들이 아닐까. 그렇듯 그의 시들 전반에 흐르는 정서 역시 ‘길에 서있는 윤후명’이다.

“날새의 제일 유심히 반짝이는/ 두 눈깔을 꿰뚫음에/ 공명(共鳴)하며 하룻밤을 흔들린 이의/ 사무치는 뜬 눈의 웃음/ 드넓고 광포해라,/ 새가 온 들을 채어 쥐고/ 한 기운으로 푸드드득 오를 때/ 활짝 당겨 개이는 먼오금/ 숲과 들을 벗어나 휘달려 / 그는 죽음의 사랑에 접근한다”

첫 시집의 표제시 ‘명궁’의 부분이다. 시인 윤후명은 시에서도 본질적인 핵심을 꿰뚫으려 한다.

문학평론가 이승하는 평문 〈70년대 우리 시〉에서 “1970년대 가장 특이한 서정시집은 〈명궁〉이었다. 현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시단의 주류를 형성했던 시기에 이러한 초월적 에스프리는 단연 이채를 띠었다.”고 〈명궁〉의 문학사적 의미를 찾았다. 그랬다. 윤 작가는 시에서도 윤후명의 방법론에 충실했다. 아름다운 문장을 추구하는 작가 윤후명에게 소설이 마당이라면 시는 날개다. 그 후로 윤 작가는 〈홀로 등불을 상처 위에 켜다〉 〈쇠물닭의 책〉 〈강릉 별빛〉 시집을 출간했다.

시인 등단 후 10여 년 간 삼중당, 샘터사, 삼성출판사, 계몽사, 독서신문사, 현암사 등 여러 출판사를 거치며 힘겨운 시절을 맞기도 했다. 가난도 있었고, 방황과 그로 인한 병마도 있었다. 윤 작가는 10여 년 간의 방황을 접고 197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산역〉이 당선되면서 시와 소설을 병행한다. 〈둔황의 사랑〉 〈부활하는 새〉 〈원숭이는 없다〉 〈오늘은 내일의 젊은 날〉 등 지금까지 12권의 소설전집을 출간했다. 그리고 얼마 전, 그의 문학 50년을 정리하는 〈시인 소설가 화가 윤후명 문학 50년-문학나무〉을 출간했다.

그리고 그는 그림에도 일가를 이뤘다. 개인전 2회와 초대전, 다수의 단체전 등에 작품을 전시하며 활동 중이다.

“우리 불교 제대로 아는 게 급한 불사”

“스님의 일대기도 필요 하겠지만 좀 더 깊은 관찰에서 시작되는 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불교가 어떤 불교인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실들을 보편화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게 가장 급한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불교가 인류세계사임을 깊이 인식하고 작은 불교와 큰 불교가 어우러지기를 바랐다.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당당해질 수 있다고 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당당한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불교를 전하는 사람 역시 당당하고 제대로 된 불교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윤후명의 불교는 철저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러면서도 감각적인 사고가 그 배경이다. 그 아득한 시절로부터 전해오는 막연한 지난 시간을 알아듣고 받아 적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매주 아내와 함께 절에 간다. 부모님의 위패를 모신 서울 조계사 마당을 거닐고 나무 옆에 나무처럼 서있다 돌아온다. 절 마당만 거닐다 오는 것이 신행의 전부라고 말하는 그이지만 왠지 그의 불교가 만만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고마운 일이다.



1983년 윤후명 작가는 소설 〈둔황의 사랑〉으로 제3회 녹원상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은 故 녹원 스님.



2007년 〈촛불 렙소디〉로 현대불교문학상 수상.


1984년 〈누란〉으로 소설문학상 수상(사진 좌).

윤후명은?

1946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했고 196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 ‘빙하의 새’가 당선됐다. 1969년 시 동인지 〈70년대〉를 창간했고, 삼중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여러 출판사에서 근무했다. 1977년 첫 시집 〈명궁〉을 출간했다. 197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산역〉이 당선되어 소설가와 시인의 길을 병행한다. 저서로 〈명궁〉 등 시집 4권이 있고, 〈둔황의 사랑〉 등 12권의 소설전집이 있다. 그외 산문집 〈이 몹쓸 그립은 것아〉 등과 장편동화 〈너도밤나무 나도밤나무〉가 있다. 1983년 〈둔황의 사랑〉으로 제3회 녹원문학상, 1984년 〈누란〉으로 제3회 소설문학작품상, 1994년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로 제39회 현대문학상, 1995년 〈하얀 배〉로 제19회 이상문학상, 2007년 제10회 김동리 문학상과 현대불교문학상을 수상했다. 문학비단길 고문과 국민대 문창대학원 겸임교수, 체코 브르노 콘서바토리(한국) 교수를 역임했다.





佛紀 2562年 戊戌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B3

좋은 벗이란 고락을 함께 하고 이익을 나누며 상대방에게 직업을 갖게 하고 늘 어진 생각을 한다. (선생자경)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지 정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508-4870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
[부설] 삼계선원. 참선반. 금강경 강좌
불교대학. 성현덕회. 지장회. 단월회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69번길 15(삼계동)
TEL 055)333-8202 / FAX 055)333-8203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덕사
(부산지방문화재 3호 만덕사지)
주지 금산 박혜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만덕동)
TEL 051)334-3009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주지 운암 현엽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제도로 29
TEL 051)271-2774

대한불교조계종
참회기도도량 **문수사**
회주 법흥
주지 지원
신도회장 신선덕행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호(용당동)
TEL 051)624-3754, 7848 / FAX 051)623-9253

대한불교조계종
자비도량 원오사
회주 고원 명정
주지 정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 124-5
전화 051)542-7979, 545-7949

마음챙김 MBSR명상교육도량
시선원
지도법사 우현 조원경
MBSR은 마음챙김 명상에 근거한 과학적인
스트레스 관리 행복명상 프로그램입니다.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 308 11층
TEL 051)746-7611
cafe.daum.net/sisunwon

한국불교태고종
천불정사
주지 선묵 고담
총무국장 심일
원주 조정자
신도회회장 이정민 변호사 신도회부회장 양귀임 박상옥
신도회총무 김영애 거사림회장 이경철
사부대중 신도일동 합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장전동)
종무실 051)583-9233 FAX 051)583-6362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주 혜총
원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4(구포2동)3-4층
TEL 051)338-1008. 337-1080

부산교수불자 연합회
대동대학, 동명대학교, 동부산대학, 동아대학교,
동의과학대학,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춘해보건대학. 해양대학교 (무순)
회장 장상목
임원일동
- 대학생불자 활성화 사업 : 대학생 매월 금요법회, 템플스테이, 초청법회, 학생회 활동 지원사업 등
- 대학생불자활성화를 위한 108인 후원회원 모집
참가문의 : 010-7268-9959(장상목 교수)
동참방법 : 농협 301-0169-1519-21(예금주 : 부산교수불자연합

地藏佛教根本道場 **대연정사**
주지 능후
사부대중 일동
WWW.dytemple.net
■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69번길 8
TEL 051)625-3886

부산진구불교연합회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으로
온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됩시다.
회장 세운 · 회원스님 합장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직전회장 김태훈
회장 유진상
수석부회장 류영철
감사 서재원
청년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13 불교회관 4층
전화 051)809-1996 팩스 02)6008-4245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부산포교당 반야참회교육도량
센텀일심사
· 조선불교 유신론 강의 (서울, 2018.1.17~ 3개월과정)
· 인도철학과 불교 강의 (부산, 2018.1.10.~ 3개월과정)
주지 혜룡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1로 35 창광빌딩 3층
전화 051) 781-0543
http://cafe.daum.net/BanyadMeeting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산 원광사
주지 인오
신도회장 덕명심
장학회장 웅산 이병욱
■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3-22 금정산 원광사
전화 051) 502-0001

2018년 무술년 길상여의
원만하시길 발원합니다.
길상사 사부대중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길상사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17
사무국 : 070-413-84000 (팔만사천)

새해 무술년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 가득하소서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주지 석반산
신도회장 정광덕심
거사회장 이낙균
사부대중일동 합장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위천1길 48
전화 055) 374-6313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부산분원
관음사
늘기쁜마을 관음사
cafe.daum.net/gwanumsa1
■ 부산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051)294-9300

(주)한마음 윈스피아
영림 PVC창호, 도어 제작 및
통합인테리어 시공서비스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산봉로 19 (청학동)
전화 051)412-4287 팩스 051)412-4286

(주)엘티유이엘씨
대표이사 하만두
전기공사, 전문소방공사, 일반건축, 실내건축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1길4, 102호
전화 051-728-5562 팩스 051-557-5587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 범어**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영양증진지원사업 동참 발원자를 모십니다.
- 한구좌 : 5천원 / 월
- 후원동참문의 : 전화 080-077-7770

전등사
주지 도문
신도회장 유명진
등불회장 금선화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978-1
TEL051)552-1283

맑고 향기로움이 머무는 백옥 부처님 천불도량
봉화산 길상사
주지 자인
연등회회원일동
관음회회원일동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촌소류지길163-4(송정동)
전화 051)973-5224, 3076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석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TEL 054-633-3464

佛紀 2562年 戊戌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B4

비난만을 받는 사람도 없으며 칭찬만을 받는 사람도 없다. (법구경)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 釜山佛教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최 찰. 이상태.
하문원. 박수복
부회장 이근철. 이달수.
강양수. 정영철
감 사 지호경. 박신욱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송우근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연수이사 박주영
부총무 양동회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TEL 070-8133-9917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주 지 혜 총
부주지 경 성
총 무 경 원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 432(전포동)
TEL 051)809-0926 / FAX 803-0188

(감로사에서 지원하는 복지기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재가노인복지센터
꿈나무아동발달센터
용 호 어 린 이 집

무료급식 (매일 200여명)
노인대학 (매일 200여명)

■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7
TEL 051)628-6737-9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산 **홍 제 사**

황령선원(재가선원)

선원장 혜 국
주 지 성 문

매월 음력 초하루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신중기도 (3일간)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 노인요양시설 효림원(부산)
- 정토노인복지센터(부산)
- 노인요양시설 정효원(제주도)
- 무료양로원 법성원(충주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TEL 051)802-0130 www.hjsa.or.kr

마음 편한 절
관음기도도량

☸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 지 종 호
사부대중 합장

"가장 행복한 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복공감 평생교육원



부처님 빛이 온 누리에

Buddha Gaya

불교전문 편집회사

대한기획

도서출판
불교서적 · 용품

부다가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40(양정동) 1 · 4F
대표전화 | 051)865-4383
E-mail | daehana@korea.com

동래구불교연합회

회 장 자 관
부 회 장 효문. 법관
감 사 법천. 문수
사무총장 안국
총무국장 자운
교육국장 도화
사업국장 일공
재무국장 성화
총무부국장 도법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원 일동
동래구불교연합 신도회장
박종원외 회원일동

■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가길 46(자비암)
TEL 051)552-3320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심산, 고담
해암, 이동권, 이승표,
이욱태
감 사 성림, 문연주
기획이사 마나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혜산
자살예방이사 하림

이 사 일 동

생명나눔부산 자살예방센터 051) 442-0429

■ 부산 동구 고관로 67, 3층 (수정동, 대성빌딩)
TEL 051)853-0429 / FAX 051)853-0439
www.bslisa.or.kr / www.bsmy-life.or.kr

동래 읍성

마안산 자 비 암

주지 청암 자관

신도 일동

■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TEL 051)552-3320

㈜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박영근
상임고문 박수관
고 문 박순곤 허인구 설동근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이윤희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박민식
상임부회장 최주덕
부 회 장 김수현 김종백 배영호
배상진 공정근 최삼섭
양재생 신재철 최금식
김선오
감 사 강갑균 최상곤
사무총장 장병주
재무총장 이현수
기획이사 김성규
섭외이사 김선일
친목이사 배도정
홍보이사 정종원
조직이사 이남현

이사 회원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705 (부전동 유원골든타워)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Since 1999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대표이사 정여 상임이사 원광
이 사 범산. 정현. 명현. 성문. 세운. 심산.
정오. 보혜. 박대성. 김수현
감 사 이륭우. 이혜정 사무총장 윤기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3층
전화 051) 753-9907
홈페이지 http://www.bswia.org/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 현 정 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최본자성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전진호

회 원 일 동

■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TEL 051)636-4531

자비 실천하는 여성불자회
내가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여성불자회

부산여성 불자회

총 재 혜 총

자문위원 이의자 백명숙 김순례 박신자

회 장 왕선자
후원회장 정관희
부 회 장 김도연 정정자 유영남
김정화 정순천

총 무 박정림 김선미

재 무 서정례 손하영
감 사 이은선 이명희
봉 사 김미경 엄경희
운영위원 전위미 한순점 권정미
박화자 이석순 김희숙
최연화 신명희 김무련

이사 · 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13
(양정동, 불교회관 4층 402호)
전화 051) 817-3166, 3168

PyeongChang 2018™

수행·스포츠는 不二
"평창서 날개 펼치길"



인고의 시간 이겨낸 그대들에게

지상 스님 조계종 기획국장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고, 혹한의 날씨처럼 혹독한 자기 단련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평창올림픽 무대에 서게 된 불자 선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스포츠 선수와 수행자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깨달음의 산에 오르기 위해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끝없는 자산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불자 선수 여러분 또한 수면과 음식 그리고 즐기고자하는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되셨을 겁니다. 깨달음에 한 발 다가설 때 오는 수행자의 희열과 결승선을 통과하고 성취하는 선수들의 희열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보면 수행자와 스포츠 선수의 마음이 어찌 둘일 수 있을까요(不二).

불자 선수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보고 싶습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스님들과 불자,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짜릿함과 기쁨을 전해주실 선수들에게 축원의 기운을 보내 드립니다.

우리 스님들은 법당에서 축원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힘들고 불안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안정을 찾고, 긴장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한 너무 지나친 경쟁과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올림픽 축제의 장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승리자이고 수행자입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스님과 불자들은 여러분의 몸짓과 용기를 환희로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에 담긴 노력과 인욕을 알고 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자기자신 내면처의 근본에
길이있고 이끌어가는 스승이 있다

– 대행선사법어 –

대한불교 조계종 광명선원
사부대중 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佛心 마주할 '금빛 환희' 평창 달군다

불자선수 누가 나서나


모태범 선수


심석희 선수

2018평창동계올림픽에는 지난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한 불자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최근 컨디션도 최고조에 올라 끝없는 노력과 불심을 바탕으로 금빛 환희를 마주할 것이라는 대중의 기대가 높다.

대한민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간판인 이상화 선수는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에 이어 평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올림픽 3연패의 대업에 도전한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를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화 선수는 조계종 종립학교인 동국학원 산하 은석초등학교 졸업생이다. 정토심이란 불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독실한 불자이기도 하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모태범 선수 역시 은석초등학교 졸업생으로 이상화 선수와 동기동창이다. 남양주 봉선사 신도로 알려진 모태범 선수는 밴쿠버올림픽에서 남자 500m 금메달과 1,000m 은메달을 따내며 '모터범'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소치올림픽에서 각각 4위, 12위에 머물며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이에 두 팔에 'Sustine et abstine(참고 절제하라)' 'Acta Non Verba(말보다 행동)'을 라틴어로 새기고,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사실상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각오로 금빛 질주에 나서겠다는 각오도 언론 인터뷰서 밝혔다.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는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17살 나이로 대표팀 막내였지만 이제는 간판선수로서 대회에 나선다. 심석희 선수는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불교와 인연을 맺은 뒤 항상 손목에 단주를 차고 다닌다. 2014년 불자선수인 조해리 · 공상정 선수와 금메달을 딴 뒤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함께하며 구룡마을서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이상호 · 최보군 선수와 하프파이프 이광기 선수는 우리나라의 '설상 징크스' 깨기에 도전한다. 우리나라는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6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10개를 따내 총 53개의 메달을 획득했지만 모두 빙상 종목에서 얻은 것이다. 스키와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등 얼음이 아닌 눈 위에서 진행된 종목에서는 아직까지 메달을 따지 못했다. 특히 평창올림픽에 걸린 금메달 102개 중 50개가 설상 종목이어서 이들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이상호 선수

세 선수 모두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과 인연이 깊다. 호산 스님은 2003년부터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를 개최하며 한국 스노보드계 성장을 이끌었다. 현재 국제대회 출전에 필요한 FIS 포인트를 쌓을 수 있을 정도로 대회 규모가 커져 국가대표급 선수들 참여가 대폭 늘었다. 호산 스님은 선수들의 유년시절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선수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는데 기여해왔다.


이상화 선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진제공=대한체육회

올림픽 어떻게 진행되나

평창동계올림픽은 2월 9일 오후 8시 올림픽 스타디움서 개막한 이후 25일까지 숨 가쁘게 이어진다. 총 15개 종목서 102개 경기가 펼쳐지며 전 세계 선수들이 메달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다.

이번 대회 종목은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컬링 △피겨 스케이팅 △프라스타일 스키 △아이스 하키 △루지 △노르딕 복합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스켈레톤 △스키점프 △스노보드 △스피드 스케이팅이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8개를 포함, 20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성적 4위를 달성한다는 각오다.

"모든 선수 이름 부르며 응원해주세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불자선수를 비롯해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인기 · 비인기 종목 모든 선수들까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며 응원한다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응원이 선수들에게 닿길 기원합니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40일가량 앞둔 새해 첫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은 본지 인터뷰서 좋은 성적을 내고자 구슬땀 흘리는 선수들을 위해 불자들이 앞장서 응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림픽 기간에도 선수촌 내 종교시설이 운영되는 만큼 불교계의 각별한 관심이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먼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각지에서 노력하는 종교계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는 "대회안내, 운영지원, 의전, 통역 등 약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 가운데 종교계 역할이 크다. 불교의 경우 강원도 내 주요사찰과 수도권 외국인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중심으로 통역 전담 봉사자를 배치하고, 강원지역 문화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개인과 국가 명예도 드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현재 대한체육회는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이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대표팀에 외국인지도자와 장비전문가, 전담 트레이너 등을 배치하고, 동계선수 전용숙소 및 훈련시설 등을 확보했다. 30년 만에 국내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 반열에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

신심 깊은 불자이기도 한 이 회장은 평창서 열리는 올림픽이 불교문화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불교계는 스포츠 포교에 관심은 있지만 활동영역 폭이 매우 좁다. 타 종교 성공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포교한다면 젊은 불자가 감소하는 이 시대에 좋은 포교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스포츠 포교에 나서 침체된 불교계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謹賀新年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大韓佛教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 유 큰스님
주 지 경 선
총무국장 보 운
범어사 신도회 합장
매월초하루 큰스님 모시는 화엄대법회
- 화엄천일기도 -


www.beome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 (051)508-3122

“오색찬란 산사의 멋”… 올림픽 ‘100배’ 즐기기

강원도 5대 사찰 테마여행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국내 올림픽에 전국이 기대감으로 들썩인다. 하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장만 찾아다닌다면 정작 강원도의 알짜배기는 그냥 지나치는 셈이다. 강원도가 낯설기만 한 이들을 위해 강원도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공동으로 ‘강원도로 떠나는 테마여행’ 코스를 마련했다. 낙산사 · 백담사 · 삼화사 · 신흥사 · 월정사 등 강원도 5대 명찰로 연계된 코스로 5색 산사를 즐겨보자. **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평창올림픽 홍보체험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인 강릉 경포대 인근이다. 동계스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D체험관 등이 마련돼 있다.

오죽헌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집으로 조선시대에 건축됐다. 한국 주택건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손꼽히기도 한다.



주문진 도깨비촬영지

종편드라마로 최고시청률 20%를 달성한 ‘도깨비’의 촬영지인 영진해변의 주문진 방사제. 드라마 방영 이후 로맨틱한 장면을 재연하려는 연인들의 인기 관광지가 됐다.

통일전망대

휴전선과 남방한계선이 만나는 해발 70m 고지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 금강산 구선봉과 해금강이 지척에 보이며, 맑은 날에는 옥녀봉, 채하봉, 일출봉 등을 볼 수 있다.

DMZ박물관



한국전쟁 기록을 비롯해 분단 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보존돼 있는 DMZ의 모습을 전시물과 영상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화진포의 성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석조건물로 지어진 화진포 성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김일성이 하계휴양지로 이용해 김일성 별장으로도 불린다.



묵호항

동해를 대표하는 항구다. 1941년 동해안 제1의 무역항으로 개항했으며, 현재는 어업기지로 바뀌었다. 어시장에서 싱싱한 횟감을 구할 수 있고, 생선 경매 장면도 구경할 수 있다.

천곡동굴



총길이 1.4㎞의 석회암 수평동굴로 4~5억 년 전에 생성된 천연동굴이다. 국내서 유일하게 시내 중심부에 있으며 천장 용식구, 커튼형 종유석, 석회화단구 등을 볼 수 있다.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곰솔과 기암괴석으로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해양레일바이크로 아름다운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5.4㎞ 복선으로 운행되고 있다.

흔들바위

4~5명이 팔을 벌려 감싸 안을 수 있는 정도의 바위로 일명 쇠뿔바위라고도 한다. 한 사람이 흔드나 여러 사람이 흔드나 똑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설악산 팔기(八奇)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권금성



설악동 소공원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오를 수 있다. 기암 능선이 즐비한 설악산 전경과 맑은 날에는 동해와 속초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척산온천휴양촌

지하 4,000m에서 형성된 53℃의 데우지 않는 천연온천수로 수질이 매끄러운 것이 특징이다.



상원사

상원사 동종은 국내 현존하는 종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아름답기로 손꼽힌다. 725년에 만들어진 이 종은 높이 167㎝, 지름 91㎝ 크기의 구리종으로 국보 제36호로 지정됐다.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전망대에 올라서면 대관령 정상에 선 듯 아름다운 평창 알펜시아의 전경과 웅장한 대관령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스키점프대 최상층에는 전망대, 레스토랑, 카페 등이 있다.

대관령 양떼목장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한국 최초의 양 목장이다. 넓은 초원에서 300여 마리의 양떼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뛰어노는 풍경과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대행 중봉 성파 대종사

주 지 향전 영배

유 나 보장 영일 총무국장 혜철 포교국장 선림
율 주 중산 혜남 교무국장 인경 호법국장 자인
강 주 영은 현진 재무국장 무문 원 주 선원
박물관장 지준 사업국장 석운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佛紀 2562年 戊戌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B8

유일한 진실을 어기고 거짓을 말하는 자, 저 세상을 포기한 자에게는 행해지지 않을 악이 없다. (법구경)

37년 전통 전국 최고

부산불교교육대학

• 신입생 합동 입학식 •

2018년 3월 8일(목) 오후7시

교리학과 불교학과
불교대학원 불교문화학과
불교의식학과 장례지도사과
불교풍수학과 불교인문학과
명리학과 수화과
합창단 다도과 무용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O/T 5층 (서면 롯데백화점 건너편)
전화 051) 711-0700

금정구 불교연합회

고 문 경선(범어사) 계전(국청사) 수불(안국선원) 월인(승가종 종정) 문덕(광명사) 동원(연화종 종정)
회 장 고담(천불정사)
수석부회장 지홍(보광정사)
상임부회장 혜창(원효사)
감 사 지공(불이중도선원)
부 회 장 법일(법장사)
사 무 총 장 동암(금용사)
기 획 국 장 석산(안국선원)
문 화 국 장 지광(대원사)
사 회 국 장 혜공(구룡암)
포 교 국 장 현수(홍법사)
사 업 국 장 지덕(달오사)
사 서 국 장 심일(천불정사)

금정구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주지 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천불정사
TEL 051)583-9233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회 장 설정 조계종총무원장
부 회 장 백운 태고종총무원장
춘광 천태종총무원장
회성 진각종통리원장
원행 조계종종회의장
홍파 관음종총무원장
이 사 장 홍파 관음종총무원장
부이사장 인구 보문종총무원장
사무총장 향운 원효종총무원장

여 성 부

회 장 백명숙(대일심)
부회장 박동희(만월심) 총무 박정자
재 무 조원숙 감사 남영희
운영위원 김경수 김동희 김명애 김예영 옥영숙 우정해 옥영숙 정지연
국제협력부장 서경순 문화홍보부장 김민경

대 한 불 교 진 각 종

부산교구청

교 구 청 장 진광
종 무 국 장 원영

부산교구신도회
신교도 일동

■ 부산 동구 구청로 18-1
TEL 051)464-0668

(사)향기로운 문화동행

백의관음대불 청량사

주 지 보혜
청량禪문화원 원장 홍성숙
청량선다회 회장 장옥순
(사)향기로운문화동행 운영위원장 김순애
신도회장 장외숙
청량합창회 단장 이미경

정기법회
· 매월(음) 1일 초하루법회
· 매월(음) 15일 보름법회

불교대학 기초교리반
(금요일 저녁7시)
· 다도 다화 선차반 모집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임밖길 12 (지하철 안평역 4번 출구)
TEL : 051)723-1851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경 선
부 총 재 목 종
사무총장 효 산
협 회 장 백명숙
사무처장 천용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문화로27, 1206호
전화 051)513-4306
팩스 051)513-4307

부산광역시

연제구불교사암연합회 연제구불교신도연합회

회 장 무 관

회 원 일 동

부산의 행정중심 연제구불교사암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쇠미산 금 용 암

주 지 무 관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지곡로111(거제동)
TEL 051)501-6300 Fax (051)502-6304

청정기도도량 (부산시청 뒤)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부설-자선단체)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前범어사 주지)

영 도 대 흥 사 주 지 정여
대연동 붓다선원 주 지 도경
삼랑진 여여정사 주 지 도명
김 해 여여정사 주 지 도명
해운대 여여선원 주 지 도우
양 정 바라밀선원 주 지 효산
사량도 관음낙가사 주 지 효원
울산 여여선원 주 지 효암
동 래 효 심 사 주 지 효문
금 정 보현선원 주 지 효범
기 장 여여힐링선원 주 지 효운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여여선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94 7층(인재빌딩)
TEL 051)853-5486~7, FAX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 TEL 051)702-9944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 서 사

주지 무여

문수선원.
불교대학.대학원
축서사바라밀 합창단

사부대중 일동

축서사 극락원
(수목장)자연과함께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장묘문화

■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 739번길
전화 054)672-7579

대한불교조계종

용 문 사

주지 청안

사부대중 일동

예천용문사에는 국내 유일한 보물 대장전의윤장대와 목조삼존불이 있으며 대장전안에는 불교경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서 극락정토를 염하는 유일한 중요문화재이며 회전식 장경각이다. 성보박물관에는 탱화와 영정. 불상 등 많은 불교유물이 전시되어있다.

「 사찰문화를 체험할수있는 템플스테이도 운영 」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TEL 054)655-1010

나의 체질을 아시나요?

100세 시대는 체질을 알아야 미리 예방하여 병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인체에 대하여 공부한바로 나의 체질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고 체질을 알아야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먹을 수 있고 병은 체질에 맞는 한약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나의 체질이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H·P 010-3522-2429

佛紀 2562年 戊戌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B9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준비하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할 일을 해야 할 때 당황하지 않는다. (본생경)

울산유일의

영구봉안 납골당

정토사 극락원

도심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의장등록 제0362069 정토사 유골함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17번길 15 (옥동)
전화 052)258-9944, 212-7000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사

복합문화공간
KUmuda(쿠무다)

채움 나눔

주 지 주 석
사부대중 일동

GIVE

● 대운사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곳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곳
그래서 더 행복이 충만한 곳

● 복합문화공간 KUmuda (쿠무다)

책과 커피 그리고 감성이 있는 공간
쿠무다는 북콘서트, 전시회, 공연등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www.daeunsa.net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1-21
051)701-7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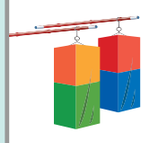
사상구 불교연합회

고 문 청강(옥천사) 혜지(낙은사) 경호(법성사)
성비(영수암) 종욱(승학사) 법공(칠보정사)
직전회장 유정
회 장 성문(선광사)
수석부회장 성림(관음사)
부 회 장 지관(약수암) 대둔(용운사)
총무국장 법경(광명사)
포교국장 은적(관음사)
사회국장 향공(견강암)
감 사 진각(홍덕암) 혜산(봉덕사)

사상구불교연합회 회원일동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
이상갑 회장 외 회원일동



■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번길 32-123 (선광사)
전화 051)303-4848



부산 연제구
송광정사

주 지 진각 (교육학박사)

- 서울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서울 동국대학교 부산동창회 홍보국장
- 무료 어린이한자교실 토요스쿨11년째 운영
- 부산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 외래교수

■ 부산 연제구 연수로225번길 15
전화 051) 867-8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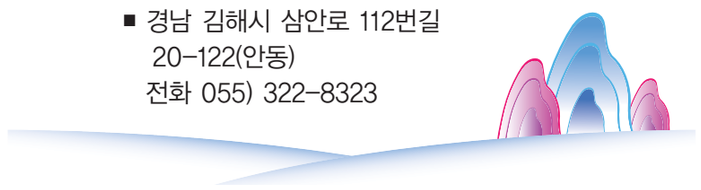
김해 신어산 천불사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주 지 권무애

신도회 합장

■ 경남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20-122(안동)
전화 055) 322-8323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백옥 관음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고촌 고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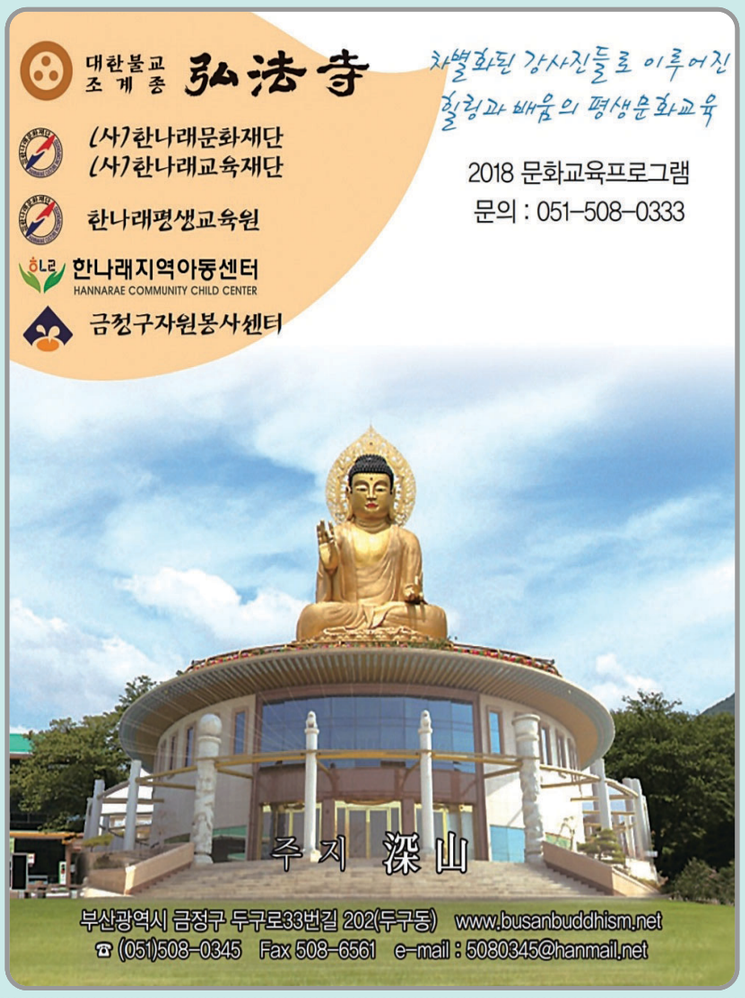
▸ 매월 33 관음성지순례봉행
- 12차 순례지 : 해남 대흥사(선원 대중공양), 미황사
- 일 시 : 무술년 2018년 1월 30일(화)
안평역 오전 6시30분, 부산교대역 7시 출발

▸ 탑돌이 걷기명상 힐링도량

회 주 산해
주 지 해륜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안평역 3번 출구 700m
051)721-2927
법당문의 010-3891-2137





향기로운 인연 향기로운 세상

부산기장군불교연합회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

부산기장군불교연합회
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외
회원스님 일동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
이재순 회장 외 회원일동 합장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482 (장안사)
(051)727-2392~3 Fax 051)727-2394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통도사

창원포교당 구룡사

주 지 은암 신공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56번길 31-1 (소답동 909)
055)294-3279 www.guryongsa.net



천하 풍미한 선의 上流를 맛보자

윤창화의
중국 선원의 생활과 철학



그림 · 강병호

① 한국 禪의 원류

우리나라 불교 수행법은 선(禪)이다. 90년대 위빠싸나가 처음 들어온 이후 선(禪) 일색에서 좀 탈색되었지만, 여전히 선은 한국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오도(悟道)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선은 대내외적으로 거센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해 있다. 수행 · 사상 · 문화적으로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은 수행방법과 오도(悟道) 시스템, 그리고 지도방법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도 체계화 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있지만 '오직 모를 뿐[但只不會]'이다. '오직 모를 뿐' 더 이상 창의적으로 진여불성을 싹틔우지 못하고 있다.

선원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좌선을 하고 있지만, 위빠싸나를 하는 것인지, 간화선을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고, 화두를 들고 있는 것인지, 혼침(昏沈, 졸음)과 도거(掉擧, 번뇌) 속에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문제점은 개개인의 참구상태나 수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무관심 속의 방목선(放牧禪)이다. 과연 이런 무체계한 방식으로 깨달은 부처를 이룰 수 있을까? 혹시 막연히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닌가?

동아시아 '선불교 수행지도(地圖)'를 펴놓고 보았을 때, 지금 한국의 선은 어디쯤 있는가? 한국의 선을 수행 · 문화 · 사상적으로 그 원류인 당대(唐代) 조사선(순수선)이나 또는 송대 공안 · 간화선과 비교했을 때, 현재 그 원형이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문화혁명을 거친 중국 선불교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원형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곳은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일본 선종사원, 그 중에서도 영평사(永平寺)다.

한국 선불교는 금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몇 가지 수행법, 혹은 선병(禪病, 弊害)이 생겼다. 그 하나가 이른바 "술을 먹어도 반야의 선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음주식육무방반야 수행법(無妨般若修行法)'이다. 이 특이한 '새로운 수행법'은 곧 '한국형 선병'으로 발전하여 한국불교를 망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주/注 : 이것이 한국 선불교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다).

또 선병 가운데 하나는 "무엇을 하든 항상 여여(如如)하게 본래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본래자리병'이다. 자신은 무엇을 하든 항상 본래면목(불성)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토굴에서 무사안일에 침잠해 있는 '무사안일 토굴병(無事安逸病)', 그리고 '한국 간화선이 최고'라고 하는 '한국 간화 아만병(我慢病)' 등이다. 이 신종 선병은 한국선, 더 나아가 한국불교를 멍들게 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다 '선'이라면 구태여 화두를 들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것은 오히려 부질없는 망상이 아닐까?

한국 선불교에 이런 불치병이 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수행의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선원에서 '독참(獨)' 기능이 사라진 때부터라고 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는 '무애'라는 미명 하에 음주식육 등 파계가 횡행하던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선(禪)뿐만이 아니고 한국불교 전체가 망가지고 병들기 시작했다.

중국 북송시대 1103년 장로종색 선사가 편찬한 〈선원청규〉에는 "음주를 하는 자는 승복을 벗겨서 추방하라"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육을 하는 자도 참회하지 않으면 추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 추방할 때는 반드시 대중공사를 거쳐야 하고, 음주나 식육 사실이 확인되면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승려증(도첩) 등 도구 일체를 박탈하고 곤장을 쳐서 편문(偏門, 쪽문)으로 내쫓아버리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문서적 규정에 그친 것이 아니고 당시 선원총림에서 실행되었던 규정이었다.

'독참'은 법문과 함께 선종사원의 가장 중요한 오도(悟道) 시스템 가운데 하나이다. 1대1로 방장스님과 독대하여 참구하고 있는 화두(공안)에 대하여 지도, 점검받는 것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개별지도, 개별적인 카운슬링과 같다.

독참은 의무적이고 정기적인 것이다. 당 · 북송시대까지는 이틀에 한 번씩 있었고, 남송시대에는 5일에 한 번씩 있었다. 즉 3일 · 8일 · 13일 · 8일 · 23일 · 28일로, 한 달에 여섯 번 있었다. 독참은 매우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오도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독참은 조실이나 방장이 납자의 참구 상태를 예리하게 점검하고 다그치는 것인데, 독참을 하는 날은 사실상 참선수행자로서는 호랑이 입 속으로 머리를 들이대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목숨은 붙어서 살아서 나오기는 하지만 조실의 질타에 모두 다 초죽음이 되어 나온다. "살았구나. 오늘은" 하고.

그리고 방장이나 조실의 법문은 5일에 한번 씩, 즉 1일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로서, 모두 한 달에 여섯 번 있었다. '5일마다 법당으로 올라가 법문을 한다'고 하여, '오참상당(五 上堂)'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안거 90일 동안 딱 2번 결제일과 해제일에만 있다. 상당법문은 아무리 적어도 15일(보름)에 한번 씩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반야지혜를 갖추어서 정혜쌍수가 될 수 있는데, 방장이나 조실이 없는 선원은 그것도 불가능하다.

한국 선수행 정체성 혼란
'독참' 시스템 부재서 발생
당 · 송 선불교에 해답이

방장의 법문은 정견(正見) · 정안(正眼) · 선안(禪眼)을 갖추게 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정견을 갖추면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있고 수많은 언어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병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 법문은 경전을 강의하지 않는 선원에서는 교학적인 간극을 메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깨달아도 법문을 하지 못하면 겨우 혼자 왕생극락할 뿐, 중생을 데리고 가지를 못한다.

당송시대 마조, 조주, 임제, 운문문언, 원오극근, 대혜종고, 굉지정각 같은 선승들은 대단히 박학다식했던 이들이었다. 특히 〈벽암록〉의 편찬자 원오극근은 무려 100칙의 공안에 대하여 착어와 평창을 붙였는데, 중국 고금(古今)의 문물(文物)이 모두 다 〈벽암록〉에 집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당(盛唐)시대의 왕유, 북송의 제일의 시인인 소동파, 그리고 황정견, 왕안석 등 천재 소리를 듣던 지식인들이 모두 선종사원으로 투항한 것은, 선승들이 표출하는 격외의 시상(詩想)과 송고(頌古) 등 선시(禪詩) 문학에 정신을 홀딱 잃었기 때문이다.

당송시대 선불교는 과장한다면 중국 사상계와 종교계를 석권했다고 할 수 있다. '위진현학,' '당송불학', '송명이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은 당송시대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지식인들은 선을 모르면 그는 일단은 지식인이 아니었다. 선시 한 구(句)를 짓지 못하면 지식인들의 모임에 나갈 수가 없었다. 다관(茶館)에서든 음식점이든 선을 모르면 대화의 축에 낄 수 없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국 선불교가 오도(悟道)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독참과 법문(상당법문) 기능을 부활시키거나 갖추지 못한다면, '성불작조'(成佛作祖, 부처와 조사가 됨)란 요원한 일이다. 선원은 이름뿐인 선불장(選佛場)이 될 수밖에 없다. 대사일번(大死一番, 크게 한 번 죽는 것)해야 한다.

스스로 활인검(活人劍)을 뽑아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성불작조(成佛作祖)'란 선원을 배회하는 깨닫지 못한 유령들의 호곡(號哭)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 '안일은 곧 무덤'이다. 수행자로서 방일하면 그 때가 끝나는 날이다. 불원장래, 어쩌면 한국의 선은 '천년의 장기 집권'을 내 놓고 야인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선승은 기개가 출격장부(出格丈夫)이다. 본래면목을 추구하는 뛰어난 장부(丈夫)로서 금생에 '인생의 일대사(一大事)'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생으로 미룬다는 것은 이름을 무색케 하는 창피한 노릇이다. 더욱더 확철대오를 외치는 수행자로서 '음주식육 무방 반야병'에나 걸리고, '무사안일 토굴병' 등 악성 선병에 걸린다면, 이야말로 한국불교는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신세가 될 수 있다.

가을이 다 되었는데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날씨 탓이다. 방일과 담을 쌓고 참구했는데도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적지 않은 수행자들이 '무사안일 토굴병'과 '음주 무방 반야병' '본래 자리병,' 그리고 '간화 아만병' 등 무서운 선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가? 그것으로써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는가? 한국 간화선이 과연 이 깊은 미망으로부터 헤어 나와 미래 한국불교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선(禪)만이 아니고 한국불교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나를 모르고서는 도저히 나를 바꿀(구제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지도가 있어도 찾아갈 수가 없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이는 곧 '나 자신을 알라'는 말이다. 선어에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말이 있다. '다리 아래 발밑(脚下)'을 돌아보라는 말로서, 현재의 자신을 직시하라는 뜻이다. 이 말 하나만 가지고도 선불교는 실존철학, 곧 존재에 대한 철저한 탐구자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 선불교의 모습을 조고각하(照顧脚下)를 해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선불교를 사상적 · 역사 · 문화적으로 그 원류인 중국 당송시대와 비교 · 고찰해 봤을 때, 한국 선은 남송 후기-원대(元代) 선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선(禪)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자체가 원나라(몽고) 불교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남송 후기-원대(元代) 선불교는 불행하게도 당송시대 조사선이 아닌 간화의 말류선(末流禪)이었다. 티벳 라마교와 혼합된 밀교색 짙은 불교로서 대처(帶妻)한 이도 많았고, 또 사상적 · 정신적으로 부패해 있었다. 당(唐) 중기 백장회해에 의하여 처음으로 율종 사찰의 더부살이에서 독립하여 중국 천하를 풍미했던 보리달마의 선불교!!, 부처와 조사의 경지를 뛰어 넘고자 했던 살불살조의 조사선 정신은 여기서 한바탕 장례를 치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자들의 후원도 거부한 채, 백장의 보청(노동) 정신인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생활철학으로, 오로지 성불작조에 매진했던 선종교단은 이 시기(원나라) 두 다리가 부러진 불구 상태였다. 원대 선불교는 이름 뿐, 선의 정신에서 멀리 이탈하여 곧 운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고려 말의 불교는 정치권력과 손을 잡는 등 부패해 있었다. 망가진 원나라 선불교가 밀물처럼 흘러들어 왔다. 주자의 성리학은 거친 목소리로 고려불교를 비판했다. 고려 말의 한국불교는 불행의 순간이었다. 원나라의 멸망과 함께 고려는 멸망했고, 불교는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근하신년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BBS부산불교방송 북항신사옥 건립 원만 성취와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200만 부산불자가 기원합니다.

불기2562(2018)년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
불기 2562년 1월 5일(금) 오후 6시 /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주관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명예회장 이윤희
상임고문 김동열 김선일 김성규 김수현 설동근 이헌승 이영숙 이해동 최익두 하정선
회장 박대성 수석부회장 양재생 상임부회장 공정근 문연주
부회장 김희윤 권승열 권혁란 박해일 박화자 이상갑 이재순 조영득 최주덕
감사 권기우 왕선자 교육학술원장 박영병 사무총장 안병호
이사 강근순 강길주 강미영 강수대 김광호 김도연 김말순 김민성 김상훈 김성익 김순덕 김순례 김영자 김윤희 김주홍 김진영 김태주 김태훈 김필순 김희빈 노연서 노종헌 박수영 박차수 박행운 백명숙 백정진선 변영호 서광자 심성욱 손여래심 심숙자 안소민 안천일 양웅모 여예진 오미희 오수희 윤경석 이갑준 이길문 이동진 이동현 이득재 이숙련 이상조 이승래 이승표 이향란 임성구 장병주 전홍기 정관희 정미자 정분옥 정순천 정연식 정임숙 정종학 정태권 조용진 지명환 최대경 최삼섭 최상곤 최진락 하현주 허장욱 허 준 허창석 황영애 황윤희 홍옥희
직능이사 공일형 금인순 김문희 류강렬 박용하 박창식 손정환 손정현 양지현 윤기혁 이룡우 이명학 이민우 이병호 이혜정 임화일 장문숙 정현숙 주재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401호
전화 051) 861-8800 / 팩스 051) 867-0504



佛紀 2562年 戊戌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B11

온갖 상(相)은 모두가 허망하니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바로 여래를 보리라. (금강경)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영천불교연합회회장
주 지 태 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 지 지 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TEL 054)931-7777
FAX 054)933-0808
www.gwanusa.org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 덕 사

주 지 운 성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 장 운곡 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 룡 사

주 지 효 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H·P 010에9045또9045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주 지 덕 화
회 장 김중근
자원봉사회장 만법화
합창단장 수일심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두리 151
TEL 054)285-8516

마음청정 · 국토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 현 암**

하루헌 ·
영남불교문화원

보현회신도회
사 부 대 중 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휴대폰 010-3534-8950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사

주 지 덕 현

신도 일동

■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곡로
91길 14(지묘236)
TEL 053)983-1816

'태양의 정기를 받은 와불산'
대한불교 조계종
금오산 약 사 암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433의 3
TEL 054)452-8039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주 지 포전 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TEL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용 문 사

주 지 응기應起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휴양림길 132
TEL 053)531-9390
010-6237-5499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선원(팔공산)

사부대중 일동

[부설] 아헹가 요가

■ 아헹가 요가 서울 상담센터
☎ 02)540-0955
■ 아헹가 요가 대구센터
☎ 053)753-3550
■ 아헹가 요가 대구 달서센터
☎ 053)633-3353
■ 아헹가 요가 부산센터
☎ 051)526-5262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1-17

佛紀 2562年 戊戌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B12

정진으로 이루어진 갑옷은 금강과 같이 견고하니 그 무엇으로도 뚫지 못하리라. (출염송경)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 부 대 중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 지 선 지
(대구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신도회

신도회장 한판덕

사 부 대 중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도학동 35)
TEL 010-3510-9985
사무국장 이달용

재단법인 한국불교 조계종

불 영 사

대구종무원장

주 지 효상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신로 1456
TEL 053)292-7842
FAX 053)294-7842
http://bulyoungsa.co.kr

한국불교태고종

자 은 사

주 지 지 형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1리 438-2
TEL 054)933-6705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종무원

자 비 원

'불자의 안식처'

종무원장 석 불
주 지 법 선
사무국장 이홍순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동구 조천4동 883-8
TEL 051)644-8361
FAX 051)642-8361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상아유치원

이 사 장 자 현
능인중학교장 김상만
능인고등학교장 조상승
상아유치원장 정인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지산동800)
TEL 053-235-4481, 053-232-9102 FAX 053-763-1807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정 효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요람에서 무덤까지
논스톱 시스템을 갖춘

도심불교의 신모델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참좋은어린이집 · 유치원,
참좋은이서중 · 고등학교, 무일학당,
남녀노소 누구나 공부 할 수 있는 곳!
한국불교대학(구,영남불교대학)입니다.
국내 외 10여 곳의 도량에서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자라면, 반드시! 한국불교대학입니다.

기도성취 및 천도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큰절 (053)474-8228
(영대병원네거리, 지하철 1호선 2번 출구)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종명

장기기증 /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 결연사업

■ 후원계좌 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24(구.신암동)
TEL 053)945-0007/FAX 053)945-0008
■ 산하기관 :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TEL 053)944-0007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 지 우 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FAX 053)983-1698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스님들의 고민 !!!
30년의 전통 전국유일의 불교신협
보현사신협이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찰매매 잔금 대출
불사자금 대출
기타 대출상담

自利利他 (자리이타)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 대구 중구 중앙대로 67길 10(상가 101호)
보현사신협 문의 : 053)428-1133

佛紀 2562年 戊戌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B13

고뇌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고뇌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법구경)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 탁진규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FAX 054)955-8202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부설
학교법인 동곡학원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이사장 운곡 돈관
교 장 이희영
교 감 이봉오
행정실장 김인수
법인사무국장 강희종

「새롭게 도약하는 선화여자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의 가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 경북 영천시 화룡동 산 7번지
TEL 054)333-3431
FAX 054)333-3432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대구 운불련 호출택시

(한국 운전기사 불자연합회 대구지회)

회 장 조신제

■ 대구광역시동구 용계동 763-11
053)766-7777,053)323-7777
053)566-7777,053)744-8888
053)764-0763 ~ 4
FAX 053)764-0766

高靈瓦 Goryeong Roofing Tile Industrial Co., Ltd.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Tel 054-954-8008(代) Fax 054-954-8308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평의회

총무원장 대봉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리 500번지
종무소 (전국대표전화) 1577-1016

대구불교총연합회신도회

회 장 류병선

www.yeonvia.com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4길 39
TEL 053)710-3700

(株)玖峰·鍍金·精工

ISO 9000:2000 인증업체 / QS 2000-1998 인증업체

代表理事 金明錫

■구봉정공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053)351-0009,4856 / FAX 053)352-1717
(주)구봉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05-9
TEL 053)582-0156 / FAX 053)582-0157
구봉도금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65
TEL 053)581-0009,8907 FAX 053)582-4173
Hompage : www.goobong.com
E-mail : gnbong@kornet.net

대구정법호출택시

정법호출 053)780-0000

회 장 이갑희

회원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55
TEL 053)759-9999
FAX 053)759-9969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주 무 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지장천도 영험기도도량'
팔공산천룡정사

'탄생불'

주지 지 덕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시원길 95
TEL 054)336-0052
FAX 054)336-0053
H·P 010-5153-0052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임 대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TEL 054)247-2729(FAX 겸용)

대한불교조계종
망 월 사

주지 동 진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리 421-4
TEL 054)972-2700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 장 증 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주지 정 관

사부대중 일동

천수경 에세이집
「마음을 주는 손」 - 저자 정관스님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산1번지
TEL 053)767-7504

불 종 사

주지 현 진

■ 경북 경산시 남방동 276-2번지
TEL 053)802-4043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륵사

주지 석청송

■ TEL 053)981-1199
FAX 053)982-0683

책속의 밑줄 긋기



아름답게 늙어가는 지혜 최혜자 지음/운주사 펴냄/1만 5천원

"삶이란, 인생이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로 살 만한 값어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살아 있다는 것은 역시 신나는 일이다."
〈La vie est belle〉

이 책은 단순히 사상이나 가르침을 소개하는 데에 머물지 않는다. 특히 저자는 공자(유교)의 윤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가르침은 높게 보는 반면, 노자(도교)의 '무위'의 가르침은 현실과 동떨어질뿐더러 인간에 대한 애정(자비, 사랑)도 없는 현실도피적인 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붓다(불교)에 대해서는 모든 사상을 아우르는 인류의 안내자라고 평가하고, 주요 사상에 대해 별도로 다룬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물론 공자나 노자, 붓다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당당하고 후회없이 살라는 것이다.

전국 사찰과 문화재는 아름다운 '詩' 그 자체



화엄사 탑 전경. 김태식 사진



화엄사에 가고 싶다

이재호 지음/김태식 사진/씨피엔 펴냄/1만7천원

해직 언론인 출신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가 틈틈이 찍은 문화재 사진에 이재호 작가의 글이 더해져 한권의 시집으로 묶여져 나왔다. 제목은 〈화엄사에 가고 싶다〉이다.

이 시집은 국보 76호인 화엄사 각황전을 비롯해 전국 사찰과 유수의 문화재를 주제로 한 다소 평범하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시집으로서는 드물게 34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도 눈길을 끈다.

저자인 이재호 작가는 머리말을 통해 "화엄사에 가고싶다란 제목을 달고 보니 시 읽는 분들이 불교와 특정 사찰을 좋아하는 독자로 한정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실상 나의 모든 글은, 시는 절간에서 순간 포착하듯이 써 내린게 대부분"이라고 고백한다.

실제로 작가들은 구례 화엄사 뿐 아니라 공주 마곡사, 고창 선운사, 남양주 봉선사, 보성 유신리 일월사, 남한산 성불사, 청도 대비사 등 문화재 답사 및 조사 때문에 전국 모든 사찰을 순례하다시피 했다.

두툼한 책의 두께와 절간이라는 특별한 배경 때문에 언뜻 딱딱해 보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집에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사랑도 담겨 있고, 이별도 담겨 있어 읽는 독자들의 입맛에 부드러움을 더한다.

"가을이 오면 화엄사로 가리라. 화엄원 토방아래 느릿한 늙은 햇살 붙들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겸손하기 그지없는 감빛 석양을 바라보리라."

〈화엄사2 中에서〉

"침묵의 선셰, 달마산 자락 사람좋은 절간 미황사/가을이면 가을로 빚어 내놓은 쓸쓸함/겨울이면 겨울로 입술로 입술 호호불며 걸어가고픈 외로움/봄이면 금강스님 닮은 꽃들이 움을 트는 절간/사랑을 하려면 이 미황사로 오라"

〈미황사 中에서〉

또한 여기에 각 사찰이 간직한 고유한 분위기와 풍광을 잘 담아낸 김태식 기자의 사진은 마치 직접 그 장소에 가서 시를 읽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더해준다.

특히 이재호 작가는 7~8년간 전국에 산재한 사찰의 문화재 답사를 다니면서 절간 마루에 앉아서 혹은 한여름 나무 아래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스케치한 글을 모아 시집 〈화엄사에 가고 싶다〉를 엮었다고 한다.

시 한편을 통해 바라보는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시 한편을 채색하면서 느꼈던 사랑, 그리움, 또한 어울림, 계절의 아름다운 빛깔을 책 한권에 담아내 독자들이 문화재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였다.

'화엄사'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사찰 문화재는 관람료 문제부터 시작해서 종교적 이해타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국민들과 괴리감이 적지 않다. 오랫동안 문화재 보존운동을 펼쳐온 이재호 작가는 이 시집을 통해 문화재를 종교라는 틀에 가두지 말고 우리 민족의 숨결을 간직한 '아름다움' 그 자체로 이해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태식 기자와 이재호 작가는 "문화재는 아름다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문화재가 우리들의 삶 속에 한편의 시이기를 바란다"고 시집을 출간하는 소감을 전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달라이 라마, 예수를 말하다



선한마음—달라이라마의 성경 강의

달라이라마/류시화 옮김/불광출판사 펴냄/1만 5천원

존 메인 신부(1926~1982)는 로마가톨릭 사제이며 아일랜드계 베네딕도회 수도자로, 사막의 교부들에서부터 이어진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교에 기도문과 만트라 등을 이용한 명상법을 도입했다. 1975년 메인 신부는 런던 서부에 있는 자신의 수도원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교 명상 모임을 가졌는데, 이것이 세계 그리스도교 명상 공동체(WCCM: World Community for Christian Meditation)의 모태가 되었다. 이 모임은 현재 영국,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을 포함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약 2,000개의 그룹이 존재하며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활동중이다.

신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기리기 위해 1984년부터 해마다 '존 메인 세미나'가 열려 지금에 이른다. 이 세미나에서는 영적 추구에 평생을 바친 다양한 인물들을 초청해 영성과 기도, 명상, 타종교와의 대화 등을 주제로 강연을 듣는다. 1994년, 존 메인 세미나는 매우 특별한 자리를 준비했다.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이며 정신적 스승인 제14대 달라이 라마를 초청해 '선한 마음: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불교도의 견해(The Good Heart: A Buddhist Perspective on the Teaching of Jesus)'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 가르침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생각을 듣기로 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이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인 달라이 라마는 북런던에 있는 미들섹스대학 강의실서 가톨릭 대주교에서 인디언 원주민 주술사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의 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강의는 매우 인상적이고, 독특하고, 웃음 넘치고, 감동적이었다. 이 책은 3일 동안 진행된 그 강의의 생생한 기록이며, 출간 직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책은 늘 접하는 성서의 가르침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한다. 그뿐 아니라, 강의 내내 풍기는 상대방을 향한 존중심과 부드러운 유머, 가톨릭 신부와의 진심 어린 대화가 책을 읽는 동안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달라이 라마는 시종일관 그리스도교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사과하면서 겸손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몇 페이지만 읽어도 타종교에 대한 주제넘은 분석이나 외교적인 타협이 아닌, 애정 어린 시각으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바라보고 있음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이 책은 서양에서는 〈선한 마음(The Good Heart)〉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선한 마음'은 신약성서뿐 아니라 불교 경전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 흔들림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서도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모습, 선한 마음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담긴 모습이 이 책이 주는 감동이다. 그리스도교 단체가 타종교의 지도자를 초대해 성서의 핵심 복음에 관해 서로 교감하고 깨우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그 자체가 선한 마음이다.

"우리 자신의 영혼의 요구에 절실히 와닿는 종교를 만나야 하지만, '종교는 조용한 혁명'이라는 말을 나는 좋아한다. 종교는 외침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를 실천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김주일 기자

클릭! 이 책

고통 이겨내고 수용하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철듦

그대와 나, 참좋은 인연입니다

정운 지음/담앤북스 펴냄/1만 6천원



정운 스님은 대학서 학생들을 만나 소통하는 스승이자 경전을 연구하는 학자다. 이 책은 정운 스님이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며 풀어 낸 에세이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우화, 중국 고전 등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야기들도 군데군데 있어서 재미를 준다. 불교 경전의 명구도 있어 마음에 교훈을 준다. 때로 스님 자신의 경험을 꺼내기도 한다.

제 1부 〈더불어 함께 사는 인연 그리고 공감〉은 관계나 사람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 인연이라는 키워드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만큼 좋은 인연과 악연, 길지 짧을지 알 수 없는 인연들을 대하는 방법을 세세히 알려준다. 제 2부 〈오만과 편견 깨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혐오, 편견 등을 지적하면서도 약자에 대한 따스한 시선을 보내는 챕터이다. 3부 〈나답게, 행복하게〉는 자아와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보내는 응원이며, 4부 〈자신 있게, 세상으로〉는 미래와 취업 등 진취적인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주제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모두 우리네 삶이 주축이라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법인등기번호 : 001797

(사) 대선불교 조계종 (화합종단 구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종 정 : 현묵당 혜승
승정원장 : 적연당 운암
총무원장 : 적공당 현덕
원로위원 : 법희
총무부원장 : 월정사 보각
비구니회장 : 법성

교육원장 : 광덕
포교원장 : 대안
총무부장 : 혜동
사회부장 : 영각
감사부장 : 보혜
문화부장 : 혜명
재무국장 : 지현
중앙종회 : 경성 보천 도경 원명 보찬 보국 경덕

부산종무원장 : 보경
인천종무원장 : 도만
제주종무원장 : 법송
사무국장 : 준범
법사 : 남산

창건주 교임 :
성주사 : 도옹
보덕사 : 보현
금탑사 : 법화
안심사 : 태안
약사암 : 법연
미타사 : 보광
삼광사 : 문진수

종도모집
•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이어갈 종도님, 법사님, 창건주를 모십니다. 연락주십시요.
• 대선불교 총무원에서 포교방편 실전을 강의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사)대선불교 조계종 총무원(보리선원)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 6길 41-10 | 전화 054-974-8415 | 010-3007-5611

謹賀新年

佛紀 2562年 戊戌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B15

계를 지키면 늙도록 편안하고 잘 지내게 되나니, 지혜는 사람의 보배요, 복은 도둑맞는 법이 없다. (출요경)

(사)자비신행회

빛고을 재가불자들의
아름다운 자비나눔 공동체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5-1
TEL 062-234-0090

관음기도도량

수 국 사

주 지 지 원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 3리
TEL 054)932-9847

'효' 종찰 기도도량

까치산 길 조 암

주 지 보 현
「길따라…
土樂 토락」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TEL 054)931-5204

장 안 사

주 지 정안
신도 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466-6055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 지 경 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선각종

영천보현산 등 명 사

조 실 석정암
주 지 석혜명
신도일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TEL 054)337-4572 / H·P 010-5506-9448

포항 자 명 선 원

■ 경북 포항시 중앙로 131번길 46-2
TEL 054)281-7712, 7719

한국불교태고종

염 불 사

주 지 행담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송풍동 988
063-462-8570 http://yeombul.kjeol.kr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청소년수련원

부처님 교화공원, 템플스테이사찰
신흥사 불교대학, 경전연구반
주 지 오성일
대중일동 ·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TEL 031)357-2695, 357-3916

대한불교조계종 약사기도 도량

노고산 흥 국 사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국사길 82
TEL 02-381-7970~1 FAX 02-381-7329
Email: heungguksa@hanmail.net
템플스테이문의 : 02-381-7980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주 지 세민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30
TEL 02) 587-4677 FAX 02) 522-5666

대한불교조계종

노 적 사

주 지 종후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대서문길 315-35(북한동)
TEL 02)353-4924 FAX 02)386-4198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주 지 계 호
사부대중 일동

[부설] 보현정사 포교원 , 코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 진관지역아동센터,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구파발 어린이집, 기지촌어린이집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TEL 02)359-8410 www.jinkwansa.org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학 장 법산 경일
이사장 이 종 현
동산가족 일동
www.dongsanbuk.net
http://cyber.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TEL 02)732-1206 FAX 732-1207

안성 백 련 사

주 지 태암
사단법인복지법인 둥지마을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TEL 031)674-1861 031)674-1860

한국불교태고종

능 하 사

주 지 성련
사부대중 일동

■ 서울 마포구 공덕1동 105-95 4층
TEL 02-701-7488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 내 몸은 스스로 회복한다. ♡
깨끗하게 비우고, 건강하게 채우는 "인체정화 건강 프로그램"

애니원 디플러스 건강기능식품 | 애니원 차



『24가지 초본식물 발효 숙성차』
『몸에 쌓인 각종 노폐물과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장』
장운동 활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파비스 애니원 차 & 디플러스
세계로 (미국, 일본, 태국 등) 수출하는
30년 효소 전문기업 파비스 애니원 효소(효심 센터)
효소제품 문의 : 010-4131-4283(상현화 보살)
NAVER 애니자임 정연 검색

풍기정품인삼 풍 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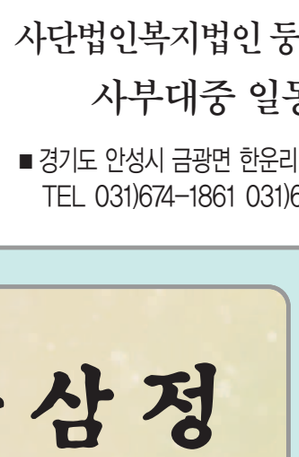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



■ 풍삼정제품 : 풍기정품홍삼액(명품).순홍삼액골드.
인삼향기홍삼액(골드).풍기정품홍삼액(골드),
홍삼먹은사과즙.풍삼정쥬니어홍삼액.풍기홍삼편.
풍삼정홍삼환.홍삼진액.홍삼청국장.백미삼.수삼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인삼향기홍삼액
「골 드」
100ml × 60포(한달분)
₩128,000원



전화 : 054-636-2174 / 휴대폰 : 016-815-2174

배독(몸속대청소)을
꼭 해보세요

◆배독(몸속대청소)이란-1박 2일 코스로 몸속대청소를 하는데 낮 12시부터 -1차는 위.대장속청소를 하고 - 2차는 오장육부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콜레스테롤(기름덩어리. 담석. 돌 등)몸속 쓰레기청소(몸속에서 나온 것을 본인이 확인)

건강을 위해 자기몸에 투자를 하고 자기몸을 사랑해주고 자기몸을 소중하게 아껴야 몸속세포들도 함께 응해줘야 건강을 지킬수있는 100세시대

• 아토피/피부관련제품-삼십만원.샘플제공
• 장건강을 위한 17종 복합유산균-25.000원

전화문의 010-5464-3972

佛具의 디자인이 바뀐다

〈불구〉

청년불자기업 (주)마인드디자인 고급수행용품전문브랜드 '마인드리추얼' 런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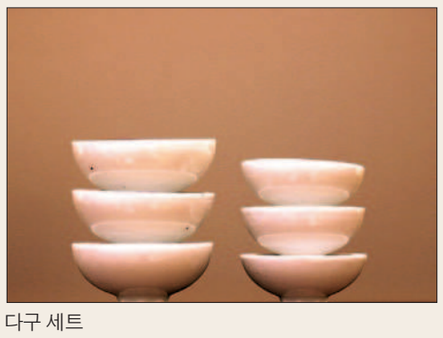
2018.1.3.~12 전통공예숍 일상여백(청담본점)서 런칭 전시 열어



현대적 디자인의 향완



가정식 미니불단



다구 세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청년불자기업 (주)마인드디자인이 2018년 1월 3일(수)부터 19일(금)까지 전통공예숍 일상여백(청담본점)에서 2018년 새해 제안전 〈Retual-나만의 시간, 나를 위한 의식〉을 열고 고급수행용품전문브랜드 '마인드리추얼'을 런칭한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 (주)마인드디자인은 불구(佛具)를 포함한 수행용품을 현대의 쓸모에 맞게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다양한 공예인들이 각기 다른 기술로 제작한 새로운 수행용품을 선보인다.

"무릇 좋은 문화란 시대를 초월하게 마련입니다. 재빨리 소비되는 문화가 주목받는 오늘날, 오래오래 이어 내려온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통공예품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확대를 이끄는 사회적 기업 '마인드디자인'입니다."

지난 8년간 노하우를 축적한 (주)디자인마인드는 런칭에 앞서 마련된 전시를 통해 현대적 미감을 살린 주얼리, 향완, 가정식 미니불단, 명상종 등의 고급 불구와 명상수행에 쓰이는 다구, 초, 향 및 관련 공예품까지 선보인다.

기존의 수행용품들은 현대적 미감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다. '마인드리추얼'은 수행이 특정한 수행자나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존의 디자인에서 벗어난 현대적 디자인의 고급 수행용품을 계속 출시할 예정이라서 시장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괄 디렉터 김민지 대표는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에게 불교의 수행은 '딱딱하고 어려운' 이미지가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의미는 '힐링'을 넘어선, 생활이 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는 불교 수행을 이러한 면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 수행은 일상에서 언제든지 영위할 수 있는 생활습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다. 늘 깨어있다면 순간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되고, 늘 반복되는 일상을 바라보는 눈 역시 빠르게 바뀌게 된다. 앞으로 많은 이들이 수행을 통해 내면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주)마인드디자인은 문화재청형 사회적기업으로서, 전통문화 소비의 일상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청년 소셜벤처기업이다.

일상 속에서 잊히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한류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이번 전문브랜드로 선보이는 '마인드리추얼' 역시 한국 전통문화의 정신과 철학적 가치를 재해석해 새로운 모습의 전통문화를 대중에게 소개함으로써 리추얼 문화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웰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주)마인드디자인은 다채로운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중 전통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컨벤션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불교박람회가 그것이다. (주)마인드디자인은 박람회를 통해 불교 관련 업체들이 해외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가 해외 바이어와 계약을 맺는가 하면, 중국 지점을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주)마인드디자인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소상공인을 지원해주고,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며 지난해 3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구도의 여정, 선화(禪畵)를 만난다

'한국 단원 담원 명가' 展

2018. 1. 10~16일

서울 인사동 한국 미술관

대만 거장 리샤오쿤 등 참가



김창배 作 '달빛차회'

한국 선화의 국제화를 위한 전시가 마련된다. 서예문인화와 한국미술관은 제6회 '한국 단원 담원 명가, 국제선화미술대전'을 2018년 1월 10일(수)부터 16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최한다.

"단원가 담원명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만이 아니라 사람의 덕목을 갖추고 자비심과 사랑을 갖춘 예술가를 길러내려고 합니다. 참다운 예술가는 창작의 기교뿐만 아니라 신념을 지닌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전시는 올해로 6회 째를 맞는 '한국 단원 담원 명가' 전과 국제적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선화미술대전'이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 선화의 국제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단원 김홍도의 화맥을 잇는 담원 김창배 화가를 비롯해 선화가 90여 명이 참가해 3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의 화가뿐만 아니라 대만 선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리샤오쿤을 비롯해 일본, 미국의 화가들도 참여했다.

이번 전시의 지도교수인 담원 김창배(한국선화협회 회장) 화가는 단원가의 후손으로서 김홍도에서 유숙, 장승업, 김응원, 정대유, 조석진, 안중식, 김은호, 금추 이남호로 이어지는 화맥을 잇고, 한국미술협회에 수묵화를 설치하는 등 한국의 선화 · 수묵화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선화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초심을 갖고, 진솔한 수행자의 자세로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말,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단원 담원 명가의 화가들이 걸어야 할 구도의 여정입니다."며 "선화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일을 넘어선 수행의 길이다."고 선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시를 기점으로 국제선화미술대전을 국제적인 선화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완 기자

한식문화 사진 · 영상 공모전…1월 19일까지

2018. 2. 3까지 청와대 사랑채서 전시

최우수상(문체부장관상) 상금 2백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경동)와 함께 2018년 1월 19일(금)까지 '한식문화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은 올해 초 끝난 '한식문화 미술대전에 이은 두 번째 공모전으로, 한식과 한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한식문화의 일상성을 향유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한식과 한식문화에 얽힌 재미있거나 인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사진 영상이며 한식과 한식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외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은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청와대 사랑채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문체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2백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모전에 응모하려면 공모전 누리집(www.hansikart2017.co.kr)에서 내려 받은 양식을 작성한 후 사진 또는 영상과 함께 이메일(hansikart2017@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 관한 소개와 접수 방법, 심사 방법, 시상 내역 등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담당자는 "한식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나 새로운 경험들, 예를 들어 독특한 전통 한식문화, 각 지방의 특이한 전통 한식문화, 외국에서 만난 한식문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한식문화, 한식문화와 관련된 행사 등 한식의 문화적 향유를 내포한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새롭게 작업할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재완 기자



근하신년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 구 지 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ACE 잘 가르치는 대학

세상을 움직이는 밝음, 양성 대학

Dongguk University Gyeongju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2017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중심대학 전국 15위(대구경북권 2위) 기록
비수도권 사립대 전국 9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전국 18위
교육부 '잘 가르치는 대학'(ACE 사업) 8년 연속 선정(2011~2018)
교육부 대학특성화(CK) 사업 선정(2016)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2016~2020)

• 2018학년도 동국대 의예과 신입생 모집 •과학기술대학, 상경대학 융합학부제 신설 •인성과 역량 모두 갖춘'참사람'인재 양성

• 동국엘리트장학 신입생 선발 정규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전액 지원, 매월 학업장려금 지급, 해외연수 파견 등 혜택

|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8. 1. 6(토) 09:00 ~ 2018. 1. 9(화) 18:00

문의처 054.770.2031-4 http://ipsi.dongguk.ac.kr

佛紀 2562年 戊戌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B17

들어서 이익이 없는 천만 마디 말보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 한마디가 낫다. (법구경)

마이산 쌍봉사

주지 보경

사부대중일동

■ 전북 진안군 마이산로 37-21
TEL 063)432-0880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 선 암

주지 덕산

사부대중일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2-1
TEL 063)221-8486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성 불 사

주 지 종 명
명예회장 진여심
신도회장 정각행
거사회장 성문수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TEL 063)445-3266 http://seongbulsa.org



동양최대 마애반가 지장기도도량

순창 장 덕 사

주지 청암

지장법륜회
신도회 일동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덕마을길 37-19
TEL 063)653-1525



해동불교 조계종 총무원

시대산 영 천 사

총무원장 석혜암

합일승가회
사무총장 석혜암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시대길 73-25
TEL 010-8224-1688



익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일 행
총무 정 안

사부대중일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교

전주불교연합회

■ 전주시 덕진구 매봉로 40
TEL 063)714-3309



대한불교조계종

오봉산 영 선 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꿈을 실천하고 있는

등용청소년공부방

매 방학기간 '국가사회 동량 양성기원 방학 학업 특별용맹정진' 봉행됨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 32번지
TEL 063)636-2195
http://www.youngsunsa.org/
http://cafe.daum.net/youngsunsa

한국불교태고종

군산 성 흥 사

(부설 성흥사 불교대학)

회주 송월
주지 보위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134-16
TEL 063)453-0050



은퇴자 출가 · 전통산사 유네스코 '기대 반, 걱정 반'

제도

51세 이상 출가 門 '활짝'

은퇴자 출가 본격 시행

올해부터 51~65세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는 은퇴 출가가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은퇴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 증명서와 신상명세서, 건강진단서, 신원확인서 등을 교구본사에 내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명서'와 '연금(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연금 수령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 출가인 만큼 제재 조치도 있다. 실질적으로 속세 관계를 끊지 못했거나, 친권 포기를 하지 않고 이혼 경과기간이 6개월 미만인 행자는 사미 · 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에 대해서는 견덕, 계덕까지만 법계가 품수되고,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및 말사 주지로 임명하지 않는다. 또한 일체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성 범계행위 처벌규정 강화될까

지난해는 일부 승려들의 잇단 성 범계행위로 인해 불교 이미지가 훼손되고, 조계종단 내외적으로도 문제제기가 이어진 해였다. 각종 성추문 보도 이후 성평등불교연대 등 NGO단체들은 범계자의 징계에 미흡한 종단 제도를 비판하고, 독신 청정승가를 지킬 수 있는 규범 마련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계종 호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담화문을 통해 "범계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법과는 별개로 종헌종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스님은 일정기간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중앙종회서도 범계행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한 청정승가 구현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사회문제 불교계 목소리 ↑

수행환경 침해, 범불교계 대응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수행환경침해를 겪는 사찰들의 협의체인 전국전통사찰수호연합회가 최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단체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각종 수행환경침해 사례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국사찰수호연합회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불교문화재 피해와 수행환경 침해 대책을 강구하는 범종단적 기구다. 민간과 형평성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강제수용에 의한 운영손실 보상 등을 통해 삼보정재를 수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하지만 각종 권력 이해관계 속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대형종단 소속 사찰이 아닌 경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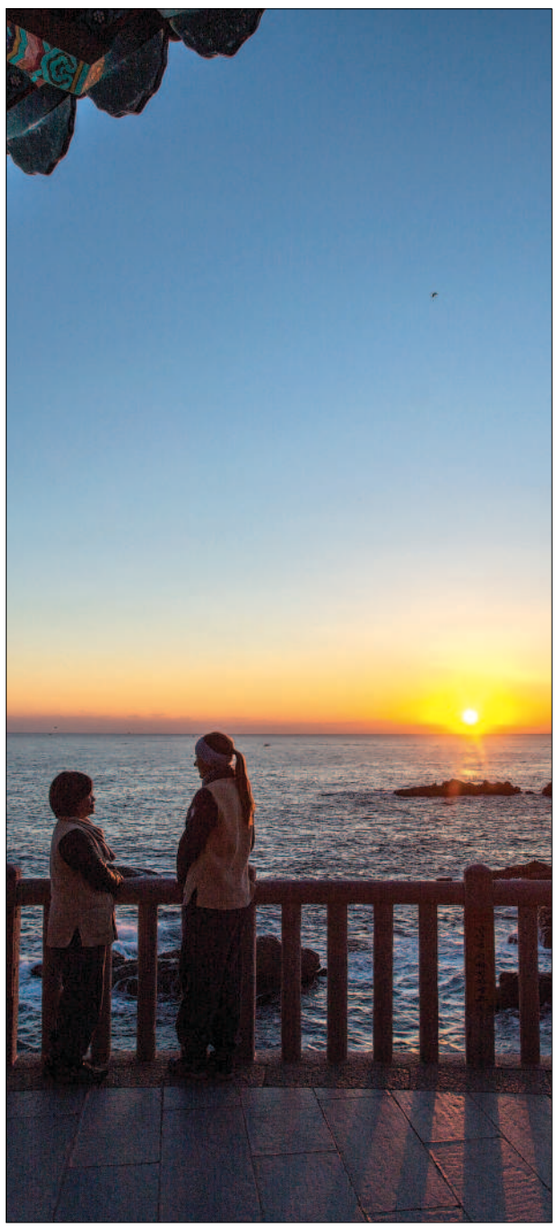
다행히 종단협 산하단체로 등록되면서 행정력이 미흡한 군소종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4.3 등 국가문제 접근

2017년까지의 2기 활동을 준비단계로 평가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2018년을 맞아 3기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특히 제주4.3사태 70주년을 맞아 서울광화문서 위령재를 봉행하는 등 국가 · 사회적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베트남 희생자에게 참회와 반성하는 위령재 · 천도재도 음력 7월 백중에 예정돼있다. 이외에도 위안부 문제,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법회도 개최한다.

최근 사회노동위는 3기 출범과 함께 실천위원 13명을 새로 위촉하고 해인사 기획국장 혜찬 스님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인사를 새로 단행했다. 여기에 종령을 개정해 실천위원의 범위를 넓히고 부위원장도 2명 이상 선출해 보다 폭넓은 사회문제 접근을 예고하기도 했다.

2018 개띠해, 불교계 뭐가 달라지나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무술년 새해에는 출가제도를 비롯해 불교계 대사회 목소리 강화, 전통산사의 유네스코 등재 여부, 교구본사 산하 사회복지법인 확대 등 다양한 분야서 여러 변화상이 예상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1~65세 은퇴자들의 조계종단 출가 문호 개방이다. 출가자 감소에 대응하고, 승가 내 전문인재 활동을 통한 불교발전을 모색한 제도다. 사회적으로는 제주4.3사건에 대한 불교계의 접근이, 문화적으로는 불교계 숙원사업인 전통산사 7곳의 유네스코 등재까지 새해 변화가 기대되는 각종 불교계 소식을 정리했다.

신성민 · 윤호섭 · 박진형 기자

문화

산사 7곳 세계유산 운명은

전통산사 유네스코 등재될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돌아왔다. '한국 전통산사'로 묶인 7곳의 산지 사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올해 결정된다.

'한국 전통산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2014년부터 시작된 불교계의 숙원 사업이다. 조계종은 2014년 8월 6일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등재추진위)' 발족식을 열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알렸다. 등재 대상 산사는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등 7곳 사찰이다.

등재추진위는 전통산사의 등재를 위해 학술대회 개최와 보고서 발간 등 기민하게 움직여 왔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해 1월 전통산사 7곳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전통산사 7곳에 대한 유산 등재 결정은 오는 7월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중앙버스차로 설치, 연등회는…

한국불교 최대 축제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종로 중앙버스차로제 도입에 따라 행사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해당구간에서 행사를 펼치는 연등회 백미 연등행렬이 기존처럼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장을 이동식 정류장으로 설치, 행사에 앞서 정류장을 도로 바깥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도로 통제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정류장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불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류장 이동에 필요한 비용은 행사 주최 측이 지불해야 하는데다 국가예산 증액 요청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 같은 방법으로 행사를 처음 치르는 관계로, 발생 가능한 안전문제를 예상하기 어려워 예년보다 행사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tc. 기타

풀뿌리 공동체 · 복지 확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20주년

2018년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삶의 양식, 문화양식을 총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인적 수행과 각성을 통한 깨달음을 지향한다. 특히 생명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명살림운동, 도시와 농촌 공동체간 연대를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귀농학교, 생활협동조합, 대안학교 등을 운영하며 '공존' '협동' '균형'의 가치 확산에 매진해왔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앞서 현재 2가지 핵심키워드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하나는 실상사 산내면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연결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다른 하나는 20년간 쌓아온 경험을 지역에 전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1월 말 정기총회를 열고, 공동체운동의 방향성과 효과 등을 정리하면서 20주년을 준비할 계획이다.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 확대

현재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중 산하에 사회복지법인을 둔 사찰은 12곳이다. 여기에 올해는 4개의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돼 16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교구본사 4곳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지원한다. 해당 교구본사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올해 안에 설립을 모두 마치고, 현재 사회복지법인을 운영 중인 12곳에 대해서도 컨설팅과 행정적 지원, 시설 위탁 등에 관심을 쏟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의 추가설립 및 안정화가 불교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불교계 사회복지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매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24개 교구본사 모두 사회복지법인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것이 목표다.

지장불교조계종
팔공총본산 지장선원
총무원장 지공 보명
법회안내
◇신중기도 점찰법회 : 매월 첫째 일요일
◇지장기도 천도법회 : 매월 셋째 일요일
지장보살 원불 영옥봉안 납골당
■ 대구광역시 동구 갓바위로 35 (진인동 234)
TEL 053)986-0151, 983-0152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통 범음 .범패 교육원)
■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전화 054)974-2605 / 팩스 054)974-2705



개에도 佛性이? 인과환생의 주인공 '개'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조주 스님 '구자무불성' 화두
현상 집착하는 존재에 비유
아라한과 이룬 개 이야기도

동반자 · 폄하 용어로 혼용
병 · 잡귀 물리쳐 민화에 등장
불교선 삼목천왕 환생 여겨…



작가 미상의 문배도(門排圖). 민화 속에서 개는 친숙한 존재로 자주 묘사됐다. 그만큼 우리들 삶에 가까운 동물이었다. 불교 속에서도 개는 친숙한 존재로 윤회와 업의 주인공으로 자주 표현됐다.

불교 속 개 이야기

당나라 때 한 수행승이 물었다."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은 "없다(無)"고 대답했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다. "일체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는데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개에게 업식(業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조주록〉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의문을 타파하게 되면 견성(見性)한다고 한다.

1700 공안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무자(無字) 화두의 기연이 된 선문답의 일부다. 조주(趙州) 스님(778~897)은 '개에게 불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때론 '있다' 때론 '없다'고 답하면서 무수한 수행자들을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란의 경지로 몰아갔다. 이 문답은 개와 불성에 관한 것이라 해서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화두라 불린다.

이 문답에는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표상돼 있다. 일체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대승불교 전통의 가르침이므로, 논리적으로는 개에게 불성이 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한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개의 품행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한 개에 대한 편견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충돌하면서 문답을 둘러싼 의구심은 커지고, 문답은 하나의 화두로 승화된다. 이 같은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경전이나 선전(禪典) 이곳저곳에 자주 눈에 띈다.

〈대방편불보은경〉에는 성현을 헐뜯은 죄로 개로 태어났던 균제 사미의 이야기가 나온다. 균제 사미는 과거세에 아비담장(阿毘曇藏)과 비니장(毘尼藏)과 수다라장(修多羅藏)을 통달한 비구였다. 그는 행색이 누추하고 음성까지 무딘 늙은 비구 마하라를 얕잡아보고 "음성이 개가 짖는 것보다 못하구나"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그 늙은 비구는 이미 성현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 성현을 몰라보고 구업을 지은 균제 사미는 개의 몸을 받아 태어나야 했다. 말 한마디가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개'는 악업의 결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전등록〉에서도 개는 어리석은 존재로 묘사된다. 잘 알려진 사자교인(獅子咬人) 이야기가 그것인데, "돌을 던지면 개는 그 돌을 물고, 사자는 돌을 던진 사람을 문다(韓盧逐塊 獅子咬人)"고 해서 개는 현상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존재를 상징한다. 〈잡아함경〉도 애욕의 결박을 끊지 못하는 중생의 모습을 '기둥에 묶인 개'로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개가 언제까지나 어리석고 탐욕스런 존재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개도 엄연히 성불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경전에 제시되고 있다.

〈구잡비유경〉에는 환생을 거듭한 끝에 아라한과를 얻은 개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 밤낮으로 경전을 외우는 사문이 하나 있었다. 그의 평상 밑에는 늘 개 한 마리가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사문의 독경 소리를 일심으로 듣곤 했다. 그렇게 몇 년 지내다 목숨을 마친 개는 사위국의 여자로 태어났다. 자란 뒤 사문을 따라가 비구니가 돼 정진해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개는 일찍부터 불교미술 소재로 등장하기도 했다. 독자적인 것보다 십이지의 한 신중으로 표현돼 왔으며, 초기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장수의 형태로 등장하다 후대로 가면서 무관에서 문관으로 복장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릎을 꿇은 공양상 형태로 도상이 변모해왔고, 십이지상을 최초로 배치한 보물 제 1429호 경주원원사지석탑에서는 상층기단에서 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 속 개 이야기

십이지의 열한 번째 동물인 개(戌). 시간으로는 오후 7시에서 9시, 방향으로는 서북서, 달(月)로는 음력 9월을 상징하는 방위신이며 시간신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개는 야생동물 가운데 가장 먼저 가축화 됐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과 함께 살아 온 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헌신'과 '충복'의 대명사로 통한다. 목숨을 걸고 주인을 살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다. 설화 속에서 개는 충성과 의리를 아는 의견(義犬)으로 그려진다.

그런가 하면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개를 따라가면 칙간으로 간다' 등 개는 비천함의 상징으로 우리 속담에 등장한다. 또 '개XX', '개만도 못한 X' 등의 욕에 응용되기도 한다. 또한 '개살구' '개꿈' '개판' 등 앞에 '개'를 붙이면 사물의 격이 낮아지고 만다.

이처럼 무시당하는 개지만, 인류의 오랜 벗으로서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해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개를 기르면 잡귀와 병도깨비, 요귀 등의 재앙을 물리치고 집안의 행복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옛 그림에 개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개가 범인을 추격하거나 마약 및 폭발물을 찾는 데도 큰 몫을 담당한다. 또 시각장애인에게는 길을 안내하는 등 일상생활을 돕고 활력을 주는 친구이기도 하다.

개고기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향육, 북한에서는 단고기라 불리는 개고기는 소화흡수력이 뛰어나고 양질의 영양가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삼목천왕의 환생이라 보기도 하고, 인과환생 할 때 개로 태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서 식육이 금기시 된다.

붉은 닭(丁酉)이 가고, 금빛 개(戊戌)가 왔다. 지나간 일 좇다간 닭(酉) 좇던 개(戌)가 될 수 있다. 지나간 닭은 보내고, 새해엔 현재에 집중해 살아보자. 무술년 새해에는 특히 개의 장점만을 받아 활기찬 출발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간추린 무술년(戊戌年) 한국불교사

458년 (눌지왕 42년)	승려 묵호자가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교 전파
638년 (선덕여왕 7년)	팔공산 갓바위 불상 조성 원광 스님 입적
818년 (헌덕왕 10년)	백률사 이차돈 추모 공양비 건립
1058년 (문종 12년)	지광국사 해린 스님 국사 책봉 영통사 주지 난원 스님 왕사 책봉
1538년 (중종 33년)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지 않은 사찰 모두 헐어내고 전라도 지역 스님 3000명 군적 편입 불교 탄압 심화
1598년 (선조 31년)	임진왜란 왜병 방화로 금산사 40여개 암자 소실
1658년 (효종 9년)	범어사 대웅전 건립
1778년 (정조 2년)	도첩제(度牒制)시행 스님의 도성 출입 금지 표훈사 완전 복원완료
1958년	태국 방콕서 제5세계불교도대회에 하동산 · 이청담 · 서경보 · 박길진 · 손규상 등 한국대표로참석 재일교포 북송반대운동 전개 12월 장성 백양사, 비구 · 대처승간 난투극

근하신년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한국불교 태고종
전 북 종 무 원

원 장 청파 진성
부 원 장 송월 법원
원 로 의 장 수산 수종
자문위원장 정민 도광
교 육 원 장 법륜 혜정
사 정 원 장 벽담 도홍
감 사 원 장 환공 혜경
포 교 원 장 승천 대주
종 회 의 장 송곡 도륜
종회수석부회장 송헌
종회차석부회장 허주 무진

사부대중일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11
☎ 063-285-9700
Fax 063) 282-1536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18 호
영 산 작 법 보 존 회

회 장 혜정
부 회 장 혜안
총 무 정수
교 무 법전
재 무 지오
교육원장 지산

사부대중일동



한 송이 연꽃 향기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향기 가득한 새해 아침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기 원 사

사부대중일동

한국불교꽃예술연구원
보림꽃예술중앙회

꽃꽂이 강의
매월 첫째 · 셋째주
수요일 오후 2 ~ 4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92-106
☎ 02)918-0034



박재완의 PhotoEssay



안부

찬바람이 매섭다
잘들 있겠지

작은 한 끼로 날개를 채우고
잘들 있겠지

추운 나무 꼭대기에 날개를 접으면
그 저녁은 미안하다는 말이 되고
구름 가는 길에도 자꾸만 마음이 쓰이면
젖은 하늘은 목 메인 안부가 된다.

날(日)은 쉼 없이 날아들고
잘들 있겠지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성낙윤의 불교매듭

① 연재에 들어가며

검박한 美로 불법 표현한 '불교매듭'

매듭의 기원이나 발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헌이나 자료는 없다. 최초의 인간은 풀줄기나 나무껍질을 이용해 꼬거나 엮어 끈을 만들었고, 또 이를 엮고 맺으며 수렵도구로 사용했다. 또 몸을 가리거나 글자나 숫자를 대신해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했다.

이렇게 실생활에 쓰이던 매듭은 의장용도로 폭을 넓혀 발전했다. 현재 한국에 전하는 매듭의 종류는 30여 종이 넘고 그 형태는 앞뒤가 같다. 현재 전수되는 매듭은 지역에 따라 성격을 달리 했으며 이렇게 발달한 매듭문화는 불교문화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불교매듭은 흔히 가사끈, 옷고름, 허리띠, 기타 허리 하단부의 늘어뜨리는 장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가사의 끈을 묵는데서, 겉옷의 옷고름에서, 허리띠에서 매듭을 짓고 있다.

스님들에게 매듭은 먼저 실용적인 기능 때문에 사용됐으며, 여러 가지 장식성이 더해진 매듭으로 발전했다.

가사 매듭은 6가닥을 한묶음으로 묶는 경우와 6가닥을 3묶음으로 묶는 경우가 있으며 6가닥을 한 묶음으로 맺을 때는 일정하다. 옷 고름은 현대 옷고름을 매는 방식과 같으며, 허리띠는 크기, 형태, 매듭의 방식에 따라 다양하다.

스님들이 가사장삼을 비롯한 승복을 입고 매듭을 한 외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다는 점에서 매듭이 갖는 장식적 효과가 얼마나 큰 지를 대변해 준다. 검박한 미를 강조하는 승단에서 매듭은 스님들이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장식이었다. 이와 함께 스님들의 위의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다.

불화에서도 이러한 불교매듭 문화가 잘 드러나는데, 실제 사용되는 매듭을 다양한 색을 통해 표현한다. 이는 단조로울 수 있는 불화 속에서 매듭을 표현함으로써 세부적인 감각을 보이기 위함이다.

매듭의 색채는 다양하고, 특별히 제약되는 점은 없지만 불교매듭은 일정한 특징이 있다.

먼저 가사매듭의 경우 녹색, 밤색, 백색, 남색, 황색으로 대변된다. 특히 녹색과 밤색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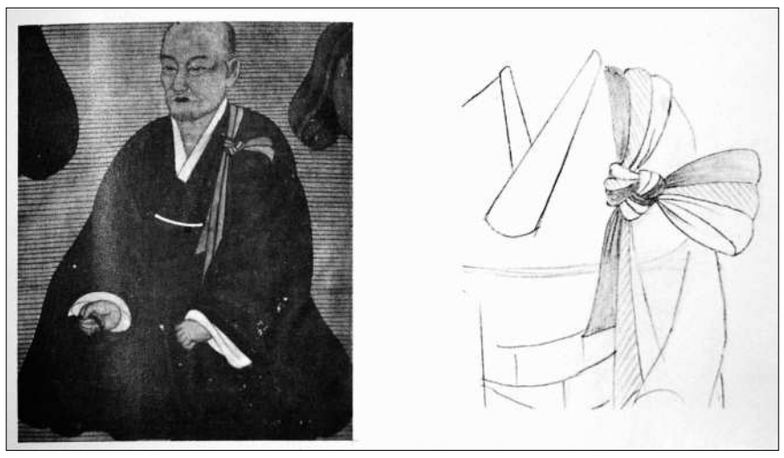
불자들이 익숙한 '밤색'은 괴색이라 하여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다. 산스크리트어로 'kaṣāya'로 청 · 황 · 적 · 백 · 흑의 다섯 가지 정색(正色) 외의 색으로 곧 정색이 아닌 색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녹색이 많이 쓰인 이유는 확연히 풀 방도가 없다. 불화 속에서는 녹색으로 가사의 끈을 사용한 예가 많지만 현재 승가에서는 녹색의 끈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허리띠의 경우 가는 술띠에서부터 동다회, 광다회, 포백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데, 주로 백색의 끈이 사용됐다. 백색의 끈은 일반적으로 상장에나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불가에서도 많이 사용됐다. 이외에도 녹색의 끈을 사용했으며, 청색을 사용한 예도 있다.



성낙윤 연구가의 전통매듭을 이용한 단주와 염주



조선시대 가사매듭, 용파당 도주대선사 /전남 해남 대흥사

불교매듭은 스님들의 가사 외에도 법회 때 사용되는 가마인 연, 깃발인 인로왕번 등에 사용되었다. 사용된 매듭은 도래매듭, 가락지매듭, 생쪽매듭과 같은 기본매듭과 장구매듭, 국화매듭, 매화매듭, 나비매듭 등 매우 복잡하고 완성도 높은 매듭이 많이 사용되었다.

연(輦)이란 왕이 타고 다니던 가마를 말하지만, 불교의식에서 야외법당에 부처님을 모셔올 때도 연이 사용됐다. 이때 연을 아름답게 장엄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매듭이 사용되었다.

또한 인로왕번(引路王幡)은 사십구제 때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인로왕 보살을 모시고 나가는 깃발이며, 번(幡)인 깃발 하나에 다양한 매듭이 여러 개 맺어져 있다.

불교매듭은 한국문화의 전통성을 간직한 유산이며 의식, 의례에서도 핵심요소로 불교문화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나 전승 의식은 저조한 상태로 불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성낙윤 매듭연구가는?

1938년 태어난 성낙윤 연구가는 1963년 중앙대 문리과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64년 충남 대전여상 교사를 시작으로 서울 명성여고, 신광여고, 성동여고 등에서 1979년까지 교사생활을 했다.

1975년 인간문화재 최은순 씨에게 매듭을 배우고, 1976년 인간문화재 김점순 씨에게 길쌈을 배웠다. 1977년 중앙국립박물관대 제1기를 수료하고 일본 동경 세이쥬공예학원 초등과를 수료했다.

1980년부터 성낙윤 매듭전시회를 열고 매듭연구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미국 LA와 하와이 등에서 매듭전시회를 개최했다.

1985년부터 2014년까지 '성낙윤이 만든 혼수'를 운영하며 다양한 수공예 혼수품을 선보였으며 각계 각층에 매듭 및 바느질 등 전통문화 전수에 앞장섰다. 2017년에는 제29회 불교미술대전 공예품에 매듭염주로 입선 수상하는 등 불교미술 분야 연구에도 나서고 있다.

근하신년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성 각 사(聖覺寺)

주 지 광 운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72-3
전화 : 062-574-4348 팩스 : 062-573-4348



근하신년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안성 운수암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성하길 86-63 전화 031)673-7372 / 팩스 031)673-7349



법인 허가번호 제 2014-4호 / 법인설립 허가일 2010.4.30

특허청 특허출원번호 42-0005848 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전국 354개 종단이 가입한 최고의 법인단체)

회 장 월 하 성 철

한중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광
금강불교조계종 이사장 활안
무궁화무한월드 회장 애무린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대한불교조계미륵선종 총무원장 설송
생활불교범행종 총무원장 지광
대한불교금륜조계종 종정 지광 등운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한국거창배왕석예술문화연구원 위원장 석호
마애삼존불상무량정토성지순례봉찬회
우리불교우리절용암산미륵사 총무원장 청송
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장수
대한신불교천우종 종정 일강
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정암
대한불교조계선종 이사장 지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서울지부지회장 청산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부산지부지회장 구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구지부지회장 지영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인천지부지회장 석수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광주지부지회장 만봉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전지부지회장 태대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울산지부지회장 월정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월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남부지부지회장 일오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북부지부지회장 광명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남지부지회장 청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북지부지회장 설송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전남지부지회장 동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제주지부지회장 경흥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충남지부지회장 정섭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병대
한국불교약불조계종 종정 불광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대한불교대선종 총무원장 대봉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동
달마선원예술문화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청광
대한불교신인종 종정 보인
대한불교천우종 총무원장 지암
환단도 이사장 태대
백산소도삼신문화재단중앙본부 이사장 일광
전통사찰조계종 총무원장 진상
대한불교해탈종문화재단 종정 대광
정토불교조계종 종정 일오
한국종교무교천왕종 종정 송월
한국도교본산수성궁 회장 금란
세계불교달마조계종 종정 태일
대한불교호국조계종 종정 무량수
대민불교조계종 종정 일공
국제대성황문화재단 이사장 환인
대한불교구생종 총무원장 원당
한국불교조계종종단연합회중앙본부문화재단 이사장 월정
진언불교 종정 도성
법행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선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총본산법천사
불교대학,불교출판사,무차회,보리회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승정원문화재단 원장 현각
금산문화재단 이사장 길주
대한불교유마종 총무원장 무허
한국생활불교보림종 총무원장 운장
천지신명봉양회 회장 성덕
대한불교종단단체사암총연합회 회장 도광
한국무교총본산 회장 일강
한정연무교총연합회 회장 일광
무궁화어머니재단 회장 뮤린
한국고건축진흥원예술문화재단 회장 광선
한국불교조계교종 종정 법성
대한선불종 종정 명조
대원불교유심종 종정 법일
한국범종교단체연합회 종정 청산
지역복지교정협의회 종정 인산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현광
원사불교조계종 종정 도호
대한불교해탈종총본산소원사문화재단 회장 동환
대한불교태선종연합 종정 태선
한국불교동방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현묵 혜승
세계불교약사종 종정 인산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일웅
한국불교원각종 종정 혜철
월드불교법왕청 종정 청암
대한불교가야조계종 종정 혜산
대한불교팔만종 종정 운월
대한불교연화종 종정 동원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혜남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월단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법왕불교조계종 종정 보문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 혜봉
사회복지재단황손보살의집 원장 지영
해탈불교조계종 종정 대광
지역발전혁신연구문화재단 회장 대광
법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법천
해동불교화엄종 총무원장 영관
대한불교약사법사종 총무원장 약산
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법민
대한불교구화종 종정 구화
세계불교승가회 회장 원당
동도해인대법국미륵진법강원 회장 해인
목멱사랑회 회장 재연
중앙불교조계종 종정 우담
한국고건축예술문화진흥원 회장 태인
대한불교대각종 종정 만청
선법륜종 총무원장 월암
대안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월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원공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월담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한국불교내외종 종정 청담
대한불교관음성종 총무원장 관행
미타불교조계종 종정 월산
대한불교조계종봉정선원 총무원장 법기
한국전통불교천부종 총무원장 서광
한국불교미타종 이사장 원상
대한불교금강여래종 총무원장 연화
법신불교정법종 총무원장 법통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대각교단대한불교현수종 총무원장 금화
정통불교조계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대한불교법인종 종정 만오
대한불교선조계종 종정 기복
세계선불교조동종 총무원장 공산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법환
대한불교천왕종 총무원장 해인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회장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선종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반야수교원 총무원장 월성
천지대학일월용봉신선도문화재단 이사장 선학
세계불교대각종 종정 보각
한국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삼신신앙봉천재단 재단장 진순
참좋은인연문화재단 이사장 밀허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혜담
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암
한국불교나한종 종정 대보
한국불교법인선원덕선사 이사장 도운
세계평화불교연맹 이사장 혜승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국제불교범승가종단연합회 회장 지암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암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혜일
대한불교신조계종 총무원장 금당
해동대한불광종 종정 법경
한국불교청동불상예술연구원 원장 청담
대한불교임제선원문화재단 주지 법현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 주지 청광
대중불교조계종문화재단 종정 향덕
세계불교국제연맹재단조계종 총무원장 향덕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원광
대한불교일월여래종 원장 해월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장 만오
세계평화재단 법황청 총무원장 태산
한국전통범종연구소 소장 광식
대한불교밀인수증회 주지 덕천
한국불교미술원보응문도회 사장 규진
한국불교환인종 종정 정안
대한불교전국비구니진흥회 이사장 일경
세계불교만불종 종정 일월
세계불교세심종 총무원장 범행
대불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대각조계종 총무원장 부건
한국전통불교천불종 총무원장 만봉
대한불교여래종 종정 혜담
한국법화종 종정 법천
대한불교일월조계종 총무원장 장원
동방선도총본산 도령 이지영
용화사 월대도 도주 용화
해동불교금강종 총무원장 해원

대한불교법운종 종정 지암
대한불교연지조계종 종정 황봉
한국불교종단단체협의회 회장 성철
한국도교삼청관문화재단 도장 대도
세계불교승가회한국본부 회장 보각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불광
천지불교태극종 종정 법성
대한불교통합조계종 총무원장 해봉
한국불교금강종 총무원장 진공
대한불교조계종국제승가총연맹 종정 혜산
대한불교용산조계종 종정 철산
한국불교화엄지장종 총무원장 영암
반야의세계진법불교조계종신선둥지문화복지재단 종정 진표
대한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성범
석가불교조계종 종정 대각
대한호국무불천지종 종정 청산
유신불교조계종 종정 금강
대한불교조계종통합불교연합 이사장 영월
환국신앙천신교 종정 법안
세계불교법황청 종정 법열
대한불교염불종 종정 만공 호조
원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제성
정법대승불교조계종 종정 고림
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장 성문
대한불교법인통합조계종 총무원장 지현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중천
한국전통민속문화협회강원도교구 교구장 만오
대한용화불교칠성산신종 총무원장 천공
대한불교보현종 총무원장 영사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청하
21세기디지털불교미륵대도 종정 대광대사
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현송 고림
대한불교승가조계종사회복지협력봉사단 총무원장 월암
(사)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복지재단 이사장 도광
대한불교대조계종 총무원장 대공 법해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각
불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운봉
대한불교법음종 종정 청암
세계불교조계종 종정 자현
생사참사랑실천회(웰다잉) 회장 보성
한국고미술문화재진흥협회 회장 무산
문화예술불자연예인협회 협회장 운봉
조계종약사포교원 회장 각성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거목
실천생활불교진흥원 원장 경산
대한불교불조계종 총무원장 혜암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법운
강원율사율원승가교육원 원장 월성
대한불교조계종승가회 회장 정인
포항시불교사암승가연합회 회장 법진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무원장 일경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보현종영사복지재단 원장 영사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 충남교구 교구장 태극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 강원도교 구교구장 신명
대한불교유가종 총무원장 법륜
대한불교원각회보리원 원장 각화
대한불교반야선종 총무원장 도우
한국대중불교불이종 총무원장 도원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마하야나불교조계종 회장 청송
한국전통승복양공진흥회 회장 여래심
대한불교연화종 용남사 주지 법성
한국불교태극조계종 총무원장 해도
대한불교용화조계종 종정 능견
자비실천운동본부 본부장 해광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안심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원장 동천
대승불교삼론종 종정 석봉
한국불교효예종 총무원장 법진
한국불교성지종 종정 원담
마하야나승가조계종 종정 청송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원봉
문무대왕대제보존진흥협회 회장 운담
중생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문
대연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연
대한불교해인삼보종 총무원장 해인
법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허
화쟁교단분황종 종정 현불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대한불교근본조계종 총무원장 성공
홍지문화재단 원장 홍지
사회복지법인 산촌마을사람들복지재단 이사장 인봉 동인
한국불교의식문화교육진흥협회 총무원장 일관
국제고미술교류진흥협회 회장 성철
대한불교삼계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총무원장 진공

한국불교선화종 총무원장 법산 호원
육영수생가보존회등육영수여사탄신숭모제례보존회 대표 법성 동방
국제불교조계종직할제1교구본사 청일사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대각
국제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고미술국제진흥원 이사장 도현
대한불교선화조계종 총무원장 혜원
사회복지법인세계불교복지재단자비원 원장 강현자
지장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공
한국불교조계종사회복지실천자비원 원장 명진
대한불교승가문화예술진흥회 회장 현불
대한불교칠불종 총무원장 혜선
대한불교천불종 총무원장 지선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원응사 회장 진해
대한불교칠여래종 총무원장 진성
대한불교묘법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전국불자총연합회태승사복지재단 재단장 혜원
대한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연운
한국불교조계종총본산태승사 총무원장 혜원
행복세상만들기운동본부 본부장 혜봉
세계불교선불종 총무원장 무성
한·중고미술국제진흥원 원장 도현
사회복지법인수암사마야복지재단 총무원장 운산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한국전통민족불교소원사 총무원장 소원
자비실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륜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대한불교보법종 총무원장 지성
대성불교정토종 총무원장 성각
마니산천부단복원추진위원회 회장 대경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덕공
사회복지법인화정토원복지재단 회장 원오
대한불교혜명조계종 총무원장 혜명
한국전통불교조계종 종정 태함
호국불교선미륵종 종정 효진
한국불교동산조계종 총무원장 원덕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고산
행복나눔종교치과문화재단 재단장 성해
대한불교보법종 총무원장 법성
행복나눔치과문화재단 재단장 성해
한국초능력협회 회장 혜봉
사회복지법인금조복지재단 이사장 일경
대한명리사협회 회장 지공
대한불교전국호국무예봉사단총연합회 회장 박주석
사회복지법인대체의학자연치유국제문화교류복지재단 이사장 혜승
불교조계종대선불교대학 학장 현묵
한국불교마야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수암조계종 대표 수암
한국불교불광종 총무원장 안개 지공
천상의전상조극락정토원 대표 정관법사
한국불교천지조계종 총무원장 성진
범종단환경보호연합회 이사장 혜봉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회장 정관 일해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현도
전국교정,교화 불교법사단 단장 법성 성주
대금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금오당 금강
대한불교대승조계종 종정 동연당 도우
향토불교승가연합회 대표 조향
대한불교태선조계종 은산 덕호
대한불교천안종 회령
대한불교금강조계종 금봉
대한불교천기종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법천 청운
대한불교약불조계종 오영 법사
국제불교인력컨설팅공사문화재단 총무원장 금오당 금강
대한불교법안조계종 총무원장 운묵 도진
대한불교불은조계종 총무원장 법주
대한불교한불조계종 총무원장 청명
재단법인세계통불교 이사장 일붕 성해
대한불교자비조계종 총무원장 해천 불성
연화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창원 진봉
정통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성암
전국장애인직업재활협의회 회장 법경
한국불교동방조계종 회장 법성
세계불교법연종 총무원장 법연
한국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원경
연화복지원경기북부지부 이건식
대한불교불회사 총무원장 원광
사단법인한국불교종단연합회중앙신도회 중앙신도회장 법운
사단법인동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산당선빈
구궁태극성명학회
소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웅

(무순)

"중생정재의 합리적 관리와 통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한 국 불 교 종 단 연 합 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909호 (두산위브파빌리온 수송동)
전화 : 02)2198-5022(代), 2198-5023~4 팩스 : 02)2198-5025 H.P : 010-4167-3666 E-mail : jonggyo119@hanmail.net http://kntga.or.kr

佛紀 2562年 戊戌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B22

성내는 자에게 같이 성내지 않으면 두 가지 승리를 얻는다. 스스로를 이기고 성내는 자를 이기는 것이다. (상응부경전)

대한불교조계종

원 효 사

주지 해중

매월 초칠일 신중기도
지장재일 조상 천도재
관음재일 인등축원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514-35
전화 010-7207-0326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489-22번지
TEL 062)951-3562

빛고을 난 농원

대표 배소현

전국 꽃 배달 서비스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벽진길9 (마륵동)
전화 062)385-1511
팩스 062)385-1512
이메일 wbfflwbffl@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광 덕 사

주 지 효 진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1-5
TEL 062)652-6050

대한불교조계종

법 림 사

대해노인복지센터

주지 무진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번지
TEL 062)234-2207

대한불교 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TEL 062)222-2202

한국불교태고종

세 심 정 사

회주 지 암
주지 보 응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57-15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부설]
연화유치원, 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 2동
448-2번지
TEL 062)227-7295
유치원 227-0173

한국불교태고종

법 륜 사

주 지 월 인

신도일동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작법기능보유자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06-5
TEL 062)655-7444

대한불교조계종

정 안 사

주 지 동 초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분토길 90
TEL 062)265-0801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 지 법 공

신도일동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1
TEL 061)554-2634

대한불교조계종

신 광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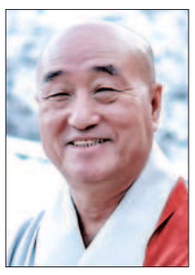
회주 경주
주 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TEL 062)261-1529

“욕심 버리고 願세워 성취하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새해라는 시점에 지난 일을 정리해 짐을 내려놓고 새 출발을 다짐합시다. 나와 이웃, 나눔으로 맺은 수많은 고마운 인연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자비심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두루두루 복 많이 지으십시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무술년 새해에 자신의 성불을 바라는 발원이 아닌, 욕심을 버리고 원(願)을 세워 성취하는 발원을 하라고 당부했다.

일면 스님은 “발자국이 없는 순백의 눈밭을 ‘숫눈길’이라고 한다. 새해 우리 앞에 숫눈길 같은 새로운 시간이 펼쳐졌다. 시간의 숫눈길 위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과 만나고, 크고 작은 일을 맞닥뜨리며 매번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발자국을 남긴다. 그게 곧 인연”이라며 “모든 인연의 고리는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고 악연이 되기도 한다. 길을 걷기에 앞서 좋은 생각, 착한 마음만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게 마음을 가꿀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일면 스님은 “요행을 바라지 말고, 누구의 힘을 빌려서 쉽게 이루려 해서도 안된다. 맑은 정신, 밝은 눈으로 나와 연결 되어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생명을 위해 정성을 모으면 기도가 영험을 발휘한다”고 전했다.

박진형 기자

“청소년 행복의 길잡이 되겠다”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심산 스님



“청소년의 행복을 돕고 길잡이로 성장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안정화를 꾀할 것입니다.”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심산 스님은 2018년 새해를 맞아 전국 조직 위상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심산 스님은 “17개 지역협회 발족으로 전국 조직 면모를 갖췄다”며 “지회를 20개로 늘리고 지역단 동반 성장을 도모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지회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을 넘어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선 전국 지회를 하나로 화합하는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회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파라미타는 △청소년 포교활성화를 위한 종단 및 사찰의 지속적인 협력 요청 △도심권 사찰의 청소년 전통문화체험활동 지원 △운영이사 및 고액 후원자 발굴과 연중 정기 후원자 모집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심산 스님은 “청소년 인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된 인간상을 제시하고 세계화에 발맞추는 앞서가는 파라미타를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마음의 평화와 바른 심성을 키워주는 인성프로그램은 파라미타 핵심 사업입니다. 대표 사업인 문화재 지킴이는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제 교류를 통한 뛰어난 인재 양성도 반드시 실시 될 것입니다.”

하성미 기자

“나눔 · 봉사로 자리이타 원력 실천”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무술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은 무술년 새해를 맞아 불자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을 바탕으로 산적한 국가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주호영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중도 · 화쟁 · 원융 · 자비 실천으로 국민을 하나로 모을 때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하고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다. 나눔과 봉사의 실천으로 이웃을 돕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서로 나눠 함께 희망을 키우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호영 회장은 국회의원들도 이 같은 마음으로 국가 안정과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주 회장은 “불자의원들 역시 자리이타 지혜의 원력으로 지난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사회를 안정시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호영 회장은 끝으로 “무술년 새해를 맞아 온 세계에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시길 발원한다”고 인사했다.

윤호섭 기자

변화 무쌍 丁酉年… 안정과 평화의 戊戌年 발원

탄핵, 대선, 미사일, 핵, 지진 등 다사다난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었다. 한반도를 밝힌 촛불민심은 대통령을 바꿨고 포항을 뒤흔든 지진은 역대 최초 수능 시험 연기 사태를 빚기도 했다.
불교계도 바람 잘 날 없었다. 조계종과 태고종에 새 총무원장이 선출되고 공휴일 ‘석가탄신일’의 명칭이 ‘부처님 오신날’로 바뀌는 등 변화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각 분야의 단체장들의 포부는 대부분 ‘안정’과 ‘평화’에 방점을 찍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롭게 문을 여는 한 해에 불교계 단체장들의 포부와 신년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부처님 말씀 나침반 삼아 나아가길”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인과응보의 법칙은 피해갈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뼈저리게 느낀 한 해였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부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새해를 맞아 부처님 말씀을 나침반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허상을 물리쳐 바른길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김상규 회장은 “요즘 한반도 전쟁위기 등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평정심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야 한다”며 “국민적 화합을 위해 우리 모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허상을 물리쳐야 바른 길이 드러난다. 이를 위해 부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규 회장은 “지난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인면수심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등장은 우리 사회가 심각한 도덕적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실감케 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 마음속의 부처님이자 착한 마음인 공심을 회복해야 우리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무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박진형 기자

“개의 친숙함으로 화합 불교 되길”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



“새해에는 개의 친숙함으로 보다 친절한 불교, 상생(相生)하는 불교를 구현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이 무술년을 맞아 상대를 존중하는 화합의 마음으로 공동체 삶을 꾸려나갈 것을 당부했다.

윤기중 단장은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하지만 그 삶이라는 것은 찰나찰나 생각, 말, 행동으로 내가 내 업을 만들어가면서 이루어진다. 공동체의 삶에서 무엇보다 화합중(和合衆)이 일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화합하는 마음은 곧 자비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이다. 화합의 불교가 돼야 한다. 공심으로 사사로움 없이 포교사단 발전과 포교사들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기중 단장은 “옛 말씀에 독불장군 없다 했다. 화합하는 마음, 그것이 곧 자비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다. 화합을 한다는 것은 컵에 가득찬 물을 비우는 것처럼 내 생각 내 주장을 접는 것이다. 화합은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데서 비롯된다. 내 생각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생각을 비워야 한다. 화합은 나와 상대방 사이의 불신의 벽을 허물자는 것이며 조직의 발전과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다. 지나치게 명분에 집착하거나 옳다는 생각도 고착화되면 화합은 멀어진다”고 새해에는 개의 친숙함으로 보다 친절하고 상생하는 불교를 구현하자고 전했다.

박진형 기자

“다원 네트워크로 소통, 자비행 할 것”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불교여성개발원은 2018년을 맞아 젠더, 종교, 국적을 초월하는 다원 네트워크로 세계와 소통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신년을 맞아 개발원의 소통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숙령 원장은 “지난 한 해는 불교여성개발원이 불교르네상스를 꿈꾸며 문화제를 개최해 많은 사부대중의 도움으로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감사를 전했다. 또한 “2017년은 나라와 불교계에 큰 선거가 있는 한 해였다. 선거를 통해 변화를 열망한 국민들과 불자들의 희망이 실현된 한 해이기도 했다”며 “변화의 시기에는 화해하고 상생하는 불교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각자 선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가족과 함께 직장에서 일을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 원장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로 사회 곳곳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교가 민심의 중심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사부대중 불자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합당한 자등명 법등명의 힘으로 무술년(戊戌年)에는 모든 분들의 소원 소망이 이루어지고,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박진형 기자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소 원 정 사

연꽃향기 자비나눔본부

주지 도계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79-5번지
■ 전화 : 062)279-3332

근하신년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포교사 일동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TEL 02)927-0588 / FAX 02)927-5390





“108산사순례기도회 구법순례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53선지식을 찾아가는 53기도도량
선묵혜자 스님과 108군법당 찾아 평화의 불 봉안하는 108평화순례단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

• 매월 첫째주 일 요 일 : 군법당 순례
• 매월 둘째주 금·토요일 : 53기도도량 순례
• 매월 넷째주 토 요 일 : 108산사 2기 순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08(상계동) 3층
전화(02)900-0193~4 전송(02)900-0195 www.108sansa.com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불기 2562년 무술년 새해

한 꽃에 온 누리를 다 재배하여 네 지로 향기로 피움으로 있는 것이 이 생각이다

행선사법어



그림 임효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131 (도천동)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